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
강화 전등사 수목장
대한불교 조계종 전등사 032. 937. 0125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1월 22일(음력 10월 2일) 수요일 (주간) 제 604 호

비구니 명사 7명 곧 탄생된다

조계종 법계위서 '확정'

조계종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비구니 명사 7명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혜정)는 1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지난 9월 5일 열린 제 171회 임시종회때 명사법계특별전형에 동의한 혜운, 광우, 묘업, 지원, 명성, 정훈 스님 등 6명과 함께 정화 스님에 대한 명사 품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구니 명사는 비구의 대종사 품계와 동일하며 비구니스님 가운데서 가장 높은 품계다.

조계종 기획실 윤승환 홍보팀장은 17일 "법계위원회 회의 결과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비구니 명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진각복지대상 신설

진각복지재단, 상금 700만원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회정)이 불교계 전반에 걸쳐 불교복지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치는 사회복지현장의 숨은 일꾼을 찾아 표창하는 '진각복지대상'을 신설했다.

진각복지재단은 현재 △전 시상부문에서 가장 공적이 뛰어난 인사에게 수여하는 '진각복지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수여하는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자에게 수여하는 '자원봉사상' 등 3분야에 걸쳐 11월 30일까지 단체 및 개인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단 5년 이상 지속적으로 봉사했고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수상경력이 없는 후보자여야 한다.

부상으로는 총 7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5시 서울 빅토리아 호텔에서 열리는 '2006년 진각복지재단 회향의 밤'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은비 기자

의제 · 한글의식 · 어린이 포교

종책만 있고 실천은 없다

중앙종회의원 통일가사 착용 절반 · 한문의식 그대로…자율성 한계 드러내

11월 15일 제14대 정기중앙종회가 열리고 있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 55명의 종회의원스님들이 13일에 이어 속개되는 종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사를 수하고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나 조계종에서 보급하고 있는 삼보륜 마크와 자신의 법명 및 법계가 명기된 가사를 수하고 있는 스님들은 절반에 불과했다. 특히 통일된 색이어야 할 가사 색 역시 진한 괴색과 연한 괴색이 마치 다른 색으로 느껴질 정도로 천차만별이었다.

최근 조계종이 종책으로 추진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 종단 중진급 스님들조차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의제 문제.

조계종은 2001년 법계법을 개정하면서 법계위원회 산하 의제실무위원회를 두고 승려 의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 가사원을 설치하고 종단차원에서 가사불사를 진행하면서 통일 가사를 보급하고 있지만 스님들의 동참률이 높지 않다. 지난 9월 19일 가사불사 제1차 점안식과 조계사 가사불사 당시 원로의원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교역직 스님들과 13대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통일 가사를 무료로 지급했지만 아직까지 종회의원 스님들조차도 절반 정도만 통일 가사를 수하고 있는 정도다.

통일 가사는 법계제도 정착을 통한 승가의 위상 정립은 물론 수행풍토를 진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종단 차원에서도 빠른 보급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종책이다.

조계종 가사원 집행부장 수현 스님은 "전국비구니회관 내에 가사원을 설치하고 불철주야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하루 20여벌 정도의 가사를 제작하고 있다"며 "올 12월 19일 2차 점안식을 통해 가사를 신청한 스님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며 최대한 빨리 모든 스님들이 통일 가사를 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의식의 한글화와 대중화를 위해 3년 2개월의 노력으로 <한글통일법요집>을 발간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다수 사찰에서는 한문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11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개원법회에서도 한문 <반야심경>과 삼귀의, 사홍서원으로 의식이 집전됐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교육원장을 비롯해 포교원에서 '한글 의식집' 관련 업무를 담당한 스님들은 물론 종무원들도 동참했다. 하지만 한문으로 의식이 진행되는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종단의 주요 종책에 대해 중진스님조차도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월 15일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삼보륜이 새겨진 통일가사(맨 오른쪽)를 수한 스님도 있었지만 기존의 가사를 수한 스님들이 절반이 넘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일부 스님들은 아직까지 스님들의 법회는 전통 의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출가와 재가의 의례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문제다. 종단에서 의식을 통합하고자 한글화를 추진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법요집을 한글화할 때 국문학과 교수 등의 감수를 받았지만 원래의 뜻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운율이 맞지 않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다.

하지만 종단 차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 종도들에게 공식발표를 했다면 홍보를 통해 한글 의식이 대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계종 포교단체의 한 관계자는 "종단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한글의식을 외면하는 현실에서 개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한글통일법요집>을 교재로 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종단이나 교구본사의 공식 행사때 <한글통일법요집>을 교재로 사용한다면 파급효과가 생겨 의식이 빨리 통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는 어린이 포교에 대한 종단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11월 11일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어린이 포교전진대회를 열고 '조계종 사찰은 모든 활동에 앞서 어린이포교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어린이법회 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포교 선언문까지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올해 1억원에 불과했던 어린이 포교 예산을 내년부터 3억으로 증액해 최대한 지원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린이 포교를 진작시키기 위한 종법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중앙종회에 관련된 법의 제 · 개정안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종법을 통해 강제 실천 사항으로 어린이법회 신설, 어린이법회 교사 처우문제 등을 명기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의지도 구두선에 불과할 수 있다.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 스님은 "종단의 종책이 개별 사찰과 스님들에게 빨리 전달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종도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종책을 빨리 확산시키는데 더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 남동우 기자


시방세계 9면
조계종 '어린이포교전진대회'

호남 최초 비구니강원 설립 7면
미국 군종관련 시설 탐방기 8면
제4회 대원상 수상자 발표 14면
이어령 박사 특강 중계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 28면
봉선사 강설대법회
우룡스님 '정토삼부경' 24~25면


도반의 향기 17면
김유영 '깍쇠 중대장'

"불조의 가르침 거울삼아…"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13일 개원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스님과 종회의원 76명 전원이 동참한 가운데 11월 13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식을 갖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제14대 종회의원 스님들은 정범 스님의 대표선서를 통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앙종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개원사에서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종도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부의 종무행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도 원로의원 혜정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오늘 이자리는 영산의 법등을 밝혀 소림의 종지를 선양하고 전승해 갈 14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갖는 법석"이라며 "근기에 투합하는 방편을 열어 중생을 깨우치고 종문(宗門)의 정안으로 옳고 그릇됨을 가려 종지를 바로 잡고 대중이 저버리지 않은 풍규(風規)를 만들어 가면 불조의 법령을 드날릴 것"이라고 법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이홍재 원장의 편자요법 건강 공개강좌

현대불교신문사 청운동 연수원에서 배달편자요법 공개강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연수원장 문광 이홍재 박사가 직접 개발한 배달편자요법은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편자를 붙여 아무런 통증 없이 경락을 조절하여 질병을 다스리는 새로운 요법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강좌 일정**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매주 수 목 금 주 3회)
  오전반: 오전 10~12시 오후반: 오후 1~3시
- **강사:** 문광 이홍재 박사(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장)
- **무료공개강좌:** 11월 23일 오전 10시, 오후 1시 두차례 실시
- **동참금:** 전과정 30만원(교재비 10만원 포함)
-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수여**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02)737-3034

현대불교가 안국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편집국 · 광고영업부(6층), 구독 · 관리부(10층)
대표전화 (02)2004-8200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월운 스님
능엄경/11월 25일
봉선사 설법전, 031)527-1951~3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빛고을불교아카데미중계 4면
11월 22일 오후 7시, 성열 스님 '녹원전법상'

www.bexpo.org
참가업체 모집
국내 최대규모의 불교전시회
2007한국불교박람회
2007. 3. 22 ~ 3. 25 서울무역전시장(SETEC)
주 최 : 현대불교신문사, (주)제이컨벤션
주 관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화관광부
전시품목 : 사찰건축, 사찰유지보수, 불교 및 포교용품, 종단 및 단체, 차 및 식품관련, 첨단포교, 불교장례문화, 불교와 관련된 기타산업
문 의 : 2007한국불교박람회사무국 / TEL. 02-706-3493

종회의장 자승 호계원장 법등 포교원장 혜총 스님

조계종 14대 중앙종회, 부의장에 장주 · 동광 스님… 사무처장 주경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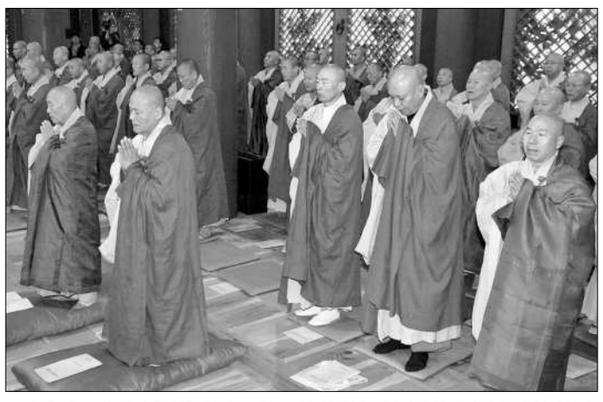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에 자승 스님이 당선됐다. 또한 호계원장에 법등 스님, 포교원장에 혜총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72회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제14대 중앙종회 의장단 구성 및 총 21개의 안건을 상정하며 보름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재적의원 76명 전원이 참석한 이날 종회에서는 자승 스님과 보선 스님이 전반기 종앙종회 의장에 입후보해 49표를 얻은 자승 스님 선출됐다. 수석부의장에는 장주, 차석부의장에는 동광, 사무처장에는 주경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고 7개 상임분과위원 및 위원장을 각각 선임해 원구성을 마쳤다.

또한 2007년 1월 21일 임기가 만료되는 호계원장 선거에서는 법등 스님이 종걸 스님이 얻은 30표보다 13표를 더 얻어 당선됐으며 공석중인 제5대 포교원장에는 혜총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호법부장 임명 동의에 대해서는 38명이 찬성해 심우 스님이 임명됐고 법흥, 혜승, 월서, 지종, 고우, 밀운 스님 등 6명의 스님들이 원로의원으로 추천됐으며 2007년 1월 22일 임기가 만료되는 6명의 종립학교 관리위원 선출에 대해서도 총 7명이 입후보해 태진, 범해, 보인, 보원, 광조, 일법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제14대 정기 중앙종회가 1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됐다. 사진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개원 법회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이밖에도 지난 11월 4일 임기 만료된 송광사 주지 현봉 스님 후임으로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법규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제4기 고시위원으로 법산, 혜국, 무관, 지현, 지안, 종석, 설우, 일초, 지형 스님 등 9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기 2550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 · 특별분담금사찰 종정감사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1일까지 활동에 들어갔다. 종회는 11월 22일 오후 2시 속개해 불기255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건 등 11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호계원장 법등 스님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각 상임분과 위원 명단

총무분과위원회 상운(위원장), 법해, 지홍, 법진, 도영, 진화, 의연, 일문, 일관, 자제, 덕문, 지현, 선문, 일법, 도문 스님 등 15명

교육분과위원회 장적(위원장), 일초, 돈관, 선각, 원담, 성직, 혜원스님 등 7명

포교분과위원회 지원(위원장), 정범, 주경, 효림, 보인, 일운 스님 등 6명

사회분과위원회 수현(위원장), 학담, 종훈, 동광, 성관, 영담, 진원, 자현, 성정 스님 등 9명

재정분과위원회 향적(위원장), 성월, 원경, 성묵, 법보, 원범, 법광, 보원, 각원, 정묵, 월우, 재현, 지준, 대오, 계호 스님 등 15명

호법분과위원회 도완(위원장), 진만, 혜오, 무자, 선광, 태진, 종호, 장주, 현공, 노현, 정광, 태연, 운달, 경륜 스님 등 14명

법제분과위원회 장윤(위원장), 지명, 보선, 영배, 정휴, 광조, 성효, 장명, 혜일 스님 등 9명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직능대표선출법 개정 신중히"

강원교직자회 입장 밝혀

전국강원교직자회(회장 우진, 통도사 강주)는 11월 13일 '중앙종회의원선거법(직능대표 선출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소견'이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개정법안은 한마디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수좌회나 교직자회, 종도들의 여망을 등한시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11월 3일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전국강원교직자회는 "종단 구성원의 여론과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절차를 충분히 거쳐 그동안의 불화를 씻어 내는 신중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포교부장에 동범 스님



조계종 새 포교부장에 동범 스님(사진)이 11월 15일자로 임명됐다.

동 범 스 님 은 1978년 사미계, 8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92년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95년 일본불교대학원 석사, 2000년 동국대 불교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법주사 포교국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제13회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포교사 자격 갱신

조계종 포교원은 2007년 2월 자격 유효기간 만료자를 대상으로 일반포교사 자격갱신을 실시한다.

갱신을 원하는 포교사는 신청서 1부, 팀장 및 지역단장 확인서 1부, 구 포교사증, 반명함판 사진 2매 등을 첨부해 11월 15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해당 지역 포교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02)2011-1891

남동우 기자

수현스님, 비구니 최초로 상임분과위원장에

조계종 종회 역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분과위원장 스님이 탄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172회 전반기 중앙종회 정기회의에서 사회분과위원장으로 수현 스님(사진)을 선임했다.



수현 스님은 "능력있는 스님들이 많은데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수현 스님은 제11, 12, 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두식 기자

"어린이 포교에 최선 … 영상포교도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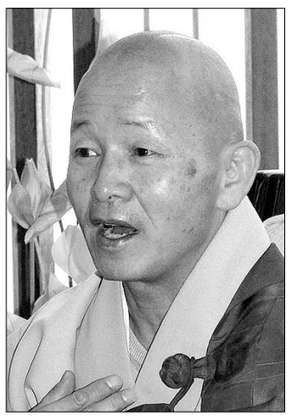
interview 조계종 신임 포교원장 혜총 스님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곳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로 가면 포교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새 포교원장 혜총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 · 사진)은 11월 15일 "포교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 만큼 전 국토가 불국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혜총 스님은 14일 열린 조계종 172차 임시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중앙신도회 및 각종 단체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포교원을 운영하겠다"는 혜총 스님은 특히 "포교원을 시스템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포교와 관련 "불교를 꽃피우려면 어릴 때부터 부처님 품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어린이 포교가 곧 한국불교 미래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포교원 업무 시스템화로 효율적인 포교전략 구축"

혜총 스님은 사찰 입구에 멀티비전을 설치해 불 · 법 · 승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제공하는 등 영상포교와 불서발간을 비롯한 문서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앙종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포교원장 추천에 동의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처음도 포교, 중간도 포교, 끝도 포교라는 생각으로 일하겠습니다. 내가 배운 것들을 이웃과 나눠 함께 불국토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포교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혜총 스님은 1956년 사미계, 6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 범어사 승가대학,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불교신문을 창간했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사) 참여불교운동본부 이사장, (사)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 부산 감로사 주지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새벽처럼 깨어 있으라〉 등이 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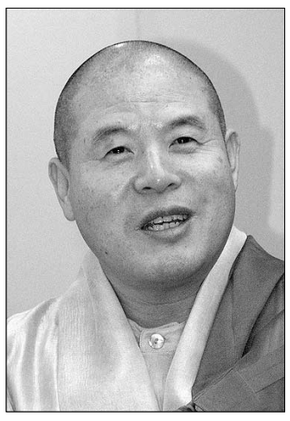
"종책모임 의견 수렴 생산적 종회로"

interview 제14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종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맡게 되어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의장단 스님을 비롯해 여러 종책모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생산적인 종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총무원과는 협력과 견제를 통해 불교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11월 13일 제172차 정기 중앙종회에서 제14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으로 선출된 자승 스님은 "최우선 과제가 화합인 만큼 반대표를 던진 스님들의 뜻도 존중해 의정에 최대한 잘 반영하고 종책 모임간의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해 종단 화합을 이루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또 "현안으로 떠오른 선거법, 종무원법 등의 개정을 위해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여러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현실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해서 중앙승가대 지원할 터…"

최근 중앙승가대가 봉은사를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특위를 구성해 중앙승가대 운영 실태를 조사해 필요하다면 종헌종법을 개정해서라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현 집행부의 인사가 독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인사는 총무원장 스님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69년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자승 스님은 연주암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을 역임했고 제10, 12, 13대 종회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소임을 맡고 있다.

한편 수석부의장에 선출된 불국사 부주지 장주 스님은 "14대 종회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종헌 종법들을 개정하고 화합 종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차석부의장 동광 스님도 "의장스님을 잘 보필해 종회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종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두식 기자

한국불교여래종 약사사

2006년 미얀마 성지순례자 모집

유네스코지정 미얀마 불탑 복원 낙성 대법회

황금의 나라, 탑의 나라 그리고 시간이 멈춘 땅으로 불리는 미얀마의 불교 성지를 여러 불자들과 함께 순례할 동참자를 모십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불교여래종에서 2003년부터 추진 중이던 땀민쏴 불탑 복원 완료함으로서 낙성 대법회를 거행할 예정이오니 뜻깊은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원만 기도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 순 례 일 시 : 2006년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 낙성대법회 : 2006년 12월 25일
▣ 접 수 마 감 : 2006년 12월 5일
▣ 여 행 지 역

양곤 : 미얀마의 수도로써 인구 500만의 대도시로 우리나라의 70년대를 연상시키는 도로와 현대적인 시설의 호텔 등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미얀마의 상징인 쉐다곤 황금 대탑 및 주요 유적지를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바간 : 세계 최대의 고고학적 유적지 중 하나로써 미얀마 중부의 이라와디강가에 42평방 킬로의 면적에 2,500 여기의 탑들이 보존되고 있으며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 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는 古都이며 세계 최대의 불탑 유적지입니다.

▣ 주 요 일 정

까바에 파고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미얀마 바간 초등학교 자매결연식, 아마라푸라 종 바간 수도원 자매결연식

주최 :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 주관 : 성남 남한산성 약사사
문의 : 전화 031)734-3205 / 팩스 031)735-3374

행 자 모 집

한국불교여래종에서는 승가상 구현을 위하여 확고한 사명감과 눈 밝은 인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모집대상

◆ 처음 승려가 되고자하는 자.
◆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건강한 자.
◆ 부처님의 일불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자.
◆ 장기간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자.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2번지
전 화 : 043)731-2261 / 031)734-3205

중앙승가대 '봉은사 재정지원 사찰 지정 요구' 배경은?

지원금 축소 '위기감' 특성화 전략 세워야

서울 봉은사를 재정지원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봉은사에서 집단기도 및 단식에 들어갔던 중앙승가대 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 각명 · 법공, 이하 비대위)가 11월 15일 중단을 결정했다. 집단기도를 시작한지 9일, 단식을 시작한지 6일만이다.

△왜 집단행동에 나섰나?

비대위가 집단행동을 벌인 직접적 배경은 연간 18억 8000여만원의 종단 지원금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는 중앙승가대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액수다. 하지만 이 예산은 '문화재관람료 특별 분담금'에서 무원으로부터 중앙승가대이전특별회계 중 남은 8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에도 특별회계 14억원을 이월해 지원받기로 했으며, 특별회계가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도 중앙승가대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중앙종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은사 새 주지 명진 스님도 '최대한의 협조'를 약속해 연간 6억원 정도 소요되는 학인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승가대에 얽혀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여전히 '불씨'를 안고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중앙승가대 문제는 승가교육 전반의 문제"라며 "승가교육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할 때가 왔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중앙승가대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종단 기본교육기관을 중앙승가대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중앙승가대를 대학원 중심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중앙승가대만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종단의 한 관계자는 "대중의 힘을 동원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종단지원 3년간 제자리 … 발전 답보상태

'지원 약속' 얻었지만 '미봉책' 지적도

"대학원 중심 인재양성 기관으로" 여론

현재 중앙승가대의 전체학인은 293명이며 1년 예산은 약 32억6천만원이다. 종단의 지원금과 중앙승가대 전체예산은 최근 3년간 거의 변함이 없어 발전도 답보상태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주지 교체시기에 봉은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1월 6일 비대위측은 "차기 주지 임명은 총무원장스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총무원 집행부와 만난 자리에서 "차기 주지 임명 보류"를 요구했고, 8일 새 주지에 명진 스님이 임명되자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봉은사가 정치적 거간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지만, 사실상 주지 임면권에까지 영향력을 행세하려 한 셈이 됐다.

△해결 방안은?

비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총지출되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폐지가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설립이념에서처럼 '중앙승가대학교는 조계종이 설립한 현대적 승려교육기관'이지만 선사상과 불교의식을 전공한 교수가 없다. 최근 사미(니)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도할 수행전담 교수도 없다. 대학원생 연구와 숙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용 공간도 필요하며, 4개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이 11월 16~18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 '제1회 불교여성인재양성기금마련 바자회'에서 참석자들이 물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기금마련 바자 성료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11월 16~18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개최한 '제1회 불교여성인재양성기금마련 바자회'가 성료됐다.

바자회에서는 누비장 김해자씨의 누비승복과 정경연 홍익대 교수의 판화 등 기증한 작품과 (주)쌈지와 서일농원 등 기업체에서 후원한 물품 700여 점이 판매됐다.

바자 수익금은 여성리더십교육 · 불교여성아카데미 · 행복한 가정지원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11월 16일 법련사에서 열린 창립 6주년 기념법회에서 4대 원장에 연임된 김인숙 원장은 "법인 설립과 여성불자 네트워크 형성, 후원회 조직 등 불교여성개발원의 인적 · 물적 토대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11월 14일 열린 조계사 삼존불 점안식에서 참석자들이 부처님전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사 삼존불 새로 모셨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대웅전 부처님을 새로 모셨다.

11월 14일 열린 점안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혜, 차석부의장 보성 스님과 원로의원 도원 · 지종 · 활안 · 녹원 · 원명 · 동춘 · 진제 · 초우 · 혜정 스님, 조계사 신도 등 사부대중이 조계사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점안식에서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삼존불 봉안 및 점안 법회 이후로 조계사 사부대중이 기도와 수행에 더욱 정진해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고, 나아가 온 세상이 정토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치사에서 "'한국불교의 중심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신도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을 위한 기도와 보살도 실천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한국불교의 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동우 기자

"대불청은 명예훼손 동영상 삭제하라"

이명박 前시장 내용증명 보내

기독교단체서 제작 · 편집

이명박 前서울시장측이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를 상대로 '어게인 인 1907(Again in 1907) 부산'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와 파문이 일고 있다.

'어게인 인 1907(Again in 1907) 부산'은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개신교 청년집회로 범어사, 삼광사, 안국선원 등의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해 종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던 행사다.

이명박 前 서울시장을 대리한 법무법인 홍윤 홍성만 변호사 등은 11월 9일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회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이명박 前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 게재 및 유포되고 있어, 이를 사실임을 전제로 한 기사들에 대한 게재 중지,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前 시장측의 내용증명 송달에 대해 대불청의 반응은 냉담하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의 행위로 불교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

대불청 전준호 사무총장은 "(문제를 제기한)동영상은 행사를 주관한 개신교단체에서 제작 및 편집한 것으로, 유명세가 있는 이명박씨가 행사를 격려하고 축하하는데 참여했음을 국민들에게 선전해 자신들의 행사와 기도행위 및 개신교 선교 목적에 활용한 것"이라며 "행사를 주관한 개신교단체에서 먼저 불교계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차기총장 5명 입후보

보광 · 현각 스님, 이황우 · 김보환 · 한진수 교수

동국대 차기 총장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보광(선학과), 현각(선학과) 스님, 이황우(경찰행정학과), 김보환(경찰행정학과), 한진수(회계학과) 등 교내 인사 5명이 입후보했다.

동국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지홍, 총추위)는 11월 17일 동국대 본관 소회의실에서 실무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총추위 관계자는 "외부인사도 1명 있었으나 서류가 미비해 보완을 요구했는데, 당사자가 입후보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추위는 '후보자에 외부인사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외부인사에 한해 23일 오후 2시까지 접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총추위 규정 8조 '위원장 일정 조정 가능' 조항에 따라 결정됐다.

만약 23일 오후 2시까지 외부인사가 접수하지 않을 경우 교내 인사로만 후보자를 심사한다.

한편 총추위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불교인권상에 '대불련'

제12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선정됐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는 11월 15일 대불련이 "불교의 발전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 발전을 위한 역할이 인정되는 등 다양한 연대활동이 모범이 될만하다"며 이유를 밝혔다.

또 부산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황정 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30일 '군승의 날' 법회

조계종 군종교구(주지 일면)는 제38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11월 30일 오후 6시 서울 하림각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기념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일면 군종교구 주지, 계성 부주지스님과 육 · 해 · 공군 군승 등 10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11월 29일에는 호국원광사에서 군승회의가 열린다.

김두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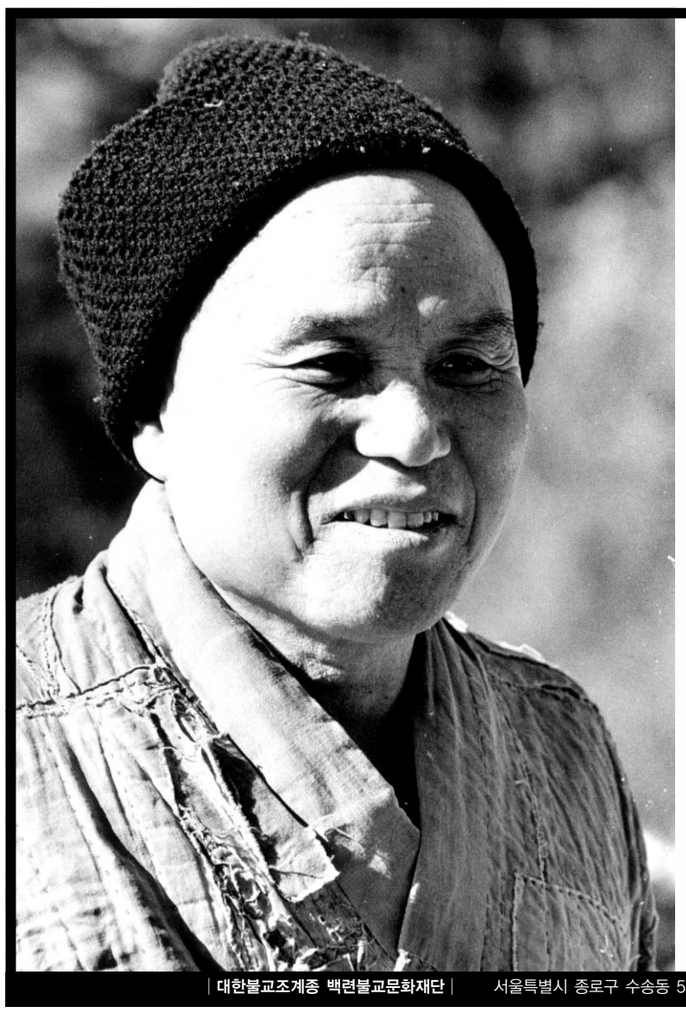
불교방송-동국대 상호 교류협정 체결

불교방송(사장 홍승기)과 동국대학교(총장 홍기삼)가 11월 16일 동국대 본관 정책회의실에서 상호 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서 홍기삼 총장과 홍승기 사장은 불교방송 임직원 위탁교육과 동국대 학생 인턴십 상호교류, 출판물 등 학술정보 교환, 영상 관련 사업 협조 등을 골자로 한 상호 교류협력사업 협정서에 서명했다. 또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운영협약서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불교방송은 매년 2명의 직원을 위탁교육 연수자로 동국대학교에 추천하고, 동국대학교는 등록금의 일정 부분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또 동국대학교는 매년 5명 내외의 학생을 선발해 불교방송에 근무시킬 수 있다.

강지연 기자



성철스님 열반 13주기 추모 학술회의

1960년대 전후 상황과 성철스님의 역할

성철스님은 성전암의 동구불출을 마치고 1965년 김용사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1966년 하안거 때에는 이듬해 백일법문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운달산 법회"를 20여 일 동안 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6년 대학생불교연합회 학생들로 조직된 구도회를 지도하기도 하였고
1968년 연합회 학생들을 상대로 수련법회를 열기도 하셨습니다.
그간 성철스님의 사상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맥락보다는
법문과 법어와 저술 자체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운달산법회 40주년을 맞이하고 성철스님 열반 13주기를 맞이하여
1960년대 중후반의 사회적 상황에서 성철스님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백일법문에 담겨있는 불교학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스님이 인용하신 과학적 근거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봉암사 결사에서 20년이 지난 때에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취임하신 입장에서
결사의 정신이 어떻게 총림으로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철스님이 불교 내부와 외부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에 부합하는 불교의 실천 덕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 택

● 일 시 | 2006년 11월 27일(월요일) 오후 1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주 관 |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
● 후 원 | 문화관광부

【 일 정 】

전체 사회 _ 서재영(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1:00~1:30 개회
발제 _ 원택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1:30~2:30 제1발표 백일법문과 근대불교학
발표 _ 조명제(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논평 _ 김영진(동국대 BK21 세계화시대불교학교육연구단 Post-Doc 연구원)
2:30~3:30 제2발표 성철스님 법문에서의 중도와 과학
발표 _ 양형진(고려대 디스플레이 반도체물리학과 교수)
논평 _ 박영준(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3:30~3:50 휴식
3:50~4:50 제3발표 1960년대 한국불교와 성철의 활동
발표 _ 김종인(고려대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연구전임교수)
논평 _ 박희승(조계종 불학연구소 불학연구팀장)
4:50~5:30 종합토론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파빌리온 931호 전화 02) 2198-5372 / 팩스 02) 2198-5374 이메일 : academy@songchol.net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인간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제6강 : 수하항마상)

광주불교사암련 · 현대불교 공동주최

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 / 11월 15일

큰 원 세워야 장애물 나타나도 흔들림 없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연기(緣起)를 깨치다

오늘은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입니다. 싯달타 태자가 보리수 아래에서 마구니를 항복 받고 성도하여 부처님이 되신 내용입니다.

선어록을 보면 불교를 크게 두 마디로 나누어서 분류합니다. 하나는 본분(本分)이고, 또 하나는 신훈(新薰)입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불해 마쳤다는 겁니다. 거기는 미오(迷悟)가 끊어진 자리입니다. 미오가 끊어지면 생(生), 불(佛)이 없습니다. 미한 사람을 중생이라 하고 깨친 분을 부처라 하는데 그 자리는 원래 깨침도 미혹함도 다 끊어진 자리로 무슨 중생과 부처가 있겠냐는 겁니다.

태양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지구의 그림자로 밤낮이 생길 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본성 자리에는 본래 미혹했느니 깨쳤느니, 중생이니 부처니 그런 것이 뚝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정각 이루기 전엔 일어나지 않겠다"

<화엄경>에 보면 '심불급중생(心佛及衆生) 시삼무차별(是三無差別)'이라 합니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어록에 보면 그 자리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고 합니다. 뚝 끊어진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는 팔상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일대사 인연, 그 자리를 깨우쳐주기 위해 부처님이 방편으로 팔상을 나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치지 못한 우리들은 부처님이 팔상으로 나투셔서 보여주신 대로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수하항마상에서 마구니를 항복받으면 항복 받아진 그 자리가 바로 부처자리입니다. 깨치게 되는 것입니다. 깨치게 되면 생 · 불이 평등한 그 자리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는 싯달타 태자였습니다. 싯달타 태자가 사문유관으로 도를 통하게 되는데, 도를 통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리심(菩提心), 발심을 해야 합니다. 발심을 하려면 반드시 무상을 느껴야 하지요. 싯달타 태자는 생로병사에 대한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셨습니다.

출가 후 처음에는 선정을 닦았습니다. 선정의 절정인 비상비비상처천(非想非非想處天)까지 닦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고행을 합니다.

육년 고행도 아니라고 느낀 싯달타 태자는 니련선하에서 목욕하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로 불리는 필발라수 아래에서 길상초를 깔고 서원을 세웁니다. "이 몸이 망가지더라도 정각을 이루기 전에는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선정에 들자 마구니의 궁전인 타화자재천이 흔들렸습니다.

<능엄경>에 "일인(一人)이 발진귀원(發眞歸元)하면 시방허공(十方虛空)이 실개소운(悉皆銷殞)이라" 했습니다. 한사람이 진심, 참마음을 발하여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싹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도 허공에 의지해 있는 것이니 마구니 궁전이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마왕 파순이 깜짝놀라 "큰일났나 보다. 누가 어디에서 뭐하는가 봐라"해서 살펴보니 사바세계에 있는 정반왕의 태자 싯달타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왕은 선정을 깨뜨리기 위해 어여쁜 세 딸을 보냅니다. 하지만 싯달타 태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큰 서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원이 크면 조그마한 것에는 흔들림이 없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의 원은 매우 커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왕은 딸들의 유혹이 실패로 돌아가자 팔십억 마군을 동원해서 태자가 선정에 든 것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짐승, 바람, 악마도 보내고, 상상할 수 없는 악독하고 무서운 것을 보내도 싯달타 태자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왕 파순이 직접 싯달타 태자 앞에 나타납니다. "그대는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전륜성왕이 될 것인데 무엇때문에 도통하려고 하는가.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겁생에 도를 이루려고 선행공덕을 쌓아 성불하고자 한다."

"다겁생에 선행공덕을 쌓고 도를 많이 이루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는가."

이때 싯달타 태자가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땅이 벌어지면서 선신이 나타나서 찬탄하고 증언합니다. 결국 마왕도 물러가고 새벽에 동쪽 샛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도를 이룹니다.

싯달타 태자가 성불하기 전에 앉아있던 돌을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서원이 금강같이 굳건했다고 해서 금강석, 나무는 도를 이루었다고 해서 보리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깨친 내용은 연기법입니다.

▷용맹정진해야 운명 확 바뀌어

<전등록>에 보면 20조 사야다 존자가 도를 이루기 전에 19조 구마라다 존자를 만났습니다. "존자님, 저희 부모는 평소 불법승 삼보를 돈독하게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집에는 도살업을 하는 전다라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도 산 목숨을 여럿 죽입니다. 그런데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됩니다. 저 사람은 행복한데 왜 우리 집은 불행합니까?"

그러자 구마라다 존자가 "그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과보에는 순생보, 순현보, 순의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순생보(順生報)는 생을 따르는 과보로 전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금생에 지은 것은 내생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야다 존자의 부모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불법승 삼보를 믿는 것은 내생에 받을 것이고, 지금 몸이 좋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전생에 지은 것을 금생에 받는 것입니다.

순현보(順現報)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입니다. 보통 꽃은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꽃이 떨어지기 전에 벌써 열매가 맺는 것이 있습니다. 연꽃이 그렇습니다. 연꽃은 꽃과 열매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듯이 극선과 극악은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금생에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또 순후보(順後報)는 지금 지은 것을 바로 다음 생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인연이 맞지 않으면 백천만겁이라도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연이 맞으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인과론이나 운명론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순현보,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다는데 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한 마음을 바꾸어서 깨달음으로 바꾸는 것)도 용맹정진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씩 해서는 도를 이루기가 힘들고, 며칠이든 용맹정진을 할 때 운명이 확 바뀝니다.



11월 15일 열린 빛고을불교아카데미에서 '수하항마상'을 주제로 법문하는 쌍계사 강원 강주 통광 스님.

공부도 시원찮게 하는 수도자에게는 마구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뜨릴 게 있어야 나타나지요.

우리가 애써 공부할 때 마도 나타나고 장애물도 나타납니다. 일부러 마구니 맞이하려고 공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하는 바를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큰 서원을 가진 분은 고통 받는 중생을 기어이 다 건지겠다고 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사홍서원의 첫번째인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서원이 크면 마도 큰 법입니다. '번뇌무진서원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끓는 번뇌가 한량없습니다. 번뇌가 아무리 많지만 그것을 다 끊겠습니다. 번뇌를 끊으려고 하니까 번뇌 끊는 법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불법무량서원학'이라, 부처님 법이 한량없지만 기어이 다 배우겠습니다. 한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바로 부처입니다. 한생각 돌이켜서 확실히 깨우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불도가 무상하고 위없는 최상이지만 기어이 다 이루겠다는 '불도무상서원성'입니다.

그렇게 부처가 되고나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구니를 항복받고 도를 이루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유죽 받아먹는 것을 보고 함께 고행하던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을 떠나 녹야원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도를 이루고 나서 제일 인연이 가까운 그들을 찾아가서 사성제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고 나면 처음 원을 발했던 가없는 중생을 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회하고 기도하면 업장 무너져

명나라 때 요범(了凡)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종 시에 아들에게 남긴 사훈이라는 유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 첫째,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원을 세웁니다. 원을 세웠으면 둘째로 원에 위배되는 행위를 과감히 고쳐야 합니다. 원만 세워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는 적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적선한 집안에는 반드시 많은 경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심해야 합니다. 바로 겸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를 하나 더 붙여야 합니다. 네 가지 원을 세웠는데도 이뤄지지 않을 때는 다겁생에 익힌 업장이 두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참회하고 기도를 하면 업장이 소멸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탐심을 원력으로 바꾸고, 성내는 것을 자비심으로 바꾸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지혜, 자비, 원력으로 불법승 삼보를 받들어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수행해서 생멸하는 가운데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도를 깨달아야 참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공부할 때 80억 마구니가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상도 80억이 더 됩니다.

한생각 한생각 그것이 모두 마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하나를 가지고 일념으로 해 나갈 때 결국은 한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뭐와 같아야 하느냐 하면, 급히 흘러 내려가는 여울물에 달빛이 비치는데 물결이 아무리 세차게 흘러도 그 달빛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공부가 일념이 되어서 온갖 경계에 부딪치더라도 거기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을 때 그야말로 동정일여(動靜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싯달타 태자만 정각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각을 이루어서 세세생생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원력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리 · 사진=이준엽 기자



2007학년도 전기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 (야간)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 · 지도자	불교	불교학, 선학	○○명
	문화재	문화재	
	불교사회복지	사회복지학, 호스피스	
	생사의례	생사의례	

■ 지원자격
석사과정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2007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
지도자과정 – 조계종 및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재적승려 및 신심이 돈독한 불자
– 학력제한 없음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고사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1월 20일(월) ~ 12월 1일(금)

제7기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야간) 신입생모집
(Buddhist Executive Management Course)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지원자격 – 각 불교 종단의 지도자급 이상 스님
– 불교신도로서 (공 · 사기업체 회장, 사장, 임원, 국회의원, 정부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 각 군의 장성,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2월 1일(금) ~ 2007년 2월 말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후 개별 통지

제3기 장례비즈니스 아카데미 과정(야간) 신입생모집
(Funeral Business Academy)

■ 모집인원 : 25명 내외
■ 지원자격 – 관련업계 종사자나 유경험자, 공 · 사기업 경력자 등
– 학력제한 없음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6년 12월 1일(금) ~ 2007년 2월 말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문의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행정지원실 02)2260-3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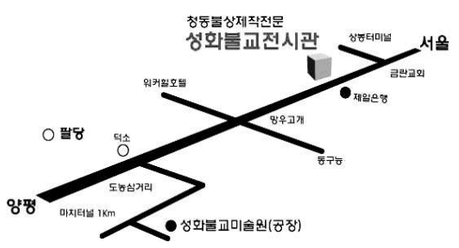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나눔운동으로 자비 제일 도시 가꿔요”

생명나눔부산본부 ‘난치병 없는 행복한 부산만들기’



부산 해동고 강석효 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학생들이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자인 스님에게 헌혈증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23일 ‘생명나눔 탁발 순례대장정’ 발대
콘서트 열고 저금통 5000개 분양
해동고, 광주본부에 헌혈증 124장 전달

올 7월 창립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난치병 없는 행복한 부산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부산지역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생명나눔 탁발 대순례’ ‘100원의 희망 불씨 콘서트’ 등을 기획하고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창립 이후, 장기기증 서명운동 등 현장에서 게릴라전을 펼쳐오던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를 내걸고 전면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행복한 부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 환우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 된 것.

프로젝트의 첫 사업은 ‘생명나눔 탁발 순례대장정’ 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교계 지도자 100여 명이 함께하는 이 행사는 11월 23일 부산역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부산진시장,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을 돌며 난치병 환자에 대한 홍보와 후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탁발순례는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혹은 분기별 정기 사업으로 고착시켜 시민들에게 난치병에 대한 주위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탁발 순례가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확대를 위한 장기사업 이라면 12월 9일 열릴 ‘100원의 희망 불씨 콘서트’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기대하는 사업이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이 콘서트에 앞서 부산지역의 종립 학교, 사찰, 신행단체에 5000개의 저금통을 분양, 난치병에 대한 관심에 불씨를 지핀다.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릴 콘서트는 분양됐던 5000개의 저금통을 모으는 자리인 동시에 부산 불자와 시민의 생명 나눔에 대한 관심을 한데 모으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날 모금된 수익금은 호흡장애와 전신마비가 주 증상인 희귀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신종(27)씨와 신장병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부산지역본부는 부산 해동고등학교 학생들이 두 달간 모은 헌혈증서 124장을 혈소판 사업이 한창인 광주 지역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051)853-0429

이은아 기자

“복지관 등서 노인 자립 도와야”

서부노인학대센터 세미나

부산시서부노인학대센터(소장 김영곤)는 11월 17일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 인권 침해 및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산여자대학 사회복지과 황인옥 교수의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안’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황인옥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노인학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이라며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스스로 자립심을 증대시켜야 함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내의 협력 체제를 구축,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미타선원, 100일 기도·참선 함께 해요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기도와 참선수행을 병행하는 100일기도를 봉행한다.

11월 25일부터 2007년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100일 기도는 하림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직접 100일 기도에 동참해 신도들의 신심을 북돋운다.

기도는 매일 새벽 4~5시 기도, 5~6시 참선, 오전 10~11시 기도, 11~12시 참선, 오후 2~3시 300배, 3~4시 참선, 저녁 7~8시 한글 금강경 독송, 8~9시 참선으로 진행된다.

한편 미타선원은 동안거 결제를 맞아 11월 25일, 1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동안거결제 용맹정진법회’를 개최한다. (051)253-8687 천미희 기자

제6회 천태합창제 열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총무원장 정산)은 국민 대화합을 기원하고 음악으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제6회 천태합창제를 11월 11일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 지관전에서 봉행했다(사진).

로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카르멘 전주곡으로 시작된 제6회 천태합창제는 5그룹으로 이뤄진 연합 합창단이 내 마음의 부처, 청산에 살으리라 등 10여 곡의 찬불가와 가곡을 열창했으며 이탈리아 성악가 실비아 다로스 와 포탈라 솔리스트 앙상블의 특별공연 등도 펼쳐졌다.

이날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각 지역의 합창단이 하나가 되어 멋진 음악을 만들어 낸 것처럼 이 마음이 더 넓고 높은 곳으로 올려 나가 국민 대화합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한국티벳센터 ‘룽법회’ 성료

한국티벳센터 광성사(주지 도향)는 11월 12일, 13일 양일간 경라라돗린포체 초청 룽 전승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열린 룽전승법회는 부처님 당시부터 전승돼 오던 ‘룽’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전승하는 법회로 경라라돗린포체의 룽 전승이 1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날 경라라돗린포체는 부처님 당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금강경, 능엄주, 신묘장구대다라니, 미타경, 반야심경, 입보리행론, 원각경, 현관장엄론, 중론, 칠십공성론 등을 통역없이 암송해 엄숙함을 더했다. 천미희 기자

연극으로 만나는 ‘인간 원효’

1978년 창단돼 부산의 원로극단으로 통하는 부산레파토리시스템이 98회 정기공연으로 원효의 인간적인 면모를 집중 조명한 연극 ‘삼매경’을 공연한다.

14일 시작한 이 연극은 11월 30일까지 눌원소극장에서 공연되며 원효 스님의 출생, 성장, 깨달음과 전법의 과정을 인간 원효에 맞춰 선보인다.

부산교육대학 심상교 교수가 극작을 한 ‘삼매경’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6시에 공연된다. 011-559-5119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24년만에 화합의 새집 마련

부산불교교육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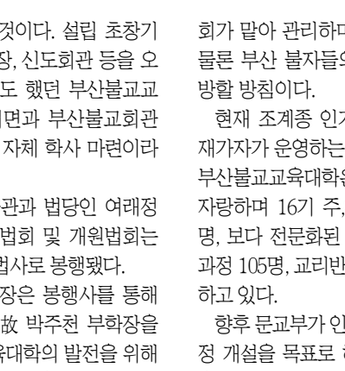
신행 공간 활용 향후 특수대학 과정 개설 방침

포교사 850명 배출 … “전국 최고 명성 지키자”

국내 불교교육기관 중 조계종 포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이 개교 24년 2개월만에 자체 학사를 마련하고 11월 16일 이전 법회를 봉행했다.

1982년 6월 문을 열어 24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850명이라는 포교사를 배출하고 졸업생만도 8천여 명에 이르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이 학사 마련이라는 숙원 사업을 이뤘다.

부산 서면 신동아오피스텔 5층 전관 240평 규모의 학사에 자체 교육관과 법당 여래정사를 마련한 것이다. 설립 초창기 학사가 없어 예식장, 신도회관 등을 오가며 법회를 보기도 했던 부산불교교육대학이 부산 서면과 부산불교회관 임대 시대를 거쳐 자체 학사 마련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개교 2년만에 자체학사를 마련하고 11월 16일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11월 16일 교육관과 법당인 여래정사에서 열린 점안법회 및 개원법회는 흥교 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됐다.

이날 강선태 학장은 봉행사를 통해 “이하우 전 학장, 故 박주천 부학장을 비롯 부산불교교육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낸 결실”이라며 “학사 마련을 계기로 정법 교육과 불법 실천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흥교 스님은 법어를 통해 “교육관뿐만 아니라 여래정사라는 신행공간도 마련된 만큼 교육과 실천의 양 바퀴를 두루 굴리면서 부산을 넘어 전국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학사 마련을 계기로 교육과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단법인 삼보문화회’로 인가를 받았으며 학장을 중심으로 교학원장, 대학원장을 두는 체제 개편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2006년 7월 결성된 학사이전봉행위원회가 중심이 돼 진행된 부산불교교육대학의 학사는 교육관, 법당, 행정실, 도서관, 동아리연습실, 식당 등의 시설과 최첨단 방송 및 영상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새롭게 마련된 36평 규모의 법당인 여래정사는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사 이전을 추진하며 진행된 100일 기도에 90% 이상 참석한 13명의 동문들로 구성된 염불봉사회가 맡아 관리하며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부산 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 인가 교육기관 가운데 재가자가 운영하는 유일의 교육기관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우수한 강사진을 자랑하며 16기 주,야간 불교학과 136명,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정인 대학원 과정 105명, 교리반 225명이 배움에 임하고 있다.

향후 문교부가 인정하는 특수대학 과정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은 불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특색 있고 전문화된 강좌를 개설,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관심까지 증폭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다. (051)711-0108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海印寺 高麗刻板「사간판 인경본」보급 불사 안내

고려시대 불교신앙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료가치의 최고를 드립니다

해인사는 고려각판을 보존하기위해 해인사 사간판 인경불사를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 **인경을 마친 인경본을 사찰은 물론 불자님들께 한정 보급**합니다. 고려팔만대장경이 제작되기 전인 900년대에 제작된 것부터 1960년대에 제작된 것까지 모두 158종 **5986판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28종이 국보 206호로, 26종이 보물 734호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간행기록이 남아있어 고려시대 불교신앙의 경향과 서지학적 변화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海印寺刊板이란?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두 동의 큰 판전인 법보전과 수다라장 사이에 있는 동사간전과 서사간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판이 보관되어 왔는데, 이 목판을 흔히 '해인사간판(海印寺刊板)'이라 불러왔습니다. 이 목판은 국가기관인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새긴 해인사 대장경판(국보 제32호)과는 달리, 지방관청이나 사찰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각「사간판 인경본」10질 한정 보급!!



80화엄경변상도(주본)



시왕생칠경



대문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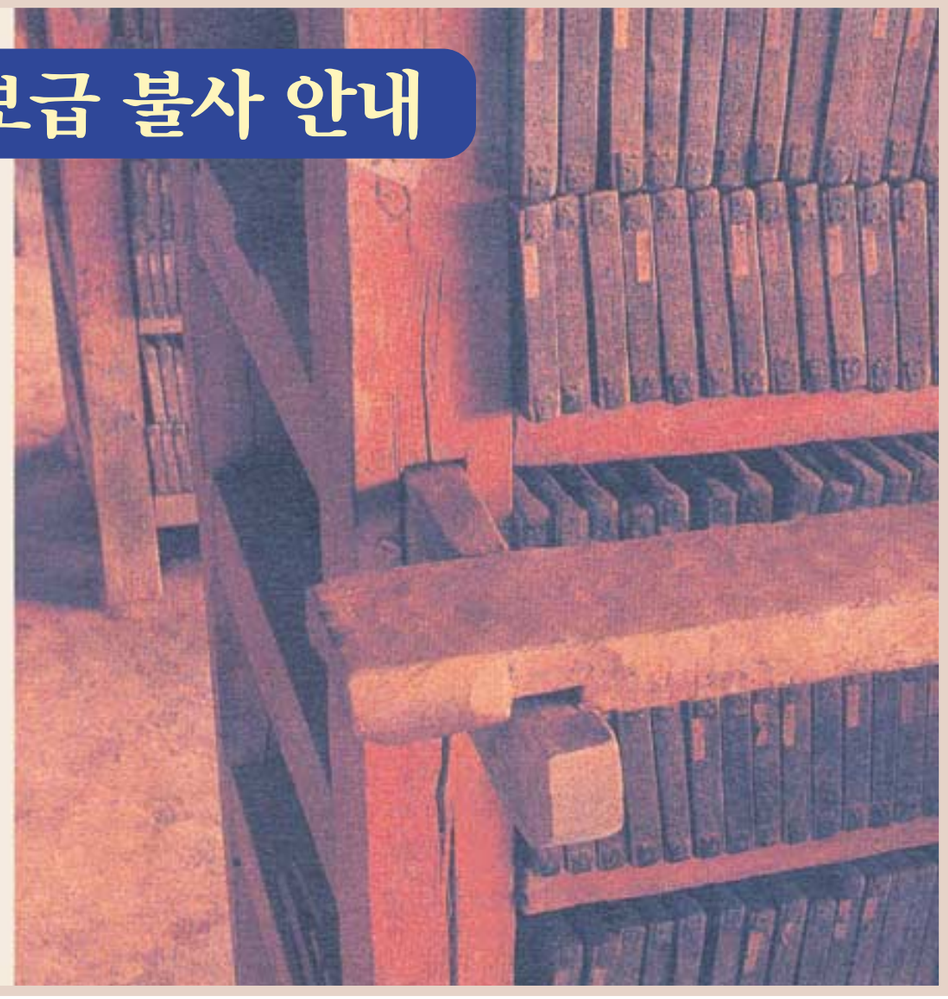


인천보감

경이름	총 권	판매가	비 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 고	경이름	총권	판매가	비 고
묘법연화경	7권	100만원		능가경회역	4권	50만원	고봉화상 선요	1권	50만원		大文금강경	1권	100만원	국보 206-20
인 천 보 감	상·하 2권	200만원	국보 206-9	심 부 주	4권	50만원	시 왕 생 칠 경	2권	200만원	1권 국보 206-10	80화엄경변상도(주본)	1권	200만원	국보 206-14
경덕전등록	10권	200만원		대승능가경	1권	50만원			100만원	1권 보물 734-3	80화엄경변상도(진본)	1권	100만원	국보 206-13

입금계좌 : 농협 843174-51-013471 (예금주 : 해인사)

구입문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보존연구원) 전화 055)934-3095 / 팩스 055)934-3096



집 늘리고 복지 늘리고

구미 금오종합복지관 500평 규모 본관 신축
장애인 · 지역민 위한 편의시설 대폭 강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이 본관 신축을 기념해 11월 13일부터 먹을거리 마당을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축제를 개최했다.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주지 법등)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본관 신축공사가 10월 말 마무리돼 운영규모가 배가됐기 때문이다. 금오종합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 3층의 500여 평 규모의 본관을 새로 신축했다.

하루 동안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역민은 3000여명이 넘는다. 지금까지 500평 남짓한 한정된 공간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연꽃어린이집, 금오치매어르신 주간보호센터, 학대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기초푸드뱅크, 금오농촌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의 다양한 부설 기관을 운영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 증축된 본관 건물은 최신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복지관이 갖춰야 할 부대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본관1층은 별관 1층에 있던 연꽃어린이집을 옮겨와 장애 비장애 아동을 통합 수용하는 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대기실에서만 상담실과 치료실을 볼 수 있는 특수거울(one way mirror)이 설치된 2층에는 가족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해 장애아와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애아발달지원센터가 들어서고, 최신 컴퓨터 시설을 확충해 기존에 실시해 오던 주민정보화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첨단 방송 프로젝션시스템을 갖춘 강당은 주민들을 위해 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할 예정이다. 별관 1층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고, 2층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실로, 지하는 치매어르신주간보호기관으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획을 계획하고 있다.

관장 법등 스님은 "처음 복지사업을 맡아 시작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자세로 새 출발 하겠다"며 "주부와 아동들이 참가할 수 있는 사회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뿐 아니라 일반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금오종합복지관은 본관 신축을 기념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사회복지축제를 개최했다. '자비' '희망' '참여' 구호를 내걸고 5일간 벌인 지역사회복지축제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게 매일 테마를 정해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는 종합적인 복지행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일연 스님 '생애' 4050자 비문에…

인각사, 보각국사碑 복원 24일 제막식



일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담은 '보각국사비'가 복원돼 군위 인각사에 세워졌다. 비 앞에 선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

<삼국유사>를 찬술해 민족문화의 터전을 이룩한 보각국사 일연(1206~1289) 스님의 행적이 상세히 기록된 '보각국사비(보물 제428호)'가 일연 스님 탄신 800주년을 맞아 복원돼 인각사(주지 상인)에 세워졌다.

인각사는 11월 24일 오전 11시 법주사 조실 혜정 스님과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유홍준 문화재청장을 비롯한 문화재 관계자 등이 참석 한 가운데 제막식을 봉행할 계획이다.

보각국사비는 일연 선사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 1295년 고려 충렬왕 21년에 왕명으로 인각사에 세워졌다. 높이 180cm, 폭105cm의 점판암으로 세워진 비석은 문인 죽허 스님이 일연 스님의 높은 덕을 찬양하기 위해 글씨의 성인이라 일컫는 왕희지의 자획을 집자해 새긴 명작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현재 인각사에는 높이 80cm 두께 15cm의 조각난 비석 일부만 전하고 있다. 글자 또한 전체글자의 1/10정도만 현존한다. 이는 왕희지의 글씨를 집자해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왕희지체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무절제한 탁본을 했기 때문에 마멸되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보각국사비는 왕희지 집자비 중 명작으로 중국에서까지 탁본을 해 갈 정도로 유명했으며, 임진왜란 때는 왜구들

귀부 · 머릿돌 고려시대 문양 고증 거쳐
박영돈 · 김상현 · 정병삼 등 학자 대거 참여

이 불을 피워놓았던 뜨거운 땅바닥에 비석을 넘어뜨린 채 탁본을 하는 통에 비석이 조각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훼손된 보각국사비는 비문 복원에 평생을 바친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새롭게 재현됐다.

특히 왕희지체의 보각국사비 복원을 위해 40여 년간 탁본과 고서를 수집하며 왕희지 글씨를 집자해 재현해 놓은 재야서지학자 박영돈 선생의 노력이 보각국사비 복원에 큰 바탕이 됐다. 여기에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정병삼 교수와 부산대 사학과 채상식 교수 동국대 사학과 김상현 교수의 연구가 더해져 24종의 탁본을 모은 비첩(碑帖)이 중앙승가대에서 간행되고, 여러 인연이 모여 보각국사비를 재현하게 됐다.

비록 비는 대부분 파손됐지만 오대산 월정사의 혜월 스님이 보관하고 있던 보각국사비 사본과 탁본 20여종이 전하고 있었다. 이중 일연선사의 행적이 담긴 비의 앞면 양기 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전체내용이 수록된 게 전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비의 건립 내력과 문도들의 이름을 기록한 비의 뒷면 음기를 복원하는 데는 난해한 점이 많았는데, 채상식 교수의 역할이 컸다. 채 교수가 2004년 4월 보각국사비문 내용이 모양과 함께 판독 필사돼 실려 있는 자료를 중국 상하이 도서관에서 복사해 옴으로써 원형에 가까운 음기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었다. 4050자에 달하는 비문이 완성되고 보각국사비의 재현은 2004년 4월 일연선사비 재현자문위가 구성되고, 2005년 5월 재현제작자문위가 다시 구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배지선 기자

은해사 주지배 족구대회



"리시브~, 360도 회전 롤링 스파이크 대단합니다."

11월 12일 은해사에서는 은해사 주지배 족구대회가 열렸다.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다지기위해 은해사가 산문을 연 지 올해 3년째, 이번 대회에는 은해사 스님 팀을 비롯해 영천시청, 청통농민회, 청통면사무소, 청통자율방범대, 지역산업체인 보성공단 금호농협 등 23개 팀이 출전해 경내 곳곳에 마련된 3개의 특별경기장에서 하루 종일 열띤 경쟁을 펼쳤다(사진).

우승은 보성공단 B팀이 차지했고, 영천시청과 청통농민회가 각각 준우승과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은해사는 이날 청통면내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150만원을 기탁해 더욱 뜻 깊은 대회가 됐다. 배지선 기자

장애인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종광)이 11월 21일 불국사문화회관 3층 대강당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역 장애인과 장애인고용을 희망하는 지역 사업주와의 상호 만남의 장인 '경주시 장애인 구인 · 구직자 만남의 날'을 개최한다. 장애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직업재활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직업재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구직욕구가 있는 모든 장애인들은 이력서와 복지카드를 지참하면 참여할 수 있다.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이번 만남의 장을 통해 사업주의 고용의지를 고취시키고, 장애인 고용 촉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054)776-7522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中 칭따오에 도량 개원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가 11월 12일 중국 칭따오에 10만명의 교민들을 위한 도량을 개원했다(사진).

이는 미국뉴욕에 이은 두 번째 해외진출로 영남불교대학은 "전 세계에 천개의 분원을 건립해 온 세상에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한국불교 세계화의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회주 우학 스님과 김상길 동문신도회장 등 40여명의 대구 큰절 신도, 주청도 대한민국 김선흥 총영사와 300여명의 교민들이 동참했으며, 우학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자들과 함께 "수행의 묘미, 봉사의 묘미, 인생의 묘미, 진리의 묘미를 분명히 터득 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칭따오 분원(주지 지범)은 법당과 종무소, 서점 등을 갖추고 화상강의 위주로 현지 교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게 된다. 배지선 기자

대구경북포교사단 염불포교팀 상주 호암사서 경로잔치 열어

대구경북포교사단 염불포교팀(팀장 김웅기)은 11월 11일 12명의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상주 호암사(주지 현종)를 방문해 겨울 월동비와 간식비로 80여 만 원을 기탁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벌였다.

올해로 4년째 이어지는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포교사단 박정수 부단장과 염불포교팀 김웅기 팀장을 비롯한 포교사 20여명과 대구만평풍물패가 동참했다.

처음에는 약 20여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큰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버린 지금은 12명의 아이들이 남아있고, 현종 스님은 최근 인근 논에 연을 재배해 연차를 만들어 수익금으로 어려운 재정을 메꾸고 있다.

지역 젊은이들이 모두 빠져나간 상주 이안면 지산1리 호암사에서는 이날 지역 어르신들이 호암사 아이들과 흥겨운 풍물공연을 보며 모처럼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배지선 기자

대구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만불보전 대법당 낙성식



대구 대명동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사요)이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000평 규모의 만불보전 대법당을 건립하고 11월 11일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과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 곽성문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오후 1시부터는 영국의 유명한 기타리스트 크리스그래스필드와 예울국악관현악단 등이 출연하는 격조 높은 축하마당 잔치를 벌였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11월 11일 현대불교가
안국동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기존의 청운동 사옥은 **연수원 전용**으로 사용하고
신문 제작 등 제반업무는 종로구 안국동 새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 새 주소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 **편집국·광고영업국 6층,**
관리부 10층

● 전화와 팩스번호는 기존 그대로이며
대표전화는 (02)2004-8200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편자요법 건강 공개강좌

귀의삼보하옵고,
배달편자요법은 불자인 문광 이홍재박사가 발명한 획기적인 새로운 의술로 침이나 뜸을 사용하지 않고 작은 편자를 붙여 아무런 통증도 없이 경락을 조절하여 질병을 다스려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뛰어나며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합니다.
산사에서는 도시의 병원에 가기도 어렵고 전문인에게 치료받기도 쉽지 않아 아파도 참거나 방치해 고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노 보살님들은 늘 몸 여기 저기 아프기 마련인데 스님이나 법사님 보살님 들이 편자요법을 배우신다면 통증이 전혀 없이 동료 스님은 물론이고 나이 많은 신도들부터 아기들 까지 모든 환자의 고통을 보살펴 주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편자요법을 발명한 문광 이홍재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공개강좌와 본 강좌를 마련하오니
환자시술과 의술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
■공개강좌일시 : **2006년 11월 23일(목) 오전 10 - 12시, 오후 1시 - 3시(2차례)**
■본 강좌일시 : **2006년 11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1개월**
◎**오전반** :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오후반** : 매일 오전 1시부터 3시(2시간) 매주 수, 목, 금 주 3일
■수 강 료 : 공개강좌 무료
■1개월 전 과정 : 30만원(교재 10만원상당제공) ※ 본 광좌 수료자는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문 의 전 화 : 011-9765-6999
■편자요법으로 치료 잘되는 증상 : **전두통, 편두통, 후두통, 감기기침, 콧물, 코피, 경항통, 어깨결림, 담결림, 등줄기결림, 견통(오십견), 팔뚝아픔, 손목아픔, 손가락관절통, 요통, 환도심, 좌골신경통, 무릎관절통, 발목염좌, 눈 피로, 갑상선염, 심통, 협심증,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숙취, 간장질환, 생리통, 생리불순, 멀미,**
■교 통 편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 버스 7016, 1711 경기상고 앞 하차 도보 5분
※ 자가용 20대 까지 주차 가능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연수원장 문광 이홍재 합장

호남에 비구니 전통강원 첫 설립

화순 유마사, 내년 3월 개강… 외국어 · 포교 교육


강의실과 도서관 등을 갖춘 육화료.

호남 최초의 비구니 전통 강원인 유마사 승가대학이 설립됐다.

화순 유마사(주지 일장)는 강의실과 도서관, 향당(교수실), 육화료(큰방) 등 승가대학 시설 일체를 갖추고 2007학년도 신입생모집에 들어갔다.

내년 3월에 개학하는 유마사 승가대학은 기본교과목에 외국어와 인터넷을 강화해 시대에 앞서가는 승가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마사는 세계화를 대비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교사와 전남대학교 교수진을 초빙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광케이블 공사를 마쳐 최상의 인터넷 환경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송광사 율원과 연계해 계학 강좌를 강화하는 것도 유마사 승가대의 자랑.

주지 일장 스님은 "승가대학은 4년의 교육과 수행을 통해 홀로설 수 있는 수행자의 자질을 키우는 도량"이라며 "필수과목은 물론 어학과 포교, 복지 교육을 통해 광도중생하는데 소홀함 없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유마사 승가대학은 2000년 일장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본사인 송광사와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키로 합의하고 7년에 걸친 불사 끝에 이뤄지게 됐다.

폐사나 다름없던 유마사가 복원되고 승가대학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주민들도 사평초등학교 동문회(회장 박영용)를 중심으로 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건립불사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삼선포교원), 경기(봉녕사), 충청(동학사), 영남(운문사, 청암사)에 이어 호남에서도 비구니 전문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도 "송광사 관내에 비구니 강원이 설립됨에 따라 송광사가 명실상부한 승보종찰로 거듭나게 됐다"며 "최첨단 교육시설과 현대화된 교육과정으로 승가교육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유마사는 백제 무왕 28년(627)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뒤 50년 가까이 퇴락되어 있었으나, 일장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해련부도(보물 1116호) 정비와 전각복원, 승가대 건립으로 도량을 일신했다. (061) 374-0050

interview 주지 일장 스님

"폭넓은 교양 갖춘 수행자 양성할 것"

첨단 시설 · 교과과정 마련



"폐사된 천년고찰을 복원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보다 천년 앞을 내다보는 인재양성은 더 훌륭한 불사입니다"

유마사에 호남 최초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한 주지 일장 스님(사진)은 "수행자는 교학은 물론 21세기가 요구하는 폭넓은 교양이 요구된다"며 "현대에 맞는 수행과 포교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 첨단 교육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일장 스님은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수행과 포교를 하는 수행자를 양성하기 위해 승가대학 설립을 발원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스님의 원력으로 전력이 약해 전기제품 사용마저 용이하지 않은 심신산골에 광케이블을 갖춘 최첨단 시설의 승가대학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스님은 "화순에 전통 승가대학이 들어서면 지역도 함께 발전되고, 열악한 지역 불교세를 모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장 스님은 1978년 홍인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 1980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85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와 1990년 일본 동경 입정(立正)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1997년 입정대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화순 전남대병원 법당 법사를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광주전남생명나눔 모금행사


11월 12일 무등산 원효사 앞에서 열린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의 모금행사 모습.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는 11월 12일 무등산 원효사 앞 '절로 가는 길'에서 백혈병 환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를 펼쳤다.

원효사 신도회가 주최한 이날 모금행사는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나눔 국수, 나눔 차 등 먹거리 식당 운영과 헌혈증서 모으기, 문화공연 등이 열렸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날 모금행사 수익금과 '절로 가는 길' 매출금 등 230여만원을 화순전남대 병원에서 투병중인 백혈병 환우들의 치료비로 전달한다.(062) 234-6602)

이준엽 기자

진흥원, 충주서 청정운동 법회

대한불교진흥원이 국민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정운동 순회법회가 충주에서 11월 13일 열렸다. 법회에는 성기태 전 충주대 총장 등 지역 불교계 지도자와 파라미타청소년협회, 군부대 장병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법사로 나선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남이 또다른 자기이므로 스스로 청정한 것이 이웃의 청정을 가져오고 이웃의 청정이 곧 나의 청정을 가져 온다"며 청정운동의 소중함을 설파했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호남 최대 미륵석불 점안

담양 용화사, 높이 15m… 평화통일 발원


높이 15m에 이르는 호남 최대 크기의 용화사 미륵대불.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조 미륵대불이 조성됐다.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묵담유물관 뒤편에 미륵대불을 조성하고 11월 26일 점안식 및 산사음악회,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2003년부터 3000일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 주지 수진 스님은 "삼국 통일 후 진표율사가 금산사, 법주사에 미륵불을 조성해 민족화합을 기원했다"며 "선대 조사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국민통합 경제부흥 남북통일을 기원하고자 미륵대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용화사 미륵불은 가로 5m, 높이 15m 규모의 석조 대불로 통합종단 종정을 역임한 묵담 스님의 원불인 미륵불을 원형으로 조성했다.

이로써 현재 국내에는 호서지역에 법주사 미륵대불, 영남 동화사 약사대불, 영동 낙산사 해수관음에 이어 담양 용화사 미륵대불이 호남을 대표하게 됐다.

묵담 스님 원불은 한국전쟁 당시 묵담 스님과 불자들이 서울 선학원에서 49일간 기도하던 중 많은 이적을 보인 미륵불로, 용화사 묵담 유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용화사는 이날 미륵대불 점안을 기념해 묵담 스님 원불인 미륵불, 보물 제 737호 <불조역대통재>, 백파 스님의 <금강팔해경> 등 묵담 스님 유물을 일반에 공개한다.

한편 용화사는 미륵불 점안에 이어 국내 처음으로 '동자승의 집'을 개원한다. 동자승의 집은 연건평 45평 2층 건물로 용화사에 거주하는 구오사미 10여명이 생활한다.

글 · 사진/담양=이준엽 기자

도선국사 추모예술제

영암 도갑사, 5천여명 동참



비보풍수의 시조로 불리는 도선국사의 뜻을 기리는 문화예술제가 처음으로 열렸다. 영암 도갑사(주지 월우)는 11월 12일 도선 국사 탄신 1179주년을 맞아 '제1회 도선국사문화예술제'를 경내 일원에서 개최했다.

도선국사 영정 이운(사진) 및 다례로 시작된 이번 예술제는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과 각 사암 스님 박준영 전남 도지사, 유선호 국회의원, 김일태 영암군수 등 지역 기관장, 지역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 법요식에서 천운 스님은 법어를 통해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것이 비보풍수이다"며 "인생살이에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실천행으로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월우 스님도 인사말에서 "도선국사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더불어 공존하는 세상을 주창했다"며 "천년을 이어온 도선국사의 사상과 뜻을 다시 새기고 널리 펴고자 예술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국사암에서 도선국사 영정을 모셔오는 이운식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선인들이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뜻을 받들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문화예술제에는 종범 스님 초청 특별강연회와 동국대 박무흠 교수의 '생활풍수' 강연, 법수 스님의 살풀이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는 영암군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무성영화 상영이 이어졌다.

이준엽 기자

금산사 개산 1407주년 기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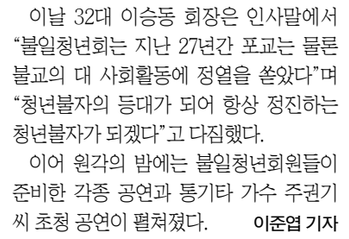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1월 10일 개산 1407주년을 맞아 대적광전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지역 사암 스님과 신행단체장, 신도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주지 원행 스님은 법어를 통해 "미륵십선법을 행하는 그 자리가 곧 미륵정토이다"며 "끊임없는 수행정진으로 개산조 진표율사가 펼친 법상종풍을 정립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사진).

법회에 앞서 본, 말사 스님들은 조사전에서 역대조사에 헌다례를 올리고 부도전을 참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미륵전에서 법화림보살, 대표상보살 복원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불일청년회 창립 27주년 기념법회



광주 원각사 불일청년회(회장 이승동)는 11월 11일 광주 드맹 아트홀에서 '창립 27주년 기념법회 및 원각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32대 이승동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일청년회는 지난 27년간 포교는 물론 불교의 대 사회활동에 정열을 쏟았다"며 "청년불자의 등대가 되어 항상 정진하는 청년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원각의 밤에는 불일청년회원들이 준비한 각종 공연과 통기타 가수 주권기씨 초청 공연이 펼쳐졌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화제의 신간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법어집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도서출판 여시아문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연수동 309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여시아문

'어느 것에서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모두 참될 것' 이라는 임제 스님의 종지에 따라 어디에서나 분별이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법현 스님의 사자후!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法玄


자기의 옛거울 하나가 시방세계를 고요히 비출 뿐
옛거울에는 분별심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분별심이 본래 없는 데서 참구하는 화두를 바르게 깨치면
마음눈이 열려서 자기의 옛거울을 참으로 밝히게 되는 것이니
범부가 바로 성불하는 최상승 조사선의 도리이다.

"눈병이 난 사람이 두 가지로 헛보이듯이 중생의 분별심은 생사를 둘로 보게 합니다. 생사를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니, 분별심을 끊어 버리면 바로 자기의 마음 눈병이 치료되어 본래 생사가 없는 일심진여법계(一心眞如法界)가 현전(現前)하게 됩니다." - 법문 중에서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여시아문 : 02)737-0695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수화포교 우리가 종단 대표”

태고종 유일의 연흥사 수화봉사동아리 활약 “눈에 띄네”

11월 14일 경기도 부천시청 대강당. 무대위에 10여 보살들이 올라와 경쾌한 노래와 율동을 맞추고 있었다.

‘이세상의 부모마음 다같은 마음, 아들딸이 잘되라고 행복하라고 원더풀 ♬♬ 원더풀 ♬♬ 아빠의 청춘, 부라보 부라보 아빠의 인생’.

(사)경기농아인협회 부천지부 주최로 열린 ‘제 6회 부천수화경연대회’에 참가한 ‘연흥사 수화봉사동아리’ 회원들이 대중가요인 ‘아빠의 청춘’을 몸짓언어인 수화로 부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 이들의 수상은 처음이 아니다. 4회대회에서는 대상, 지난해 5회 대회에서는 은상을 차지할 정도로 연흥사 수화봉사동아리는 이제 부천 지역 유일의 불교 수화봉사동아리로서 실력과 명성이 자자하다.

결성 3년만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호응 받기까지에는 연흥사 주지 법경 스님 외에 진공 · 진해 두 스님의 역할이 컸다.

특히 진공 스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은 3년전 우연히 구청을 방문했다가 한 청각장애자가 의사소통이 안돼 민원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신도들을 설득해 동아리를 만들었다. 먼저 수화를 배운 진공 스님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 이제 20여 회원들은 청각 및 언어장애자들과 웬만한 의사소통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태고종단내에서도 유일한 수화동아리인 ‘연흥사 수화동아리’가 결성 후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사무소와 구청 등 관공서다.



11월 14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 6회 부천수화경연대회’에서 연흥사 스님들과 수화봉사동아리 회원들이 ‘아빠의 청춘’을 수화로 부르고 있다.

하루전날 진공 스님에게 장애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스님이 자원봉사자 회원들에게 직접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봉사가 이뤄졌다. 요즘은 봉사의 활동 영역을 넓혀 장애인들을 인근 병원까지 데리고가 의사가 진료할 때 설명해주는 통역 봉사도 병행한다.

이 동아리에 대한 소문이 부천 지역에 자자해 이웃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들에게 연락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회원들은 수화 봉사를 통해 사회생활도 더 충실히 하게 되고 가족간의 사랑까지 돈독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법경 스님은 “수화동아리는 90%이상이 개신교 등 타종교가 일찍부터 선점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불교 수화동아리는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장애인포교의 어려움은 많겠지만 불교에서도 꾸준히 관심 갖다보면 신도들의 결속력도 더 좋아지고 사찰과 종단 홍보도 돼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글 · 사진=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진각종 총인 도흔 정사 23일 총인원서 추대법회


도흔 정사가 진각종 제 10대 총인으로 공식 추대됐다.

진각종 원로회의 기구인 인의회(의장 혜일 총인)는 11월 14일 대구교구청 회의실에서 ‘13회 인의회’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도흔 정사(사진)를 제 10대 총인으로 추대했다.

도흔 정사는 지난 10월 19일 제 349회 정기 종의회서 제 10대 총인에 만장일치로 선출된바 있다.

총인 추대법회는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봉행된다.

김주일 기자

진각가족 진리나눔축제 연다 25일 진선여고 회당기념관서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이 가족과 이웃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행활동을 점검하는 한마당 축제를 펼친다.

진각종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는 ‘제 1회 진각가족 진리나눔 축제’를 11월 25일 진선여자중고등학교 내 회당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서울, 대전, 전라교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축제는 밀교교리법회, 가족 서원가대회, 신행활동 사례발표, 진각문화마당 등 4개 마당으로 구성된다. 원로스승 초청 특별법회인 밀교교리법회는 생활법문을 통해 교리체득의 기회와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대구, 부산, 경주, 포항교구는 내년 상반기 중 위덕대에서 제 2회 진각가족 진리나눔 축제를 개최한다. 김주일 기자

미륵종 부산교구 현판식 초대 교구원장 임명장 수여


부산교구원장 혜경스님(왼쪽)이 총무원장 송정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다

미륵종(총무원장 송정)은 부산교구 현판식과 초대 부산교구원장 임명장 수여식을 11월 15일 부산 금강사에서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륵종 원로원장 연봉 스님과 총무원장 송정 스님 등 종단 간부 및 신도 100여명이 참석해 부산교구의 발전을 기원했다. 영민 서부 경남 지사장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기고 – 미국 군종 관련 시설을 다녀와서

1300여 군종장교 중 불교법사는 없었다

육군본부 군종감실 주최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1박 12일동안 본인을 비롯 법사 4명과 군목 등 군종장교 16명이 미국 군종 병과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왔다.

미국의 군종 병과는 1775년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육군을 창설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은 군종장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병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은 물론 작전시 지휘관에게 조언을 하는 참모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병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군종제도도 광복 이후 미군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군법사는 월남 파병을 앞두고 1968년에 처음 조계종이 국방부에 파송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군종학교는 12주간의 교육을 통해 전시를 대비한 실무중심으로 군의 현실과 군종장교의 역할을 배운다고 했다.

야외 훈련장에는 실제 이라크 주둔 미군부대를 재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임관 때부터 다양한 재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군종학교라는 별도의 독립 교육기관은 없다.

특히 군종 장교가 자신의 종교를 알리고 신도획득을 제 1의 목표로 활동하는 우리와 달리, 장병들의 상담 및 선도, 영적, 종교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강조하는 미 군종학교의 교육에 군종장교의 전문성과 군내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대조적이었다.

신도획득을 위한 황금어장으로 포교(선교)에 제1의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군종 병과가 거울 삼아야 할 대목이다. 개인의 종교를 초월해, 오직 장병 개개인의 인성 함양과 행복 추구의 조력자로써 역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군에는 1300여명의 군종장교가 있다. 그중 개신교 군목이 80%, 천주교 신부가 10% 무슬림 · 랍비등 기타 군종 장교가 10%의 분포인데 아쉽게도 불교 법사는 아직 없다. 사실 군승 법사는 우리


육군본부 군종감실은 매년 군종장교를 선발해 선진 군종병과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를 시찰한다. 사진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교회에서 찍은 사진. 왼쪽부터 김갑영, 미 육사 군목 다랠 E.톰센, 경연수, 이준석 군법사. 사진제공=김갑영

신도획득이 목표인 국내 군종장교와 달리 장병들의 영적 · 도덕적 지도자 역할 중시

나라가 세계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50만 미 육군 가운데 1558명의 아시아계 불자들이 있고, 법사 TO가 2석 정도 있는데도 마땅한 자격자가 없어 공석이라고 한다. 전역한 후배 법사님들 중에 영어에 능통한 분이 미 군종으로 다시 입대한다면, 그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 생각 된다.

꼭 필요한 일이다. 개신교 군목에는 이미 200여명의 한인 2세와 교포가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미국 군종학교 및 육군 병원과 여러 대학에는 한국군 현역 군목이 여러 명 유학하고 있다. 우리 군승들도 영어 등 자신의 실력을 키워 보다 선진화된 군종병과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등으로 나가 선진 문화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도 불교 명상 상담 등 여러 분야의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가를 다양하게 양성 해야 된다고 생각 되었다.

뉴욕과 LA에서는 교회, 성당, 사찰을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100만의 교포가 살고 있는 LA와 20만의 뉴욕에서 우리 한국불교 모습은 개신교에 비해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대만불교는 LA에 대형 사찰과 대학까지 세우고 그 위세가 대단했다. 행사때마다 수 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한국불교는 고작 1백~2백명 수준이라니 무척 안타까웠다.

종단차원에서도 해외 포교의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LA나 뉴욕 같은데 한국 문화의 전진 기지로서 교포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형 사찰의 건립과 보다 실력있는 후배들이 미군에도 진출해 군 포교 영역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 김갑영(5군단 호국 금강사 법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한국불교의 미래 군 불 교

봉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축

軍僧! 軍人! 未來!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

여기 삼보에 귀의옵고
전법의 길을 떠나는 자가 있습니다.
망망대해 황금어장, 무진법문을 통해
모든 군장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968년 최초 5명의 육군 군승 파송 이후 38년!
대한민국 육 · 해 · 공군 척박한 군포교 현장에서
오직 일념으로 진력해 온 전법의 선봉장! 136명!
오늘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한국불교를 밝게 비출 원력과 신심으로
미래의 한국불교를 외칩니다.

초청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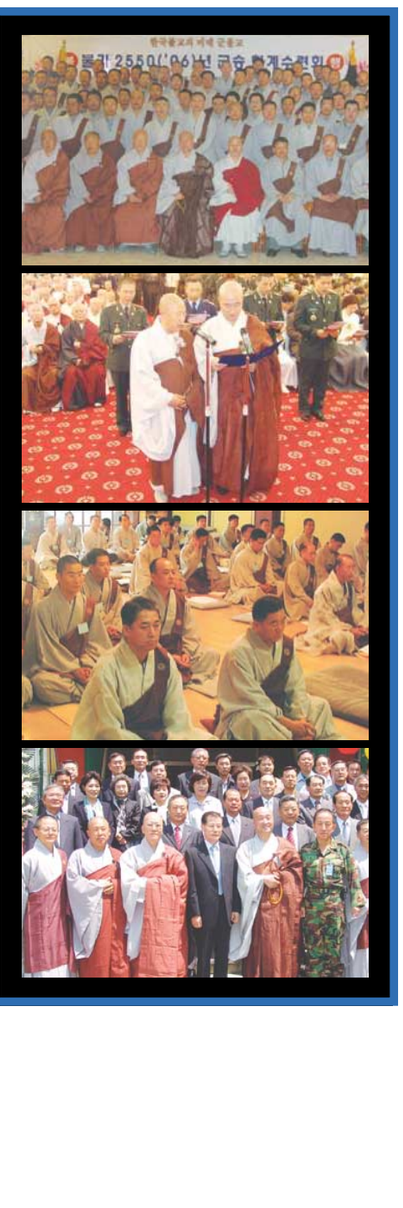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의 미래 군불교 발전을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을 모시고
「제 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06)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본사 주지 황 일 면 합장

1부 제38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
● 총무원장 스님 법어
● 유공자 포상

2부 축하공연
● LMB싱어즈, 연꽃소리, 박완(팝페라), 국방부 타악연주팀 등

일시 : 불기 2550(′06)년 11월 30일(목) 오후 6시
장소 : 하림각(종로구 부암동 소재)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살립시다!

사부대중 모두의 마음을 모아 군불교 발전을 위한 발원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국군장병에게 부처님의 손길을 전하는 고귀한 불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 계좌번호 : 제일은행 325-20-203673 (예금주 : 군종특별교구)
● 후원금은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으로 군포교 일선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 축하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문의·전화 :
군종교구 종무실 02)749-8646
팩스 02)796-0221
홈페이지 www.gunindra.com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미래불교의 희망 만들어요

조계종 포교원, 조계사서 어린이포교전진대회

"이제, 불교의 희망인 우리 어린 불자님들을 위해 사부대중이 지혜와 원력을 모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어린이들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1월 11일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어린이포교전진대회'는 비구니스님 및 어린이법회 지도자 등 순수하게 어린이포교에 열과 성을 다해온 어린이포교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한판 축제였다. 조계종 어린이포교 3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선포식을 올린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 회장 송묵, 사단법인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 등과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단체 관계자 및 전국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교사와 불자어린이 등 연인원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이 처음으로 개최한 '어린이포교전진대회'에서 전국의 어린이포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1월 11일 '어린이포교전진대회'가 시작되자 사단법인 동련,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등 13개 단체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입장하고 있다.


11월 11일 조계사에 전래놀이마당이 펼쳐지자 엄숙하기만 하던 사찰이 놀이터로 변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꽃컵등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들.


어린이포교에 헌신해온 운문 스님(왼쪽) 등 공로자들에게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국서 어린이·교사 등 2000명 참석

조계사 앞마당에는 아침 10시부터 대한불교교사대학,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조계종 포교사단 어린이팀 등 어린이포교관련 단체들이 홍보 부스와 전래놀이마당 등을 꾸몄다. 축제 분위기에 한껏 젖은 아이들이 손에 솜사탕과 풍선을 들고 절 안을 마음껏 뛰어다녔다. 이 아이들은 모두 이날 전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구미, 대구, 평창 등 전국 곳곳에서 올라온 어린이법회 회원들이다.

아침 7시부터 33명의 아이들과 KTX를 타고 올라왔다는 구미 불로사 룸비니어린이합창단 송은호 단장은 "항상 이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래왔다"며 두 눈을 반짝였다.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씩 아이들을 모아 찬불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배워도 무대에 올라 공연할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다"는 송단장은 "종단에서 어린이불자들을 위한 공연과 행사를 자주 개최해, 룸비니합창단 어린이들이 음성공양할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처님 품안에서 공연하니 좋아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장구를 치며 사물놀이를 연주해 박수를 받은 평창 극락사 연화유치원 코끼리반 윤희(6)는 "절에서 공연한 건 처음"이라며 "부처님 품안에서 공연하니 더 좋다"며 웃었다.

이어 2시 무렵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과 조계사 능허 스님의 집전으로 전진대회가 시작되자, 목에 연두색 스카프를 두른 어린이포교 관계자들이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이 스카프는 어린이포교전진대회를 기념해 포교원이 배포한 것. 쌀쌀한 초겨울 날씨였지만, 새싹포교를 연상케 하는 밝은 연두색 스카프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밝게 만들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은 언젠간, 그 언젠간 부처님이 되실 분이죠."

나레이션이 깔리며 '조계종 어린이포교 현재와 미래' 영상물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평소 어린이법회를 지도하는 등 포교일선에서 활약하던 지도법사와 교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영상이 나올 때마다 "우리 이야기"라고 뭘 듯이 기뻐했다.

#영상물 시작되자 박수·환호 터져

모두들 종단이 어린이포교 관련 단체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다"며 "이 분위기를 이어 앞으로 정말 어린이포교활동을 펼치기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법어를 통해 "어린이들이 밝게 자라 사회와 나라를 잘 다스리면 지상이 정토가 될 것이니 어린이포교는 불교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최일선의 포교사들을 독려했다. 더불어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이 원력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는 사찰 주지가 어린이법회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관 스님의 법어에 이어 어린이포교에 20년 이상 헌신해 온 현장 지도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는 시상식이 마련됐다.

#운문·성일 스님 등에 공로패

평생 찬불가 보급에 매진해온 삼보불교음악협회 운문 스님, 1973년 화성 신흥사에 주지로 부임한 뒤 어린이법회를 이끌며 <어린이 불교학교 지침서><청소년 포교 지침서>등 다수의 어린이·청소년관련 책자를 저술한 성일 스님에게는 조계종 총무원장 공로패가, 용화사 주지 영진 스님에게는 총무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 진해대광불교어린이회·대광불교학생회·부설 유치원 등을 창건한 진해 대광사 주지 운성 스님과 600곡에 이르는 어린이 찬불동요 가사를 짓고 어린이지도법사를 교육하는 불교교사대학을 설립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황학현 단장, 총 22집에 이르는 찬불동요 앨범을 발표해온 풍경소리 이종만 실장, 묘각사, 천웅사, 복천선원 등 다수 사찰 어린이법회를 창건한 불레협 김재성 국장에게 포교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어린이단체를 이끌어온 송묵 스님과 지현 스님이 공동으로 '어린이포교 선포문'을 낭독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번 포교전진대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어린이포교 3개년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는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어린이 지도자를 위한 전진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대한불교유아교육협회, 조계종 포교사단 어린이팀 등이 개설한 부스마다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어린이 불자들이 차명상을 체험하고 있다.

▶ 어린이포교 선포문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부대중은 어린이야말로 미래의 부처님, 불교의 희망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선포한다.

하나. 종단은 어린이포교를 위한 노력에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제공한다.

하나. 사찰은 모든 활동에 앞서 어린이포교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우선 배정하며, 어린이법회 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운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불자는 모든 어린이를 부처님처럼 대하며, 어린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힐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어린이지도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와 현 시대에 맞는 포교방법을 배우고 익히며,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한다.

하나. 어린이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스님들의 가르침에 따라 지혜로운 마음과 자비로운 손길을 가진 불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위에서 선포한 다섯가지 약속이 결실을 맺어, 모든 어린이들이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자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들의 정진은 조금의 주저함이나 싫어함이 없이 계속될 것이다.

금강약돌 온열복대
열침의 효능—Health Belt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氣발생기 : A8306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해실험필 전자파환경인증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배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편안하게!
"암은 열에 약하며"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강력한 원적외선 「열침」의 효과
금강약돌 온열복대의 효능
생리통, 복통, 요통, 냉증, 변비, 소화불량, 관절염, 전립선, 피부염, 복부지방분해, 혈압조절, 피로회복, 체질 및 혈액순환개선, 산후조리, 스트레스성 증상, 숙취 등에 효과적이며, 특히 암예방과 전이예방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온열복대와 유사품과의 비교
문의전화 : 금강닥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아름다운 외관 · 천년의 생명력 '자랑'

(주)동희산업, 강도 높고 균열 없는 전통 전돌 복원

주목! 이 기업 이 제품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양질의 전돌이 점차 사찰불사에 폭넓게 활용되면서 최근 전통문화의 원형을 되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의 전돌은 굽는 가마와 온도의 차이로 인해 전통방식의 전돌과 달리 냉파(추위에 얼었다가 녹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파열되는 현상)에 약해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돌은 전돌 그 자체의 색상과 문양, 크기, 용도에 따라 분위기를 달리 할 수 있어 사찰건축은 물론 궁궐, 달, 성곽, 탑 등의 지상건축물의 벽과 바닥재로 애용됐다. 특히 1000년의 세월에도 견뎌내는 견고함과 멋을 부릴 수 있는 조형미를 갖춘 소재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남아 있는 문화재 중 국보 30호로 지정된 분황사석탑을 비롯해 안동신세동 전탑(국보 16호), 청양 장곡사 상 · 하 대웅전(보물 161,182호), 송림사 5층전탑(보물 189호) 등은 대표적인 전돌 건축물이다.

그러나 현대에 복원된 전돌은 문화재적 가치 보다 상업성에 치우친 결과 전돌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해 왔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관을 손상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요즘 시공하는 사찰의 신 · 개축, 각종 문화재 시설의 개 · 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돌 대부분이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전개한 끝에, 최근 한 업체가 전통방식의 제조기술을 복원, 전통 그대로의 전돌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전돌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전통양식의 건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불교계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단가마에서 1200℃의 온도로 구운뒤 서서히 식혀야 냉파 등 결함이 없는 전돌을 얻을 수 있다. 동희산업 근로자들이 단가마에서 점토로 빚은 전돌을 쌓는 모습.





전돌은 색상과 문양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TV드라마 신돈 세트장(위)과 담양 천불선원.

단가마서 열흘 냉각이 '비법' … '침탄공정' 등 특허
문화재 개 · 보수, 탑 · 외벽 등 사용 … "불교계 희소식"

(주)동희산업(대표이사 이충근, 경북 상주시 모서면 소재)은 고유 전돌과 현대 전돌의 차이를 가마와 굽고 식히는 온도에서 발견해냈다.

현대 전돌은 대량생산을 위해 길이가 긴 터널식 가마에서 섭씨 800도로 구운 뒤 순간적으로 상온에 노출시키는 서양식 붉은 벽돌 제조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희산업은 단(單)가마에서 1200도로 점토를 구운 뒤 서서히 식힘으로써 강도 높고 균열 없는 전돌을 개발했다. 이 전돌은 불완전연소로 탄소성분을 착색시키는 '침탄공정'을 거쳐 해충을 방제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동희산업의 단가마에서 생산된 전돌은 특허청으로부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고유 전돌의 특성을 살린 '탄소성분을 함유한 제조법'을 인정받아 올 1월 특허를 획득했고, 10월에는 코너 벽돌과 제조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

고유 전돌은 내 · 외벽은 물론 바닥, 코너, 단 등 제한 받지 않는 전돌 48종을 개발해 서산 서광사와 담양 천불선원, 대전 금화선원 등 사찰에서도 고유 전돌을 자재로 쓰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안동 하회마을,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활용됐다.

고유 전돌은 사찰과 성보문화재에서의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보문화재 주변의 건축자재 대부분이 시멘트로 조성돼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서도 향후 문화재 개 · 보수에 고유 전돌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054)534-8267 www.jeondol.com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대웅전 시멘트 바닥 보고 마음 아팠어요"



이충근
동희산업 대표이사

"일전에 마곡사에 갔을 때 보물로 지정돼 있는 대웅보전과 대광보전의 웅장함에 입이 벌어지더군요. 그런데 주변의 바닥은 포방전(바닥재)이 아닌 시멘트로 발라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불교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동희산업 이충근 사장이 2년여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전돌을 복원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전통을 되살리겠다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콘크리트가 대세를 이룬 요즘의 건축문화가 이제는 우리나름의 건축문화로 바뀌어야 한다"며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색상과 질감을 유지하는 고유 전돌이야말로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불자인 이충근 사장은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기술을 잘 조화시켜 최고 품질의 전돌을 생산하는 장인이 되겠다고 거듭 밝혔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문화상품전문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 벽걸이정원



가격: 대형 88만원, 소형 55만원

벽걸이정원은 돌가루, 자연석, 천연음이온도료, 안개분수, 블랙등내장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으며, 정원을 집안 또는 업소, 방안에 조성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님이 정원에 모셔져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거나 전원생활을 원하는 이, 새집증후군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분다의 경계학 (20)

불교는 가난의 종교?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어느 교수가 영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필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영국의 어느 교수가 말하기를 "불교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종교인 듯하다. 아시아에 있는 못사는 나라들이 모두 불교국가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 불교의 교리 자체가 가난을 추구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불교는 현대의 종교가 되기에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불교는 가난의 종교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한국인 교수는 세계 지도를 보면 경제적으로 절대 기아선상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타 종교국가를 볼 수 있는데,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불교를 매도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불교는 재물 집착으로 타락하는 것 경계하나 가난을 극복해야 할 첫번째 대상으로 보고 수행과 함께 삶을 지탱하는 중요가치로 인정

물론 불교는 재물에 집착하고 재물 때문에 타락하는 것을 경계하는 특별한 종교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재물은 크나큰 공덕의 증거로 생각하고 있음을 <아함경> 등 경전의 이곳저곳에서 알 수 있고, 재물이 많은 것에 대해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가난이 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예컨대 <금색왕경>에서는 빈핍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어떤 법을 괴로움이라 하는가. 이른바 가난이다. 어떤 괴로움이 가장 힘든가. 이른바 가난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 받을지언정 가난하게 살지 않으리."

적어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한 불교에는 부자에 대항하는 '가난한 자의 벗'이라는 의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함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식의 시각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경전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지를 인도하고 있고, 그 재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

불교는 보시의 실천, 사회사업의 실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고,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전에 나오는 신자 중에는 하층계급의 출신자도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 부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대항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불교가 부에 대하여 무한한 찬탄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부는 오히려 인간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위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는 그 자체로서는 부러움의 대상도 경계의 대상도 아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소비되는 과정에 의해 부의 가치가 비로소 결정된다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

그러나 불교는 종교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만이 아니라 부도 인간생활을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가난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의 가치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재물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 식의 시각도 절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교가 가난의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 감히 그릇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는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가르친다.

이처럼 오도된 불교의 경제관을 바로잡아 불자는 물론 전국민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일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세로 88 cm × 가로 58cm

수 월 관 음 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 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 어 해 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남성용중지갑(검정)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원하는 재물과 땅속의 보물까지 얻는 평생 부자지갑!!

동서 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고 어려운 일들이 묘하게 풀리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다고 하여 신통묘통하게 만사가 형통 된다는 신묘장구대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지갑이 출시 6개월 간에 숫한 화제를 낳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까지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 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고 복권에 당첨되어 친지가족들에게 지갑을 선물하는 등 믿음의 지갑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고 만사를 형통하게 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 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 하는 팔길상 보병과 지갑을 가지는 순간부터 건강이 회복되고 장수하게 건장상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한 지갑으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여성이 진보라색 지갑을 지니고 다니면 물질적인 고통이 해결되고 가정이 번영하며 후손들이 성공한다는 행운의 뜻이 있어 제일 인기다. 또한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신 분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까지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준다.

•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여성용장지갑** 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무료강좌
(제 1기 모집)
명리,작명,풍수,육효,자미두수
종합반(기초반,중급반,고급반)
3개월 또는 6개월 완성
불광사 032)508-0381
019-9007-0381

사찰행사문의
49재, 천도재, 바라, 나비무
살풀이, 승무, 회심곡, 태평소
학인모집 . 실전위주교육
범음 · 범패
017-556-5691부산 장전동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범천명리강의실

기문둔갑	12월 4일(월)낮2-5시첫강의
육 효	12월 5일(화)낮2-5시첫강의
용신특강	12월 6일 (수)낮2-5시첫강의
사맹격법주	12월 7일 (목)낮2-5시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역학 · 전생요법
전생퇴행. 빙의천도
개인지도. 직접상담
02-2265-8023
011-772-4606
서울 지하철 종로5가역
비룡정사 제행스님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제1기 불교 마음 수련생 모집
참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에 마음을
찾으면 육신 또한 평안하리라....
일시 : 2550년 양 12월 5일
1. 일주일반 : 10명
2. 일박이일반: 10명
선착순 접수 후 2기 편성
접수 및 문의011-9371-8080
팔공산 묘적암 불교 마음 수련원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
011-591-5277

기공지도자
전문과정모집
행자모집
30년전통불선도(佛仙道)
대한불교전통기공협회
051)852-2277
016-551-9700

무각닷컴 사주클럽
격국을 잡아야 용신이 보입니다.
사주가 늘지 않는 분 직접 사주를
풀면서 용신분석 강의 지방계신 분들도
인터넷 강의와 문제지 매주 발송
초보 6개월 완성 월 10만 파격가
전화상담(만원), 방문상담(이만원)
02)831-2202/ 019-838-6908
www.mukak.com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원장 학산 합장
054)383-4569
016-717-1592

동양최대 천수관음법도량
100억 불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불교발전에 초석이 되실 후원불자님을 기다립니다 (중원의 최고 명상지)
제왕스님 합장
010-9443-7881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분양안내
■ 22,2평형 - 3세대
■ 18평형 - 3세대
■ 14평형 - 5세대
} 총 잔여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문의 054)772-7171
전화 011-538-3879

인연을 찾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심리상담을 통해 중생의 실제 고통을 원력으로 꽃피울 한국-스리랑카 불교문화원 건립에 필요한 도량을 제공해 주실 거룩한 인연을 찾습니다 (서울,경기)
스님1 : 심리치료사, 상담심리박사과정
스님2 : 스리랑카, 산스크리트석사과정
011-436-7529

건강이 나쁘신분 1회 실습으로 확인됨.
〈세계 최초의 발명 특허 벤처 기업〉
온열요법= 효소발생
발한요법= 세포운동과 청소와 재생, 완전대사
정전위요법= 피를 맑게, 자율신경조정강화, 스트레스해소
이온요법= 산소공급
http://matgong.koreasme.com
한글주소://온열전위자극기
02)763-0567大法心
010)3181-117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미만
경북 봉화에 있는 사찰
약사여래기도도량
017-522-4569

비구니(사미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7235-3511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대안사(경기도 의왕)
031)459-3666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김포
010-9469-6625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02)387-3216

공양주 보살, 화주 보살, 스님이 되실 행자스님 구함
설악산 불탑사
033)671-7751~3
주지직통010-4373-83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환영
02)917-3363(정릉)

부전스님(비구) 모십니다
▷광주
016-273-5527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2)666-6692
019-9264-70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054) 772-4133

경리보살 구함
(신심있는 PC가능자)
45세 이하
▷경주 왕룡사원
017-531-777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100만원
010-7225-2537

1. 신심있고 내집처럼 살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찾습니다 (운전가능한자)
2. 남 · 여 행자 스님 구합니다
011-9803-630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북 충주시
043)848-5313
010-6399-5311

인연을 찾습니다
백두대간 오와명산 중 양주 감악산 자락에 5년여 도량을 조성하고 불사를 이뤄 마련된 공간에 마땅한 인연을 찾아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전원생활을 원하시는 분
- 도량내 단독별채 : 전세
- 33평 방4 주방 거실 욕실
- 심야전기, 암반 지하수
- 산과 저수지 인접, 등산로 입구
- 자연수양 또는 정착, 예술활동 적지

수양생활을 원하시는 분
- 조용히 수양 겸 노후생활 하실 분
- 1인1실 식사 등 편익제공
- 경제적으로 노인시설 입주가 부담스러운 분

스님의 길을 원하시는 남녀불자
- 교양대학 불교의식교육 지원

공양주
- 월 보시 80만 원 이상

연락처 : 031)867-1801~2
한국불교 태고종 율림선원
주지 선 묵 신도회장 법성화 합장

산세 수려한 실버타운
목욕 · 세탁 · 청소 · 이사 - 일체제공
나날이 즐거운 기도성취도량
주지 법사 010-9367-5982

진솔한 봉사 정신으로 봉사하며 자연 치유법과 전통대체의학에 관심이 많고 사찰운영능력이 있으신 스님이나 처사님 연락바랍니다
010-3348-4242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교육비 55만원 교육기간 : 2~3일
※교육 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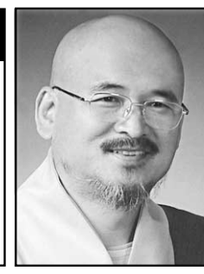
파 문 공 고
弘仁홍 인 (洪 性禹)홍 성 우
위 자는 상시 막행막식에다 출가인의 품의와 승풍을 난잡하게 하고 재색(財色)의 속풍(俗風)을 버리지 못 할 뿐 아니라 위선(僞善)의 탈을 쓰고 개과천선(改過遷善)할 여지조차 없음으로 부득이 청정승풍(淸淨僧風)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를 破門하는 바입니다. 이에 사부대중은 이 자의 감언이설에 속지마시기를 알리는 바입니다.
2006. 11. 13
대한불교 조계종 선찰대본산 범어사 내원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보는 방법을 1:1로 쉽게 전수하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탱화 및 관음도
- 법당용 탱화
- 개인 소장용 관음도
- 지장도 비천상 주악도
- 소품용 단청 문양
보리수 불화 공방
011-9180-327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조성불사 권선문

산승이 1,000일 기도중에 11면 42수 천수천안관세음 보살님께서 나투시어 33자 10M로 불상을 목불로 조성 하여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는 현몽가피를 받아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대작불사가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큰 원력과 신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받쳐서 기도 발원 드립니다.
참된 나를 찾아 가는 불자님께서 이번에 조성하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께 큰 신심을 내시어 큰인연 공덕을 지어주시고 무량복덕을 성취하여 수명장수하고 세세생생에 성불하십시오.

11면 42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 시주문

11면	한분	200만원
42수	1손	200만원
천 수	1손	20만원
본 불	1분	3,000만원
남순동자, 해상용왕	각 1분	1000분
관음 천불	1분	20만원

연락처 : 경북 안동시 녹전면 사신리 455-5번지
청계산 덕왕사 주지 풍운 · 용각 합장
전화 054)853-3855, 854-3855
온라인 : 농 협 729-02-117074(예금주:유재하)
국민은행 622-24-0064-982
우 체 국 700435-02-005878

할아버지 · 할머니, 아들 · 딸, 손자 · 손녀
가족이 함께 기도함
전국에서 기도동참하고 있음 지방분 환영
개인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기도함
원하는 소원성취가 잘 향상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전국성지순례 영가천도 · 무병장수 상담환영
각종테이프 준비되어 있슴. 활용하셔요.
대불정능엄신주, 태아영가천도
지장경, 약사여래경, 영가천도
매주 토요일 철야 기도함
단계별 능력에 맞춰 개인별 특별지도
참회 · 정진 · 발원 · 회향
기도와 회양 보시와 불공 방법은 중요함
대불정능엄신주 독송하는 불자님 테이프
꼭 활용하십시오. 초보자에게는 중요함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지방분 환영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군부대 법당 ●경찰서 법당 ●교도소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國際佛敎 僧伽會 所屬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정대행 : 각암대종사
- 원로의장 : 청산
- 중앙종회의장 : 무 원
- 사정원장 : 지 원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허 허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하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7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 ● 법당: 20평 ● 요사: 35평 ● 부지: 760평 ● 가액: 21억
● 위치: 강원 (동해안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5억 5000
● 위치: 마산 ● 법당: 17평 ● 요사: 32평 ● 부지: 100평 ● 가액: 2억 6500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3호선 홍제역 1분내 위치함 3층건물에3층, 대로변 인접
● 법당 20평, 옥탑방 숙식가능 삼존불, 후불탱화,신중탱화 산신탱화,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700만원 월 33만원
● 시설비 850만원(집기 일체 포함)
02)720-2230
011-252-611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앞뒤 아파트 단지. 주변시장
● 평수 38평, 방 2개, 주방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1,000만원 (불상 및 집기일체 포함)
019-291-5558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산속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만원
● 위치: 장호원 ● 부지: 500평 ● 법당: 27평 ● 요사: 2동 45평 ● 가액: 3억 6천만원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 굴 안 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 2억 2천만원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과 잔듸밭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대지: 117평(개인등기필)
● 법당, 요사채, 대중공양간, 주지실 등 방 4개, 스님 화장실1, 신도 화장실 1, 심야보일러
● 가액: 1억5천8백만원(절충가능)
사정상 시세 이하 계산합니다
010-6215-8784
054)331-551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에서 30분거리
● 대지 402평, 임야 40평
● 대웅전 33평(삼존불)
●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 사용평수 : 600평 경내 조경 잘 되어 있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1-9411-5302

포교당(급)안내
서울 강남 도심지 최고의 위치 최상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중인 포교원으로서 주지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합니다
● 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시설: 법당 50평, 방 2개, 주방 1개, 화장실 2
● 삼존불, 후불괘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독성탱화, 지장탱화, 감로탱화, 시왕탱화, 신중목각탱화, 범종, 법고, 목어, 운판, 사물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3500만
011-9269-8445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 대지: 45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 ● 가액: 5억 5천
● 위치: 경기 ● 대지: 약 2000평 ● 법당: 25평(2동) ● 요사: 100평 ● 가액: 18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중산리 산세수려, 전망최고
● 평수 : 700평
● 대웅전,요사채,산신각(목조), 나한전, 용왕당, 미륵당, 스님친견실등 집기일체 완비
● 즉시법회 가능, 주차장완비
● 가액 : 4억5천(절충가능)
055)973-5054/011-863-0622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순창 아미산 아래 절, (구)중학교 터
● 대지: 6000평, 건평: 900평
● 약 200명 스님들 교육장으로 사용가능 복지관 허가중
● 산수, 공기 좋고 산세 수려. 명당터, 최적지
● 법당: 청자 천불전 모셔져 있고 스님 급한 사정으로 급 양도코져 함 포교당으로도 최적지. 계율있는 스님이 찾아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011-603-8450

포 교 원 안 내
●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최요지
● 법당, 주지실, 사무실, 공양간
● 평수: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5만원
● 시설집기 일체 포함 3,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9-293-9369

사찰(급)안내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 사찰역사 320년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대산면
● 대지: 102평
● 법당: 15평 (기와집) 창고 10평, 요사채 10평 부속건물 3개
● 가액: 7천 7백50만원
010-5502-0220

사 찰 안 내
〈 토 굴 〉
● 위치:부산시내바닷가
● 20평,30평,40평
● 1500만원~1억까지
● 아주다양함
● 바다전망 특별 빼어남
〈 사 찰 〉
● 부지: 3만3천평
● 위치: 삼랑진 장남방(양명) 산세 계곡물 철철 주변경관 특별 빼어남
● 가액: 4억
〈 포 교 선 원 〉
● 위치:구미시청근처
● 법당 및 요사 95평
● 어린이 법회
● 불교대학
● 가액: 2억 3천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2천만원에서 20억까지 다양보유
사찰전문 부산 연산부동산 직011)560-8522 051)863-6661

경 기 사 찰 과 교 환 원 함
● 여주 이포대교 부근 파성 산자락 대지 160평, 조립 24평
● 영월, 신림에서 25분 국도, 넓은 냇가 접 전 840평, 구옥을 황토 등으로 예쁘게 리모델링 위 물건을 적당한 경기지역 사찰과 교환 원함 (약 2억 5천만원) 필요한 경우 웃돈 가능
010-3730-5247

사찰 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좌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현대식건물,기도터 및 명상및교육센터 버스 및 지하철 교통편리
● 가액: 1억8천5백만원
011-624-091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
● 건물: 법당, 16나한전, 용왕당, 산신당
● 양쪽 요사채 2채
● 대지: 약 6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011-283-7595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명 당 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의신 (의신골 금혈자리)
● 전 800평
● 가액: 2억 5천만원 양택지, 수양터 최적
010-4746-548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2동 우림시장 앞
● 평수: 35평
● 부처님, 삼존불, 산신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즉시입주가능,철학관도 가능
02)433-1106
010-7440-334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시내
● 평수: 40평(법당, 방2, 공양간)
● 2층건물중 2층(옥상 단독사용)
● 상가아파트지역.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7백만원
011-258-11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태평로 1가 대구역앞
● 4층 약 25평외 옥상, 마당있음
● 가액: 보증금 없음 1년 선세 240만원(월20만원)
● 시설비: 900만원
● 냉난방(보일러 시설)완비 즉시 법회 가능 *역학보시는 분 최적지
053)426-4162
010-8200-2055

포교원 안내
● 위치: 인천 부평역 10분거리
● 평수: 4층 건물 중 3층 35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가격절충
● 즉시법회가능,시설완벽 몸만 오세요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8676-6921

10여년된포교당
● 공찰 주지 취임 관계로 양도함
●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합 5000만원
● 전체평수: 30평
010-3723-077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강 릉 쪽 대 지 교 환
가액: 약 6억원 가량
전통 사찰과
교환 원합니다
018-260-789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월10만원 시설비 없음
019-656-276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범일2동 진시장 자성대 파출소 중간
● 3층건물 3층
● 평수: 20평
● 기름보일러 임법당, 상담실
● 가액: 보증금, 시설비 포함 1000만원 월 27만원
010-9720-990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사상구
● 평수 : 45평, 4층건물 4층
● 시설 : 삼존불, 후불탱화
● 가액 : 8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2700만원
051)313-5589
010-6416-5589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대지: 77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2채, 창고
● 가액: 2억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031)938-1954
017-304-226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토당공원옆
● 건물: 4층건물 중 3층
● 실평수 64평
● 인테리어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포교당 2층
● 평수: 70평(법당,방2칸, 부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신규 종단 등록 가능함
042)531-0026~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부근
● 건물: 2층, 3층 사용
● 평수: 2층 34평, 3층 20평
● 2층: 법당, 종무소, 접견실
● 3층: 방 3
● 가액: 보증금 1천 1백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4천만원
011-888-0130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아산시 대방면 화룡리
● 대지: 310평
● 요사채50평, 요사채10평 법당 20평
● 가액: 8500만원
010-7271-4020
010-2000-5809

토 굴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 와룡산 임도에서 도보 10분거리
● 산세수려한 산중기도처
● 평수: 187평
● 사용부지 가능 500평
● 가액: 5000만원
011-9323-4478

사찰안내 (부산근교)
● 경남 웅촌 별장 360평-2억 3천
● 경남 울주 별장 170평-1억
● 경남 김해 주촌 사찰 203평-2억5천
● 부산시내 황령산밑 사찰 350평-5억2천
● 부산 사하 사찰 250평- 7억 5천
● 부산 시내 사찰 400평-12억
011-855-6699(남문)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암 자 안 내
● 위치: 전라남도 해남
● 대지: 352평
● 벽돌집 건평 32평 (임법당)
● 가액: 5,500만원
061)533-9046
011-631-295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연산동 연산 로터리 부근, 전철역 1분, 최요지
● 3층건물 3층, 35평
● 법당: 30평, 방1개, 부엌1개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700만원
051)852-970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산1동 남문시장옆
● 3층 건물 1층, 30평. 방1칸, 목욕탕
● 화장실, 앰프시설, 에어컨, 집기일체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목조각탱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25만원 시설비 900만원, 즉시법회가능
053)253-6629
055)933-662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1억2천5백만원(임대도 가능)
011-595-7878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 대지: 총 110평
● 시설: 주지실, 종무실,요사채 1, 2층 공양간(법당과 분리)
● 법당: 40평(천불전 모셔져 있음)
● 주불: 관세음보살 일불,신중, 삼성각,석불전
● 가액: 3억 7천만원
011-9853-384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단장면
● 대지: 총1,080평
● 법당, 요사채 2
● 산 좋고 물 맑은 곳 위치 전기 · 수도 공급원활
● 가액: 2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8008-0564

사찰(급)안내
● 위치: 전라남도 화순자, 남광주에서 25분
● 현 조립식 50평 중 법당1,방4
● 부엌 1, 화장실 1, 목욕탕 1, 외부화장실 1, 창고1, 연못 2, 산신각, 종각, 대웅전 터 자연석 조경 완공
● 대지: 539평 주변 소나무숲 사이 계곡 수려한 명당절터
● 가액: 7000만원
011-640-1494

암 자 터 안 내
● 위치:경상남도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 다용도 가능함
● 정남향
● 관리지역 1,030평
● 가액: 6,000만원
011-570-1317

사 찰 터 안 내
● 위치: 충북 괴산군 칠성면 보개산 각연사 밑 마을
● 대지: 500여평, 주택 30평 밭 1,500여평
● 가액: 2억 8000만원 (조절가능)
043)832-6144
010-3356-6144

토 굴 안 내
●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 평수: 20평
● 임법당, 방 2개, 욕실 2개 산신각 모시져있고 마당있음
● 가액: 전세 2,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2)936-0069

옛 절 터 안 내
● 위치: 경남 고성
● 현재 유실수 경영 주말농장, 농장 사택 앞 대형저수지있음, 대형버스진입 주차장완비
● 실제평수: 약 1300평정도
● 산세수려하고 지하수완비
● 가액: 11억. 가격절충
011-9323-4979/010-9903-808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청원군 낭성면 삼산리
● 대지: 466평 건평:44평 (1층- 방5개, 주방, 욕실 2층법당-삼존불상, 탱화 3종 등 별도절충)
● 가액: 1억 9500만원
● 사찰 및 기도원, 개인 · 단체요양원, 별장주택. 계곡 있고, 경관좋음
● 4차선 계획도로 인접, 신행정도시
● 오성의료단지, 오창과학단지에서 30분 거리
● 투자가치확실, 심야보일러, 지하암반심층수. 즉시입주가능
010-2529-3939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임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술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송현동 주공아파트 맞은편 주공시장 입구 건물 4층
● 평수: 53평 (삼존불, 산신나한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즉시법회가능 시설 A급
010-3773-4367

사 찰 안 내
스님 노후 토굴겸, 도심속 아담한 사찰
● 위치: 전주시내 중심, 대지 8*6 미터 코너 절
● 대지 112평, 건평 123평, 일층 점포 다섯개
● 2층 법당, 부처님 후불 탱 입체,칠성탱 입체, 신중탱 입체, 대작품 부처님 삼신불 좌대 포함 넉자 세치, 법단 삼단 조각
● 점포 다섯개에서 매월 임대로 150만원 나옴
● 가액 : 4억 1천 7백만원
● 준비금 : 2억 1천 7백만원 비구니 스님, 법사님, 보살님 적합 스님 해외 문제로 사정상 급 안내
010-6411-288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서부지역
● 부지: 약 600평
● 법당: 약 20평, 관음전 산신각 (각 단청되어있음)
● 요사채: 30평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산세가 수려하고 강물도 흐르고 전망이 아주뛰어남
● 가액:2억 5천만원(절충可) (급한사정으로 양도하고자함)
010-6727-8890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주 근교
● 부지: 500여평(무상임대)
● 법당: 20여평(건물만등기) 기타 : 방3개
● 특징: 물이 좋은 아담한 숲속 차진입, 약 70여년의 연혁
● 참고:납골당 또는 실버타운 최적지
● 5,000여평 불하 가능
● 가액: 9500만원
011-288-6668

암 자 안 내
● 위치: 전라남도 해남 연동리 (해남읍에서 2~3분 거리)
● 약 총 700평
● 법당 17평 한옥, 요사채 20평 황토색 요사채 (조립식 전원주택 겸), 외부화장실 별도, 내부 화장실 , 산신각 겸 용궁, 마당 잔디밭 약 200평 전후 주차장은 밖에 크게 있음. 텃밭
● 가액: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1-772-4780

‘영기’(靈氣)가 문양 연구 열쇠

강우방 원장, 광배 · 공포 · 벽화 등 문양의 상징성 새롭게 해석

불상의 광배무늬, 목조건축물의 공포, 고분벽화 등에 나타난 무늬와 문양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사진)은 최근 불교미술에 나타난 추상 · 구상적 무늬와 문양들의 표현원리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담은 논문 ‘영기문의 성립과 전개’를 발표했다.

강 원장은 논문에서 “불교미술에 나타난 무늬와 문양은 비로자나, 우주에 충만한 기(氣) 등을 상징하고 있다”며 “이러한 영기(靈氣) 문양은 다시 운기문양, 불꽃문양, 팔메트 문양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기문양의 핵심은 영기를 발산하고 또 다른 문양을 탄생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영기의 싹에 있다. 영기의 싹은 영기문양을 구성하는 최소단위로 ‘운기화생(雲氣化生)’ 또는 ‘생명의 싹’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영기의 싹이 가지를 쳐 다양한 문양으로 결합해 무한히 뻗쳐나가는 여러 가지 영기문양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백제 금동광배의 영기문양, 백제 금동대향로의 용의 꼬리에 나타난 팔메트 문양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 원장은 또 “무늬 · 문양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회화적 요소들은 당대의 특수한 상황의 산물이지만 무늬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형미술에 지속돼 온 통시적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무늬와 문양에 대한 해독과 재인식은 통일신라, 조선시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동아시아 조형미술의 도상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논문에서는 무늬의 전승과정에 대해 “인도의 광배무늬는 중국과 한국에 와서 불꽃 · 태극문양 영기문 등 추상적인 무늬로 바뀌었고 고구려 고분벽화의 영기무늬는 일본의 유매도노(夢殿)의 무늬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고 있다.



불교미술에 나타난 문양과 무늬는 ‘만유의 생명’을 상징하고 조형미술의 통시적 요소다. 평양역사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영강(永康) 7년명 금동광배(551년 作)’.

노병철 기자

마음챙김은 생활서 ‘측정’ 돼야

박성현 교수,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이론 개념 정리

불교에서는 끊임없는 마음챙김(통찰명상) 수행으로 탐진치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이러한 마음챙김은 정신치료 · 상담심리학 분야와 결합돼 스트레스 완화, 정서장애 치료, 통증치료 등을 위한 명상훈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집중명상에 비해 마음챙김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다.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은 ‘불교와 심리학적 방법론의 만남’을 주제로 11월 18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연찬회를 열었다. 연찬회에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성현 교수(사진)는 논문 ‘마음챙김 척도 개발’을 통해 마음챙김을 심리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명상이론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시도했다.

박 교수는 마음챙김의 배양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 “마음챙김 훈련의 핵심은 노출효과에 있다”며 “이는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통증감각을 관찰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통증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적 반응에 비판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과도한 정서적 반응 없이도 통증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탈민감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나타난 사고와 정서에 대해 회피하거나 탈출하려 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은 이들에 의해 유발되는 공포반응과 회피행동을 감소시켜 부정적인 정서상태를 인내하고 이러한 심리상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논문은 마음챙김과 정신건강을 매개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온 집착과 수용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매개모형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집착하는 마음’이 마음챙김 훈련시 심리상태의 고저에 가장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임을 밝혔다.

또 마음챙김→집착→심리증상의 경로에서 집착의 완전매개 모형이 부분매개 모형에 비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마음챙김과 심리증상 간의 수용은 통계적으로 비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마음챙김 척도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마음챙김은 자기-초점적 주의과정인 사적자의식이나 정서에 대한 주의 그리고 내성적 주의양식과도 변별되는 주의양식으로 나타났다”며 “자기-초점적 주의는 주의의 방향성과 관련된 개념이며 주의가 외부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온 마음챙김 관련 척도들은 △마음챙김 명상이론에 대한 조작적 정의 미흡 △마음챙김 명상과 일상생활의 불연속성 강조 △마음챙김 명상을 인지적 성숙상태로만 간주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마음챙김의 방법은 매 순간 마다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앎이 보다 본질적이며 이것이 축적된 결과로서 최종적인 삼법인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므로 인지적 성숙과 같은 개념정의는 잘못된 것이다”며 “마음챙김 척도는 위빠싸나 수행이론에 근거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마음챙김을 일상생활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병철 기자

‘백일법문에 나타난 불교학…’ 성철 스님 13주기 ‘학술대회’

근대 한국 선불교의 ‘큰 횃불’ 성철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스님)은 성철 스님 열반 13주기를 맞이해 11월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1960년대 전후 상황과 성철스님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법문과 법어, 저술에만 국한됐던 성철 스님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스님의 백일법문에 담겨있는 불교학의 성과와 스님이 인용한 과학적 근거의 의미는 물론 스님의 결사 정신이 어떻게 총림으로 구체화되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 이를 통해 성철 스님이 불교 내 · 외부에 끼친 영향을 파악해 봄으로써 21세기에 부합하는 불교의 실천 덕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는 종합토론의 장도 마련돼 있어 성철 스님의 사상에 대한 ‘완전해부’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회에서는 부산대 한민족문화연구소 조명제 연구원의 ‘백일법문과 근대 불교학’ 고려대 디스플레이 반도체물리학과 양형진 교수의 ‘성철스님 법문에서의 중도와 과학’ 등 3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9>

묵언과 눈빛

우리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 대학 강의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한 후, 학생들이나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 일쑤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양권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양의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하찮은 질문일지라도 사뭇 진지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아마도 예의범절을 중요시한 유교문화권의 테두리 안에 있는 동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서양의 전통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문화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 대학 강의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를 한 후, 학생들이나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다들 꿀 먹은 벙어리가 되기 일쑤다. 이 같은 상황은 특히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양권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양의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하찮은 질문일지라도 사뭇 진지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질문공세를 퍼붓는다. 아마도 예의범절을 중요시한 유교문화권의 테두리 안에 있는 동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 서양의 전통 때문인지도 모른다.

선 수행에서는 묵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자신에 침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논리를 뛰어 넘는 선문답의 전통은

침묵 중시하는 禪전통 정보통신시대에 ‘불리’

자비의 눈빛 · 말로 균형잡힌 ‘불자상’ 세워야

서양의 정신적인 자주이자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 등을 살펴보면 진리에 한 발짝 더 접근하고자 말과 논리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4대 성인인 소크라테스 또한 대화와 말을 통해 진리를 밝히고 오류를 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그의 저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에서도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 법이 대부분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이고 이것이 8만 법문을 이루었음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술을 통한 부처님의 전법 전달의 전통이 왜 한국과 중국에 와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서술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서양언어에 비해서 함축적인 서술구조를 가지는 언어구조 때문인지, 노장자로 이어지는 언어 경시 전통 때문인지 알 수 없다. 숭산 스님의 책을 보면 ‘힌두학자와의 대화’가 나온다. 숭산 스님은 “이것이 무엇인가? 답을 해도 30방, 하지 않아도 30방을 맞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힌두 학자는 “모든 진리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방식위에서 토론되고 전해져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선 수행에서는 묵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자신에 침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논리를 뛰어 넘는 선문답의 전통은 철저하리 만큼 말에 속지 않도록 다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영상과 음성으로 대중에게 다가서야 하는 정보통신시대의 포교전략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말로는 속일 수는 있어도 눈빛으로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눈빛으로 느끼는 사랑이 더 감명을 준다고 한다. 같은 뇌의 신경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인데도 왜 눈빛과 말이 차이가 나는 걸까. 아마도 오랜 진화를 통해 눈과 연결된 뇌신경구조가 더욱 깊은 잠재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의 전통에 의해서 수련된 자비의 눈빛과 부처님 법을 전파하는 자비의 말이 같이 어우러진 균형 된 불자의 태도가 필요한 시대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2차분 완매로 인하여 3차분 한정제작. 인하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일 주 문



동국대 법인사무처장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법인사무처장에 정안 스님이 11월 14일자로 임명됐다. 정안 스님은 1979년 사미계, 85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전사 순직 경찰관 위령 천도재

부천남부경찰서 경승실장 성인 스님은 11월 17일 경승실 법당에서 제16회 전사 순직 경찰관 추모 위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한국도덕운동협회 상임고문에

대한불교사상연구회 연정열 상임대표는 11월 1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정책자문위원장과 행정자치부 산하 법인인 한국도덕운동협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2006년 '국가과학자'에 선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희섭 신경과학센터장은 11월 15일 유전자와 두뇌연구를 통해 질병 치료의 길을 연 공로로 2006년도 국가과학자로 선정됐다.



'여성노동관련법 실무' 출판기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명 지도위원은 11월 22일 오후 5시 국민일보 1층 메트로홀에서 '여성노동관련법 실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법타 스님 김재영씨 정성운씨 윤창화씨 김홍섭씨 강형진씨

개인부문 대상 **법타 스님 · 김재영씨** 단체부문 대상 **불교정보센터**

특별상 **윤창화 · 김홍섭 · 강형진씨 선정**

제4회 대원상 발표…12월 1일 시상식

제4회 대원상 개인부문 대상에 법타 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대표)과 김재영(청보리회 법사)씨가, 단체부문 대상에 불교정보센터(대표 정성운)가 선정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1월 14일 회의실에서 제4회 대원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또 특별상에는 윤창화 민족사 대표와 김홍섭 보문고 교법사,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선정됐다. 대원상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500만원, 단체부문은 상패와 상금 2000만원,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승가부문 대상을 받은 법타 스님은 1997년 북한 사리원에 국수공장을 건립하는 등 20여 년간 북한동포돕기, 북한불교문화재 복원, 남북한 종교교류, 청소년통일운동, 통일법당 개설 운영 등 북한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앞장서 활동한 공로가 인정됐다.

재가부문 대상의 김재영 법사는 매년 300여 명씩 40여 년간 총 1만여 명의 청소년 불자를 교화 배출했다. 또 서울의 각 고등학교, 주요 사찰 등에 불교학생회, '청보리회'를 창립해 지도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인터넷사이버 전법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의 불교정보센터는 인터넷 등 미디어 환경이 취약한 불교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발맞춰 활동한 점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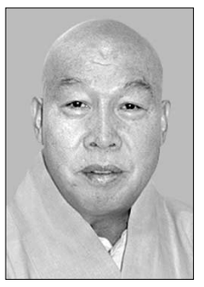
개인부문 특별상을 받은 윤창화 대표는 불교전문 학술서 110종을 발간해 불교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공로, 대전보문고 김홍섭 교법사는 20여 년간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포교와 지도자 양성에 매진한 점이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 특별상 단체상의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불교 음악의 다양한 접근과 창작활동을 통해 불교문화예술의 격을 한층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2월 1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美 워싱턴에 '평화대학교' 설립 추진

보림사 회주 경암 스님 '모금활동'



"워싱턴은 미합중국의 심장입니다. 이곳에 정규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한국불교가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교육도량을 조성하는 대작불사입니다."

워싱턴 보림사 회주 경암 스님(사진)은 11월 15일, 웨스트 버지니아 주 조지 워싱턴 파크 인근 26만평에 4년제 정규 종합대학 '워싱턴 평화대학교(Washington Peace University)'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연방 교육국에 설립 허가 신청을 마쳤으며, 내년 5월 최종 인가를 받을 예정. 부지는 2003년에 8억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부지사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전 세계의 불자들은 물론 타종교인까지도 함께 공부하는 도량이 될 것입니다. 종교, 인문, 사회, 언론 등 20여 학과를 개설해 명실공히 종합대학교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은 이어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을 갖춘 '아란야 국제불교총림'을 창건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불교총림은 평화대학교가 들어서는 부지에 건립되며, 이미 2004년에 미연방정부로부터 12만평의 종교부지 사용허가를 받은 상태다.

경암 스님은 이 같은 불사를 추진하기 위해 3번에 걸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1차 계획에 들어갈 600억원 조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18일에는 '아란야 국제불교총림 및 워싱턴 평화대학교 건립추진위 한국분원'을 개원했다. (02)913-6311 **김철우 기자**

지안 스님, 7명에 전등강맥 전수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11월 10일 제자 7명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설립이래 처음 열린 전강법회에서 강맥을 전수받은 현봉, 신공, 정묵, 덕선, 자응, 양관, 보문 스님 등에게 전법게를 전한 지안 스님은 "교학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사, 나눔의집 할머니 초청 가을나들이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1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 할머니와 자원봉사자들을 초청해 '가을 단풍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함께 금산사를 참배하고 전주비빔밥 전문점에서 점심공양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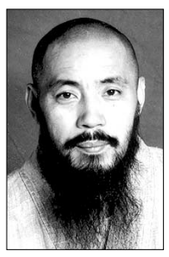
법화종 대구종무원장 혜각 스님 취임식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 제12대 종무원장에 영천 용화사 주지 혜각 스님이 취임했다. 법화종 총무원 포교부장을 역임한 혜각 스님은 총무국장 도광, 재무국장 지성, 교무국장 일우, 사서 지웅, 감찰과장 운봉 스님을 집행부로 구성해 대구경북지역 70여개 사찰을 관장하는 종무운영에 들어갔다.

아프리카 포교 위한 국토대장정

동봉 스님, 101일간 도보정진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 곳에 한국불교가 진출해야 하는 까닭을 한반도 곳곳을 걸으면서 알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 스님(사진)이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대장정 고행정진'을 떠난다. 출발은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회향은 내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한다.

"아프리카는 이 지구상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입니다. 53개 나라에 9억2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토록 거대한 대륙에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가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한 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불교계의 아프리카 진출 당위성을 이같이 강조한 동봉 스님. 때문에 스님은 대장정을 오직 도보로만 진행하고, 매일 20km씩 걷는 동안에도 석가모니불을 정근할 작정이다. 또 동참자들과 아침 · 저녁으로 <금강경>과 <아미타경>, <초발심자경문>을 독송하며, 숙박도 세간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대장정은 다양한 동참이 가능하다. 1일에서 3일, 5일, 7일, 21일, 전체 기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경비는 각자 부담이다. 010-4800-0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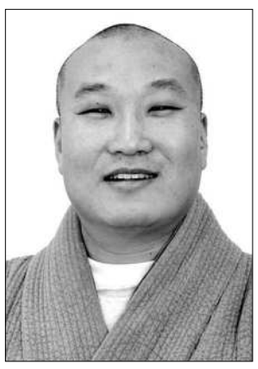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음악치료 외연 넓혀 청소년 포교 배가"

불교명상음악치료협회 창립 준비 보경 스님

"불교와 록음악을 접목시킨 새로운 불교명상음악테라피는 음악치료의 외연확장은 물론 청소년 포교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보경 스님(사진)은 내년 1월 (사)불교명상음악치료협회 창립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국내 불교명상음악테라피 1호'라 할 수 있는 보경 스님은 개신교를 비롯한 타종교에서는 음악테라피를 활용한 선교는 물론 사회봉사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불교계가 아직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한국음악치료학회와 대한음악치료학회에서 음악테라피 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보경 스님은 동국대 사회교육원에 개설된 '명상음악치료' 강의도 내년 1학기부터 시작한다.

"음악으로 병을 치유한다는 음악테라피(Musictherapy)는 90년대 중반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불교계에서는 아직 시도된바 없는 미개척 분야죠. 때문에 음악치료에 관심이 있는 스님들과 불자 음악인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번에 시도될 '불교+록+차 크라명상'을 가미한 불교명상음악테라피는 음악과 환자와의 관계를 적극 고려한 치료음악이다.

특히 정서가 불안한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치료음악은 안정된 느낌이 강한 클래식 음악처럼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진다는 특징이 있다. 증상별 음악치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다른 음악테라피와 구별된다.

보경 스님은 내년에 창립될 (사)불교명상음악치료협회에서 불교명상음악치유 활동을 함께 펼쳐갈 불자 음악인을 찾고 있다. 011-887-1875

노병철 기자

大道眞人 육경신 루진통으로 혜명을 득도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비법을 얻어 황제가 되는법 | 운명을 바꾸어 살 수 있는 성명과 혜명으로 자신에 감춰진 업장을 해원상생 영산법회 봉행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생노병사의 비밀인 근본 허공청정, 진공묘유인 운명과 수명과 생명은 정신세계에 있으며 영과 혼의 비밀법을 11월양력 26일 자시와 11월 27일 진법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心자와 귀자 속에 담겨진 근본 비밀 대 용맹정진 수행법에 입문하시어 운명을 바꾸어 스승으로 살 수 있는 법

모든생명은 태식 비법에 천하의 건강 비법이 다 들어있다.

● 달마도법 태식법이란
생노병사를 초월하여 견성도통하는 법이며 모든병에 빙이 되어 치료해도 안되는 잡신마장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육경신수행법인것이다.

천장지비에 감춰진 비법을 경신날 도통과 성불은 자신의 업장이기에 근본을 벗기어 천하대운을 받고 견성과 도통은 즉 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하며, 그 해결법은 자신의 업장을 경신일 하늘과 땅이 열리는 오시에 사람몸 받은 진법인 도리를 혜명과 성명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자신의 업장으로 모든병인 비만, 혈압, 당뇨, 관절, 정신질환, 각종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남몰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쾌차할 수 있는 심기태식법인 수련으로 건강과 생명을 구하고 남녀혼기를 놓쳐 고생하시는 분들과 조상천도 구병시식 대운맞이 영산대제로 일체고액을 소멸하는 영산범패 대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고 만사형통 하소서.

견성도통하는데 가장빠른 비법 혈단법과 예단경만인것이다.
견성도통하려면 조상과 전생부터 내려오는 자신의 업장과 모태유산 살생한 일체영가를 제도해탈만이 도를 통하는 것이고 천장지비로 감춰진 혈단법, 예단경만이 일체영가가 알아듣고 제도되어 이생애 모든 인연을 끊고 원없는 저세상으로 천도되는 경이고 결혼에도 예단을 주고 받아야 부부가 되는 것이다.
병술년 루진통 범부나 성인이 혜명을 득도하는 비법을 화엄경과 능엄경에 깊은 뜻인 루진통 도통하는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을 바르게 수행하는 법과 서방극락세에 다함이 없는 우나타 즉 혜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는법이며 견성도통은 못되드라도 영통능력과 초능력을 득도하여 말문도통,글문도통,의통능력과 심령으로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못하는 범부나 성인과 중생이나 삼라만상 생명이 들어있는 모든수행자들에게 윤달든해 루진통 특별육경신수행으로 부처나 성현이나 신선이나 황제가 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살아가는 천하제일의 최상승법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루진통을 하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아니되며 과거 칠불시대나 선지식을 비롯 오직 동토조사 달마조사께서 이법으로 오늘을 제도하고 있는 석존에서 달마조사, 육조조사로 이여진 사상 유래없는 견성도통 심령도통 자신도통하여 전생, 금생, 내생으로 빙의된 중생을 제도하는 특별대법회

경신도통이란 역대 선각자, 도인, 신선들이 수행한 법이며 초능력으로 대운을 받는 것이고 모든 수행법의 근본은 태식법이며 도깨비나 귀신들을 부릴 수 있는 비법인 것이다. 병술년은 루진통 해이므로 경신이 들어 이번 기도에 동참하시어 영통능력으로 건강하시고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저능하로 빙의 되어 각종 질병과 자신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신수행으로 운명을 바꾸는 천하의 대도통 진광법에 귀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큰도통하소서! 마음(心)으로는 혜명을 볼 수 없으므로 마음을 다스려봐야 견성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혜명을 보아야 견성도통하는 것이고, 좌선이나 참선으로는 견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 입제 : 양력 2006년 11월 26일(음, 10월 6일 일)(해시)
● 해제 : 양력 2006년 11월 27일(음, 10월 7일 월)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평생연구재료비 10만원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하차. 2번출구 모자원고개 쪽 300m 관음정사 내

웅조미륵달마 진인경신 도통회 세계우리불교 달마중 중 본산 태일 합장

차용품전문회사 홍다원

홍다원이 위치한 북촌지역(가회동, 삼청동 일대)은 조선시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의 사이에 위치해 서울 600여년의 역사와 함께 한 전통 거주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북악산과 인왕산이 있어 예로부터 길지(吉地)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홍다원은 중국 전통의 보이차와 다구용품을 전시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보이차와 한옥의 멋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따스한 공간입니다. 중국 본토에서 수집한 50여가지의 골동품도 전시하고 있어, 차와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이차
홍다원은 10년 전부터 주재원이 상주, 곤명의 운남성 차엽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호
홍다원의 자사호는 이싱(宜興) 정산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의뢰한 작품을 취급하며, 고객이 원하는 작가의 작품 또한 주문생산하고 있습니다.


■ 전시된 보이차 · 목공예 작품과 함께 차를 시음하실 수 있는 공간


■ 퇴수기와 각종 차용품, 보이차를 진열한 공간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 www.hongdawon.com
TEL : 02)744-3311/ FAX : 02)744-3700



불자 세상보기

하 재 봉
문화 평론가

사랑도 인권도 없는 결혼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한 가지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욕구들이 복합되어 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종족보존의 본능이다. 자신의 핏줄을 후대에 계속 남기고 싶은 무서운 동물적 본능은 인간을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외에도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성적 욕구의 해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

그러나 결혼은 남녀의 성비율이 맞는다고 해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줄 수 있고 결혼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다. 그들도 각자 서로가 결혼에 합의할 수 있기 까지는 많은 변수가 내포되어 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영혼이 결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로가 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상대방을 충족시켜줘야 한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농촌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80년대 이후, 농촌 젊은 남자들의 결혼이 사회 문제화 되기 시작했다.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침투하면서 농민층이 붕괴되었고 이농현상이 촉진되었으며 결국 농촌을 떠난 사람들은 도시 변두리의 빈민으로 유입되면서 거대 도시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농촌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커졌고, 정보화 사회의 문명화 된 삶은 도시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린시절부터 도시문화에 익숙해진 젊은 여성들은 농촌 젊은 이들을 자신들의 결혼 상대에서 배제하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자란 여성들까지 오히려 결혼을 통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 농촌 거주 남자들의 미결혼 사태는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80년대 이후 전체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90년대에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천년대 들어서면서 결혼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농촌 남자들이 누적되면서 어떤 극적인 돌파구가 필요해졌다. 90년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문제가 유연성을 띄기 시작하자, 같은 동포인 중국 조선족 출신들을 아내로 맞으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이때만 해도 농촌 젊은이들의 신부감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 조선족이었다. 문화적 갈등은 있지만 민족적 언어적 갈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결혼을 통해 신분상승을 꾀하고 물질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의 저개발국가들, 영어권 사용국가인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들이 새로운 신부감으로 등장했다.

한국 농촌 남자들과 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은, 한류 드라마를 통해 낯익어진 한국에 대한 동경감이 한국 농촌에 대한 현실을 잊게 만들어서, 막상 결혼해서 농촌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커다란 괴리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합법적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취업을 통해 본국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신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적인 사기라는 음모론에는, 그 한쪽 당사자인 한국 남자들의 겸함이 숨어 있다. 신부를 자신과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보살폈다면 이런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돈에 팔려온 신부라는 선입관으로 자신의 아내를 폭행과 욕설로 대하는 남편이 존재하는 한, 올바른 결혼이 정착될 수는 없다. 신부가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돈에 '팔려왔다면', 신랑 역시 여러 가지 인간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돈으로 신부를 '사왔다는' 원죄가 있는 것이다.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본능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신부를 맞이했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그리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는 신부들이나, 그들을 통해 자손을 낳고 자신의 인간적 욕구를 해소하려는 신랑들이나, 서로의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11월 13일 조계종 제 14대 중앙종회가 출범했다. 첫 정기종회에서 인적 구성과 조직을 구비하는 절차를 수행했고, 분과별 감사활동을 개시하는 등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

개원 첫날부터 10여개 안건 처리 과정에서 8시간에 걸쳐 진행된 4번의 투표와 토론이 격렬해져 각 계파적 입장과 선거 과정의 앙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표출되고 있어 향후 종회 활동의 걸림돌이 될 소지가 보이기는 했다.

그러나 "본분철추(本分鐵鎚)로 자기명근(自己明根)을 점검하고 파사현정을 가려서 불조의 강령을 실천"해달라는 종정스님의 개원법어를 추상같이 여겨야 할 것이다. 새로 구성된 14대 중앙종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원융화합의 자세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회활동을 전개해달라는 것이 사부대중의 바람이다. 이전의 종회가 결코 화합적인 모습으로 일관되지 못했음을 반성하는 자세가 우선되기를 주문해본다.

조계종 중앙종회 화두 '화합'

앞으로 많은 입법활동과 각종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를 열게 된다. 이미 총무원으로부터 예산안과 종회의원 선거법 개정안 등 기타 종헌종법 개정안들이 상정돼 있다. 입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문제성을 띠는 부분도 필경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종회에서 다루는 사안이나 종책을 세우는 발상과 실천의 요령에 대해 종회의원 나름대로 계파나 문중의 입지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불법의 근본에 바탕한 청정한 법규를 따르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종헌종법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안목으로 합의체로서의 의회정신을 살려야 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철두철미하게 시비를 가릴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두루 아울러 조화해내는 일도 있을 것이지만, 미봉적 타협이나 불순한 동기의 안배로 무마하고 처리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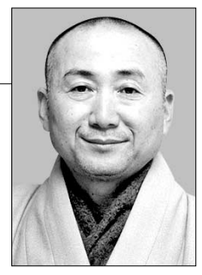
총무원에 대한 견제와 협조라는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일이, 친여적이냐 아니냐의 대립적 사고에서 출발하지 말았으면 한다. 종회를 권력 구조와 각 계파간의 대립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의원스님들 개개인 면모를 본다면 충분히 대중의 신망 속에 훌륭한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다.

■최순열(동국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특별기고

달마도를 '상품화 ' 하지 말라

범주(속리산 달마선원장)



최근 MBC 'PD수첩' 이 '달마가 홈쇼핑으로 간 까닭은?' 편을 통해 수맥 차단 효과를 강조하며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달마도가 수맥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송위원회 역시 최근 비과학적 내용의 달마도 홈쇼핑 광고를 방송하는 홈TV방송의 채널 홈드라마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달마도의 상품화가 시작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때 일부 방송에서 수맥차단 효과를 공공연하게 떠들어 달마도의 판매 호황을 이루기도 했지만 불교에서 수행의 일환인 달마도를 신묘한 효능을 가진 부적취급하며 상품으로 다루기에 달마도의 본질을 외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랫동안 달마도 수행을 해온 범주 스님(속리산 달마선원장)이 달마도의 상품화를 우려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선묵화의 좋은 소재… 돈 목적으로 그린다면 '공해'

달마도는 부적(符籍)이 아니요, 달마대사는 미신적(迷信的)인 도사가 아니다. 요즘 달마도가 인기이다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달마도를 대량으로 그려 가히 달마도의 풍년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달마도 때문에 불교가 많이 포교 되겠다' 고 잘못 생각하는 우를 범한다.

우주 자연은 그대로가 불교이다. 불교를 오도시키고 달마대사를 미신도사로 모독하는 일은 불교를 망되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달마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달마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법통을 잇는 제28대 조사이며, 불법을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하셨고 정법핵심인 선불교의 원조가 되는 대도인이다.

달마대사 말씀에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이란 말이 있다. 이는 '사람의 본심을 바로 깨닫고 본성을 발견하여 본성과 하나가 되면 곧 부처에 이른다' 는 말이다.

즉, 인간이 인간 본래의 성품과 하나가 됐을 때 육도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불생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영원히 고통을 벗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 곧 최상의 희망인 성불의 단계인 것이다. 인간은 본래 불생불멸의 존재로서 누구나 불성을 가졌다는 말이다.

이 몸을 갖고 살아오면 이 몸이 나라는 착각과 집착에 의해서 아상(我相)이 생기고 그 아상(我相)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오면서 업(業)을 쌓아오게 된다.

업이란 곧 마음의 때인 것이다. 마음의 때가 많이 쌓인 사람은 업장이 두터운 사람, 곧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업장과 마음의 어둠과 삶의 고통은 비례하는 것이다. 삶의 고통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진 만큼 그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밝아진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어두워진 마음을 닦아서 밝은 마음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이 밝아진 만큼 그 사람의 지혜와 자비심이 커가는 것이다. 커진 만큼의 삶이 행복해진다는 말이다. 진정 복을 받는 길은 마음을 닦은 만큼, 마음이 밝아진 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복은 우주에 가득 차있다. 마음이 열린 만큼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업장은 닦지 않고 망념으로 마음속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욕심을 이루어 달라고 미신적으로 빈다고 복이 오겠는가. 마음을 닦은 만큼 업장이 녹아지고 그 만큼 밝은 마음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마음을 닦아서 완전히 어두운 마음이 사라질 때, 영원한 생명인 불성과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성불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달마 스님이 말씀하신 불교정법의 핵심 요지다.

달마도는 선묵화의 한 소재이다. 선묵화란 수행을 오래한 스님들이 밝은 기운으로 그려서 달마도를 통해 밝은 기운을 나눠주는 방편이다. 수행의 밝은 기운(불성의 기운)은 사람들의 어두운 기운을 없애주므로 어두운 기운이 사라진 만큼 어두운 일들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기에 수행하지 않은 어두운 마음과 기운만으로는 아무리 잘 그리는 손재주가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오랜 수행을 통한 밝은 기운으로 그린 달마도는 사람의 삶을 밝게 변화시켜주지만, 반면 사기, 신기, 탁기로 그린 달마도는 사람의 마음에 어둠을 더해주기 때문에 어두운 일을 불러오는 결과가 된다.

탁한 기운으로 그린 달마를 돈을 목적으로 판다면 그것은 공해물을 나눠주는 것이다. 달마도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통해서 마음 닦는 수행의 자세를 꾸준히 정진한다보면 무아의 상태에서 용필을 하게 되고 바로 그때 본성의 기운이 전이가 된다.

달마도는 그리는 사람에겐 수행의 방법이어야 한다. 밝은 기운으로 그린 달마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 어둔 삶에서 밝은 삶으로 바꿔 주는 하화중생의 포교방편이 되는 것이다.

달마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오랜 수행을 통한 밝은 기운으로 마음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오랜 필력의 정진으로 밝은 기운과 필력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 있다. 그래야만 진정한 달마도가 완성되는 것이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달마도의 바른 이해와 정립은 곧 불교를 바로 세우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밝은 기운과 필력의 조화로 그려진 달마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정화시켜 불교를 바르게 포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眞我(참나) 찾는 最短의 지름길!

⊙ 業欌(업장)을 해결하고 갑시다.
⊙ 原罪(원죄)해결 방법을 원하십니까.
⊙ "丹"(法輪)을 이루고 싶지 않으세요.
⊙ 遺傳(유전)으로 인한 병고에 시달리는 분.
⊙ 心, 마음의 병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
⊙ 靈氣(영기) 神氣(신기)를 뽑아냅시다.

수행자 여러분! 중국, 미얀마, 히말라야, 티벳 등 각지로 스승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렇다고 진아를 만날 수 있을 까요?
내 안에 깊숙이 존재하는 진아! 그 진아는 뜨거운 양기(眞氣) 를 키워 수 억겁(億劫)을 살아온, 나로 알고 살아온 바로 그 나를, 가아(假我)를, 쳐 부셔 내야만이, 비로소 진아(眞我)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 하는것을요... 바로 그 "法"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핵심(核心)에 직접 치고 들어가지 못해 수년씩 수행정진(修行精進)을 했다 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혹은 빙의(憑依)되거나 영통(靈通)에 그쳐 도통군자(道通君子)인 듯이 스스로에게 속아 몸과 정신에 악영향 (惡影響)을 끼치게 되어 건강을 잃는 불상사를 낳고, 후세(後世)에도 씻지 못할, 후회(後悔)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늪에 빠뜨릴 수 밖에 없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遺傳 유전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이 "法"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본인의 수련으로 직접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공개된 이 최첨단 수련법으로 나를, 참나(眞我)를 찾으십시오. 원하는 이는 누구나 이 법(法)을 전수 받을 수 있으며, 수련과 더불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법에 녹아들어 法體(법체)가 되어 감을 스스로 확실하게 체험 할 수 있습니다.

본 원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수행의 진수(眞髓)를 얻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 새롭게 태어난 "大 自由人" 이 되도록 올바른 길을 인도해 드립니다.

★ 바른 수행인은 절대 藥이 필요없음. 에너지(양기)가 충만해져 모든 병의 근원을 해결할 수 밖에 없기에...
특히 眞理探求에 앞장 서시기를 원하는 우수한 指導者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환영(歡迎)합니다.

서울시 정릉골 普德仙院 院長 올림 02)6081-8373 / 016-327-3772

회교국에 佛音 첫 전파 탄다

대만자제기금회, 인도네시아서 시험방송
따아이TV 분원개설 허가… 내년 2월 개국

'무슬림 나라에 부처님의 말씀이 첫 전파를 탄다.'

독일 언론 아젠투르(Agentur)는 대만 따아이(大愛)TV의 커 춘안푸 대변인 말을 인용, "회교국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텔레비전 설립에 진출했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따아이TV의 현지 분원 개설에 대한 허가를 얻었다"고 11월 10일자로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만불교자제자선사업기금회(臺灣佛教慈濟慈善事業基金會, 이하 자제기금회)가 운영하는 따아이(大愛)TV는 올 10월에 인도네시아 현지 언어로 매일 1시간씩 시험방송을 하기 시작했으며, 내년 2월에 정식으로 TV 방송국을 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제기금회의 인도네시아 현지 TV 개국은 회교국가에서 처음으로 건립되는 불교방송국으로, 대만불교계는 향후 이슬람교 국가권의 불교포교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제기금회는 1998년 1월 타이페이, 화니옌 등 5개 지역에 위성방송,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갖춘 따아이 T.V를 개국하는 등 문화포교에 앞장서오고 있다.

따아이TV는 첫 단계로, 4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2천만 명이 사는 자카르타와 메단 지역에 하루 종일 반복해 방송할 계획이다. 미전파 지역인 수라부야와 반둥 지역까지도 방송 송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따아이TV는 인도네시아가 회교국인 점을 감안해 정치 관련 뉴스보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에 '자비희사(慈悲喜捨)'와 '제빈구난(濟貧救難)'으로 집약되는 자제정신으로, 가난하고 사회적 ·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도네시아 인들을 돕고 용기를 주는 내용을 취재 · 보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편성은 정치 · 경제 사건을 지양하고 철저히 '사람 사는 모습'을 취재하려는 따아이TV 지침에 따른 것. 실제로 따아이TV가 자원봉사자의 미담사례를 밀착 취재해 제작한 '대애극장(大愛劇場)' 프로그램은 대만 내 시청율 순위 10위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많다.

한편 자제기금회는 '대만의 성모 테리사 수녀'로 불리는 쩡옌(證嚴) 스님이 1966년 설립한 불교단체로, 전 세계 28개국 수만명이 자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단체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현금과 구휼물품을 지원해오고 있다. 회교국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자제기금회가 지난해 반다 아체(Banda Aceh)에 3700 가구를 위한 '따아이 마을' 건립과 5개 학교를 설립해준 데에서 비롯된다. 인도네시아 반다 아체지역은 지난 2004년 인도양 12개국 23만여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간 쓰나미 참사의 최대 피해지역이다.



자제자선사업기금회가 설립 · 운영하는 타이페이시에 위치한 '따아이 TV'의 본사 전경. 사진제공=따아이(大愛) 방송국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세계침술봉사학회, 활동무대 전 세계로
(WASA)

내년 LA에 한의대 개설
남미 · 중앙亞 등 진출 계획
UN공식 NGO 등록 추진

'침술봉사의 활동 무대를 전 세계로 넓힌다.'

세계침술봉사협회(WASA-World Acupuncture Service Association, 이하 와사)는 2007년 4월 미국 LA 밸리 지역에 4년제 정규 한의대를 개학하는 것을 기점으로, 활동영역을 인도 중심에서 미국으로 확장한다. 이에 따라 와사 본부도 미국으로 옮기는 한편, 현재 인도 8개주에서 운영 중인 침술대학 4곳, 침술센터 20곳도 재정비한다.

와사(WASA)는 1998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등록한 NGO. 그 모체는 30년간 침술봉사활동을 벌여온 불가침 구학회가 1993년 인도 아난다나가르 의과대학에 침술과정을 개설하면서 국제봉사단체로, 현재 국내외에서 5백여 명이 활동 중이다.



2005년 티베트 가덴장세 승가대학에서 와사가 펼친 침술봉사활동. 와사는 30년간 인도 · 네팔 등에서 침술로 불교의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오고 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이홍재 회장. 사진제공=와사

와사가 이번에 문을 열 '아메리칸 배달 유니버시티'는 한의학, 경영학, 영문학 등 3개 학과로 구성된다. 학생모집은 학기당 10명씩 총 40명을 선발하며, 전원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와사가 그간 진행해온 '침술봉사 인재양성 사업'에 일환으로, 졸업생은 의무적으로 인도, 네팔 등지에서 침술교수인력이 돼서 현지교육과 봉사를 맡게 된다.

이 같은 와사의 한의대 설립은 '활동마당 넓히기 프로젝트'에 따른 것으로, 향후 와사는 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봉사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침술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홍재 와사 회장은 "한의대 건립에는 기존 인도 · 네팔 중심의 와사 활동 영역 축을 미국으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남아메리카, 아즈텍 문화권에 지부를 개설은 물론 와사를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사는 이와 함께 기존 사업인 풀뿌리 운동 가운데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의 유대관계 및 자매결연 등의 사업도 그대로 진행한다.

김철우 기자

'풀뿌리운동' 후원 방법

1구좌는 1개월에 3만원. 이 1구좌로 티베트 스님 한 명의 한 달간 숙식 및 학비가 해결된다. 1개월 또는 1년(10개월 기준, 30만원) 단위로 보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별도의 개인보시도 가능하다. (010)3176-0772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태국 남부 스님들 탁발 중단

분리주의자들 잇따른 테러로 불가피한 상황
문화로 자리잡은 장엄한 행렬 사라질까 우려

태국이나 스리랑카와 같은 상좌부 불교국가에서는 매일 아침 스님들이 절에서 나와 줄을 지어 탁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다. 세월이 흘러 환경이 변했어도 "승가는 부처님 법을 신자들에게 전하고, 재가 신자들은 스님들이 원만한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공양한다"는 '승가-재가'간의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고 있다.

노란 승복을 입고 입을 꾹 다문 채 탁발에 나서는 스님들의 행렬과 신도들이 그분들에게 정성스레 공양을 올리는 광경을 대하면, 설사 신심 깊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세상이 변해서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상좌부 불교권에서 '탁발'은 살아있는 문화이고, 이제는 버릴 수 없는 전통이 되었다.

그런데 11월 12일 태국 영문 일간지 <방콕 포스트>가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태국 남부에서 계속되는 테러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는' 이 문화 전통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반란군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나라티왓(Narathiwat) 지역의 스님들이 13일부터 무기한으로 아침 탁발을 중단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 최남단 지역의 지도자 스님들의 회합에서 결정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스님들과 불교 신자들에 대한 공격이 점점 가열되고 있으므로, 이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침 탁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 불교계의 판단인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승가 대표와 경찰 및 군 당국간의 회합이 예정되어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군의 공격을 피해 사찰로 찾아와 피난처를 구하고 있고,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병력을 재배치하고 있지만 반란군의 표적이 되는 마을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11일에도 반란군이 폭격을 가해 민간인 4명이 숨지고 국경 경비 경찰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왕세자까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룰 청문회를 열도록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농민과 학교 경비원들을 총기로 난사하고 지역 학교 교사의 사택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벌어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히려 전근대 시대에는 이 지역 '불교도와 무슬림'들이 함께 어울려 잘 살아왔다. 그런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서로 간의 '소통'이 훨씬 더 빨라진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더 막혀가는 것이 아닐까?

이 지역 반란군이 주로 이슬람교도의 분리를 요구하는 무슬림들이고 이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주로 불교도들이라고 해서 "무슬림 타도!"를 외치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테러리스트들의 표적이 되어 자칫하면 '보복의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아침 탁발을 중단하기로 한 승단 지도자들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탁발 중단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 또한 승가에 주어진 임무일 것이다.

어쨌든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아침 탁발에 나서는 스님들의 장엄한 행렬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어 태국 승가에서 아예 탁발이 사라지고 신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 자유기고가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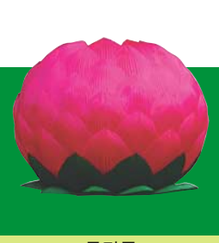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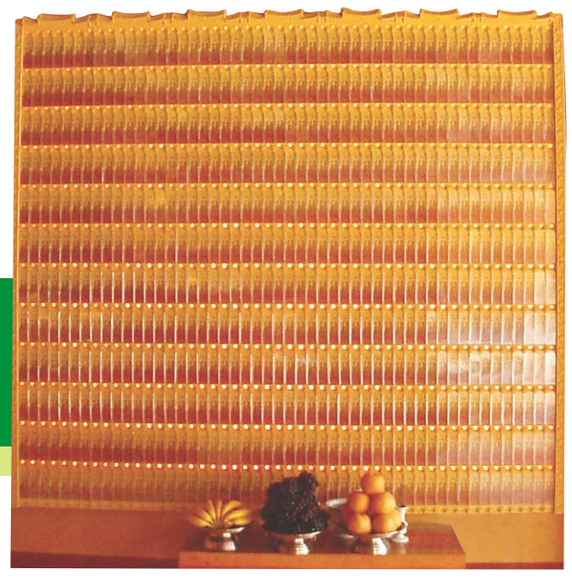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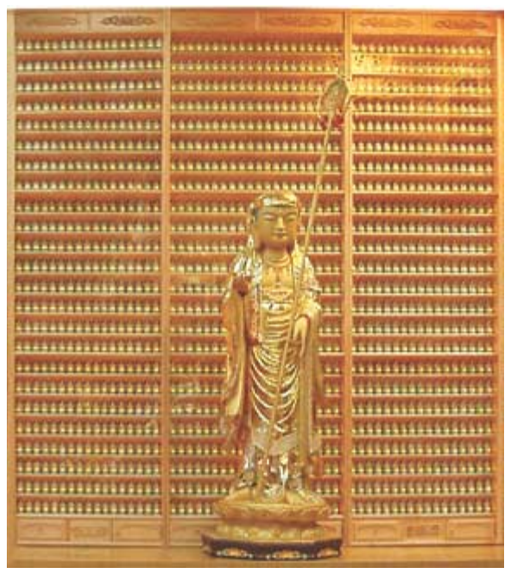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현대불교 buddhanews.com
서기 2006년 11월 22일 수요일 (주간) 제 604 호

향기로운 도반의

‘깍쇠 중대장’ 김유영 홍제2동 동대장

사랑의 바리캉으로 근심·걱정 ‘싹둑’

“김유영 동대장님요? ‘맥가이버’보다 더 전자제품을 잘 고치죠. 우리 동네 전자제품 고장 나면 김 동대장님이 다 고쳐주는걸요.”

“철마다 아파트 입구에 있는 조경수를 이렇게 잘 관리 해주시니 아파트 경비를 맡고 있는 제가 할 일이 없을 지경입니다”

“동대장님요? 홍제동대에서 근무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는 ‘깍쇠 중대장님’으로 통하죠. 친아버지 이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시니 군생활도 신바람 납니다.”

20년 간의 현역 군생활을 마치고 2004년 7월부터 홍제2동 예비군 동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김유영 동대장(예비역 소령, 46세). ‘아빠 동대장님’ ‘깍쇠(이발사) 중대장님’ ‘맥가이버 동대장’ 등 다양한 애칭으로 홍제2동 상근예비역 장병들에게 이발 봉사함은 물론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조경관리와 환경미화 그리고 고장난 전자제품 등을 수리해 주는 홍제동의 숨은 ‘참 일꾼’이다.

홍제동 주민과 동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 ‘맥가이버 동대장’으로 통하는 김동대장은 예비군 동대 군수물자 보관창고 및 동사무소 건물 수리는 물론 동사무소 창고에 방치된 녹슨 낫과 톱을 손질해 관내 나무가꾸기 등을 하며 환경미화 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홍제동 예비군 병력을 관리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라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은 저의 제2의 임무죠.”

2년 전 홍제2동 예비군 동대장으로 부임 후 동사무소 외벽 페인트 칠, 홍제동 일대 나무가꾸기, 전자제품 수리 등의 자원봉사를 시작할 때만해도 주위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

“동대장 일이나 잘 할 것이지 주제넘게 환경미화가 웬 일이냐”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함께 근무하는 상근예비역들도 “동대장님,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이쯤해서 그만하시죠”라며 원성의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동사무소 직원들과 상근예비역 장병들이 김 동대장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마다하고 “동대장님, 동사무소 인근 아파트 단지 내 나무와 수풀이 무성하던데 이번 주 일요일에 예취기로 깔끔하게 다듬죠”라며 앞다퉈 봉사를 자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동대장의 참 일꾼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홍제2동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하는 상근 예비역 장병들의 머리를 손수 깎아 주며 그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있다. 사실 김 동대장의 장병 이발 봉사활동은 20년 전 전방부대 소대장 소임을 맡으면서 시작됐다.

사병들의 머리를 깎아주기 위해 전문 학원까지 다니면서 이용기술을 배운 김 동대장의 이발 솜씨는 전문가를 능가할 정도. 첩첩산중 전방부대에서 시간을 쪼개 시내 이용학원을 다니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소대장님, 점점 솜씨가 좋아지는데요? 깔끔하게 이발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성!”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부대원들의 말 한마디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동생같고 아들같은 병사들의 머리를 손수 깎아 주면서 이런저런 얘길 하다보면 어느새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부대끼며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때문에 이발하는 시간은 단순히 머리만 깎는 게 아니라 장병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울어 줄 수 있는 ‘고민상담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김 동대장의 부대원 사랑은 비단 이발 봉사로 그치지 않는다. 영내에서 병영생활을 하는 병사들과는 달리 집에서 예비군 동대로 출·퇴근을 하는 병사들이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싶어 매일 밤 10시면 문자와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묻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부하 병사들의 집을 찾아가 쌀이며 과일 등을 건네며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 주며 그야말로 ‘아빠 동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김 동대장의 선행이 입소문을 타면서 각종 언론에 소개됨은 물론 직속 부대장 표창도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았다.

“할 일 한 것뿐인데 부끄럽습니다. 저와 함께 예비군 동대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상근예비역 장병들이 몸 건강히 제대할 수 있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홍제2동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환경미화 활동도 열심히 하는 거구요. 허허허.”

앞으로 10년 남짓 남은 군생활을 인연있는 병사들과 함께 사랑냄새 나게 살 부비며 ‘사랑의 바리캉’을 계속 들겠다는 김 동대장. 그의 오른손에 들리어진 은빛 바리깡은 오늘도 병사들의 고충과 애환을 ‘싹둑싹둑’ 자르고, 왼손의 빗은 사랑과 용기를 다듬질 하고 있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홍제2동 김유영 예비군동대장은 예비군 병력관리 임무 외에도 ‘장병이발봉사’ ‘환경미화’ ‘전자제품 수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홍제동 참 일꾼’으로 통한다. 김 동대장이 홍제2동 예비군 중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머리를 깎아 주며 고민을 상담해 주는 모습.

- 상근예비역 장병들에 이발 봉사
- 관내 나무가꾸기 등 환경미화 앞장
- 동네 전자제품 수리 맥가이버 능가
- 형편 어려운 병사에 온정의 손길도

불교계최초의온라인광고사이트 애드다피아 http://ad.buddhapia.com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교육을 배격하고,“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중·고·대학생·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전화 02)737-0695/02)2004-8219

◇현대불교신문 –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는 형성과정을 이해하면 저절로 외워진다.
◇충청 투데이 – 체계적인 한문교육이란 무엇이며 예절과 충효문화교육에서도 상세히 알려준다.
◇동양일보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한눈에 쏙 한맹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중부매일 – 한문교육 40년 경험과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결과를 후학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다.
◇이원종 전충북도지사 – 한문책으로서 우리 도를 빛낸 또 하나의 쾌거이다.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 한문문화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서 지름길을 제시해 주어 경제와 문화가 한층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주사 도공 스님 – 한문과 불교문화는 밀접한 관계다. 불자들의 필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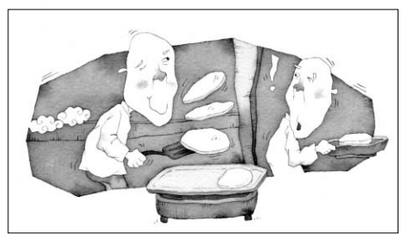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86〉 호떡

소란스러운 것을 '호떡집에 불난 듯 하다'거나, 수시로 변덕부리는 것을 '호떡 뒤집듯 한다'라는 말에서 보듯 호떡의 이미지는 그리 상쾌한 것이 못된다. 하긴 '호(胡)'라는 말자체가 중국문화의 주변부라는 말이다. 호떡은 북쪽 오랑캐들이 먹는 떡이다. 이는 주류음식이 아니라 변방의 먹을거리이며,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통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호떡이 들어온 것은 구한말이라고 한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청나라 육군병력 3,000명이 조선에 진주하였다. 그 때 청나라 상인 40명도 함께 들어왔다.

하지만 그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청나라는 망해버린다. 하지만 상인들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 음식점을 열었고 만두나 호떡같은 것까지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호떡 법문으로 유명한 운문선사
대중앞에서 호떡 한입 깨물고는
"제석천왕 콧구멍 물어 뜯었더니…"

현재의 호떡은 6·25때 미군에게 배급받은 밀가루에 막걸리를 부어 하루저녁 재워 부풀린 다음 연탄불에 드럼통 철판을 올려놓고 구워서 판 것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고려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중기의 선사들까지 호떡을 구경하지도 못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호떡은 임오군란 내지 6·25 라는 '전쟁'과 인연이 깊다. 호떡의 전쟁이미지는 선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다.

'운문선사의 호떡' 역시 '생사(生死)와의 전쟁'을 위한 무기인 화두이기 때문이다. '운문호병(雲門胡餠)'의 전말은 이러하다. 어떤 납자가 운문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를 초월하고 조사를 뛰어넘는 말씀입니까?"

"호떡이니라."

선종에서 '호떡'하면 운문선사이다. 전후사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당신이 호떡을 좋아하니까 자주 만들어 먹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회상에 호떡을 좋아하는 납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을 것 같다.

호떡먹기 싫어서 운문종을 떠났다거나 호떡먹기 싫어서 다른 산중으로 갔다는 말에게은 들어보지 못했다. 그 덕분에 운문선사에게는 호떡법문이 많이 남아 있다.

어느 날 운문선사께서 재(齋)를 지내고 난후 호떡을 한입 깨물고 나서 말했다.

"제석천왕의 콧구멍을 물어뜯었더니 제석이 '아야! 아야!' 하는구나."

뜬금없이 호떡을 먹다말고 한마디 날리는 통에 대중들이 어리둥절했을 것 같다. 호떡을 먹으면서 공부하려는 마음은 간곳이 없고 달콤한 맛만 즐기고 있는 후학들이 마뜩찮았는지도 모르겠다. 그 외에도 호떡법문은 몇 개 더 있다.

취암에게 어느 스님이 재(齋)를 청하자 이렇게 말했다.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재에 참석하리다."

"물으십시오."

그러자 문득 호떡을 하나 집어들었다.

"여기에도 법신이 있습니까?"

"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신을 먹는 것이군."

그러자 그 스님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하고 재에 가자고 청하지도 못했다.

숭수가 창문너머로 호떡을 만들고 있는 스님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호떡값을 되돌려다오."

'호떡존자' 운문선사는 남의 법문까지 빌려와 당신의 법문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취암의 문답에는 "스님께서 정중하게 법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숭수의 문답에는 "스님께서는 호떡화로에 절이나 하십시오"라고 착어(着語)하여 호떡법문계의 지존임을 만천하에 과시했다.

그나저나 호떡이 '어떻게 부처와 조사를 초월하는 것'인지를 참구하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한쪽에 치우치면 반쪽 신도 아닌가요?

참선-교리공부 병행하는 안산 보문선원

"참선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그저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교리만 공부하는 불자들은 글자에 매여 다른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수행이란 행(行)과 해(解)가 어우러져야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닦는 공부라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교리를 많이 알아도 분간을 못하고, 마음을 닦는다 하더라도 교리를 알지 못하면 바른 길을 모르게 되고, 바른 닦음도 되기 어렵습니다."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

참선하려면 교리 필수… 자원봉사로 회향
공부 더 원하는 신도에겐 불교대 학비 지원



참선을 하고 있는 보문선원 신도들. 이곳 신도들은 매주 목·금요일 참선과 교리공부를 하며 부처님 법에 다가가고 있다.

11월 14일 오전 안산 보문선원 시민선방.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방 안에서는 30여명의 불자들이 참선수행을 하고 있다. 여느 선방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곳 선방에서 참선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모두가 교리공부를 병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선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어느 새인가 신도들 사이에서는 '자격'이 있어야 참선수행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오갈 정도다. 자격이란 다름 아닌 '교리공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림 스님이 지도하는 참선수행은 매주 목요일 새벽과 오전 두 개 반으로 나뉘어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들은 서너 차례 선방에 나와 수행을 한다. 새벽반에 나오는 불자들 대부분은 새벽예불을 올린 뒤 참선수행을 하고 또 108배 정진이나 기도정진을 한다. 오전 반 불자들 역시 참선을 마친 뒤 공양을 하고 다시 자리를 틀고 앉는 경우가 많다.

결제철이 되면 신도들은 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매일같이 절에 나와 보림 스님과 이곳의 외국인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한다. 집에 돌아가서도 수행을 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교리 강좌는 매주 금요일 저녁 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신도들은 금강경 화엄경 육조단경 등의 강좌를 통해 기초교리를 배우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외부인사 초청강의도 듣는다. 특별한 경우에는 아예 일주일동안 매일같이 초청강의를 열기도 한다. 그동안 무진장 스님 등 많은 스님들과 대원불교대 최봉수 교수,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등이 강의를 맡았다.

그리고 더 심도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신도들은 일정액의 수업료까지 지원해서 동산불교대학에 보낸다.

보문선원 신도들은 참선이나 교리강좌가 끝나고 나면 신도들끼리 스스럼없이 어울려 자신의 공부에 대해 토론을 한다. 매일 새벽기도가 끝난 뒤에는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공부점검을 받는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다보니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보문선원 신도들의 공부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은 공부한 것을 회향하는 차원에서 모두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보문선원이 오랫동안 전개해오고 있는 '안경보시운동'은 물론이고, 인근 복지관을 포함한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원래 목요일(16일)에 진행되는 참선수행이 화요일(14일)로 앞당겨진 것도, 16일 안산의 복지단체들이 연합해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031)401-2540

글·사진/안산=한명우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신도들이 말하는 '우리이렇게 공부해요'

기복으로 시작했지만 정법 알게 됐어요

▶새벽예불과 목요일 참선을 한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기초수준이지만 교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서 수행을 하니까 체계가 잡힌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교를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신행화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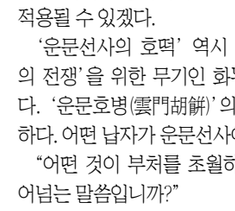
▶지금 육조단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육조단경에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이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 가르침을 새기면서 참선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수행과 교리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스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안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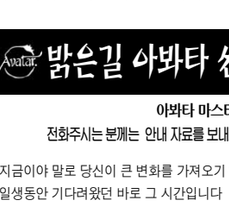
▶아들 입시를 앞두고 기도만 3년 했어요. 그러다가 참선과 교리공부를 함께 시작했는데, 글쎄 뭐랄까요 수행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기복으로 시작한 신행이지만 지금은 정법을 알게 됐죠. (반야지 •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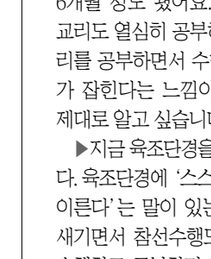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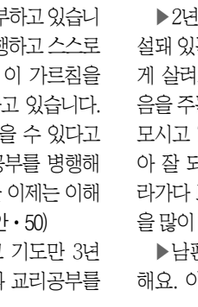
▶2년제 대학인 '안산1대학'에 개설돼 있는 '노인대학'엘 다닙니다. 젊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게 진짜 젊음을 주는 것은 봉사활동이에요. 스님 모시고 7년간 공부했어요. 나이가 많아 잘 되지는 않지만 스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 긍정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원만행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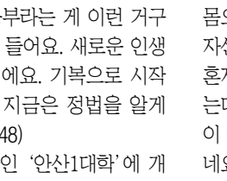
▶남편과 함께 수행하고 교리공부해요. 아마도 어느 한쪽에만 매달렸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몸으로 부딪치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내성적이라서 혼자서는 어떤 일도 잘 해내지 못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남편과 같이 집에서 사경을 한 지도 10년이 됐네요. (수월심 • 48)

▶'초파일 신도'였던 저를 변화시킨 것은 주지스님이세요. 기도에만 매달렸었는데, 참선수행과 교리공부를 병행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알게 됐고, 참선수행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됐죠. 어느 한 쪽에 치우쳤더라면 아마도 '반쪽 신도'에 머물렀을 거예요. (연화심 • 47)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스님이 직접만든
원주생식
● 현미를 비롯한 17종의 곡류 31.56%
● 녹색채소, 담색채소, 황색채소 22종 31.9%
● 버섯류, 한약재, 해조류 10종 26.3%

◀ 1일 1끼 40g 1포×60포
60,000원
▣ 치료식
▣ 건강식
▣ 발아생식
★ 천국장 분말 (우리콩)
1Kg 20,000원
★ 천국장환 (우리콩)
1Kg 25,000원
당뇨환자 전화상담
무상사 053-958-5921
우체국 703314-01-001873 예금주 무상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 산28-3 무상사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동양화재해상보험) ISO 9001 품질인증업체
유통기한중 이상있는 제품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경전의 바다’ 함께 빠져봐요

동산반야회 ‘니까야 독송회 신행결사’ 내달 7일부터 7년간 진행

‘불교경전을 다 읽을 기회는 없을까?’ ‘원전으로 경전을 모두 볼 수는 없을까?’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경전을 다 읽는다는 것은, 그것도 원전으로 본다는 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마당이 펼쳐진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한글 니까야 독송회’를 결성해 오는 12월부터 2013년까지 7년동안 팔만대장경 읽기 신행결사에 들어간다.

‘니까야’는 빨리어로 ‘아함’을 뜻하는 말로,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경장이다. 다시 말해 니까야는 초기불교 경전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디까니까야 · 맛지마니까야 · 쌍윳다니까야 · 앙굿따라니까야 · 굿따까니까야 등 경 내용의 길고 짧음에 따라 5부로 구성돼 있다.

12월 7일 오후 7시 입재를 시작으로 4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2007년 1월부터 7년 동안 계속되는 ‘니까야 독송회 신행결사’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4주간의 오리엔테이션은 이번 신행결사의 지도법사를 맡은 전재성 박사(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와 이미령씨(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그리고 김재일 회장이 ‘니까야란 무엇인가’ ‘니까야를 독송해야 하는 이유’ 등을 주제로 열린다.

200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독송은 이미령 역경위원이 맡게 되며, 매주 독송시간 말미에 간단한 질의응답과 단어설명 시간이 주어진다.

또 이번 독송회 신행결사에 채택된 교재의 저자와 대화시간을 마련해 니까야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독후감 발표회나 세미나 등의 이벤트를 개최해 공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재일 회장


전재성 박사


이미령씨

4주간 오리엔테이션 후 ‘쌍윳다니까야’ 시작

독후감 발표 · 세미나 · 질의응답으로 공부 점검

일반불자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도 5명 이상으로 독송 신행결사 팀을 구성하면, 교재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지도도 해 줄 방침이다.

첫 독송은 전재성 박사의 12권짜리 번역서 쌍윳다니까야로 시작되며, 나머지 교재는 추후 결정된다.

이번 니까야 독송 신행결사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우선 원전강의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으로 그것도 7년에 걸쳐 경전 전체를 모두 읽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큰 불사다.

또한 한글 니까야는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 번역돼 있어 젊은층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불자들로 하여금 경전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잘못 이해돼 온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동산반야회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자들이 접하는 경전의 경우 중국을 거쳐 우리말로 두 번 번역되면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김재일 회장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쌍윳다니까야에 “불자들은 열반을 증득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열반을 욕심 · 화 ·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열반을 이상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불자들이 오르지 못할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미륵’이라는 단어의 경우 한자에서 주는 어감은 쉽게 접근하지 못할 부처님으로 인식되나, 원전에서는 형제 · 자매와 같은 친근한 의미로 묘사돼 있어 부처님 당시 미륵의 의미가 대중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의 경우는 중국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공(空)은 빠알리어로 ‘수냐타’이며 ‘크고 작은 것을 부정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부정하고, 생사를 부정하는 의미이지만, 불자들은 공의 의미를 매우 난해하게 여기고 있다.

따라서 원전을 읽어나가다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매우 어렵게 여겨왔던 단어와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동산반야회는 강조했다.

원전 강독이 주는 이점도 적지 않다. 5부 니까야는 모두 대화체로 구성돼 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 대화체이다보니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한글 경전보다 쉽게 와 닿는다.

그리고 해외 여행과 해외 성지순례가 보편화된 요즘, 인도의 각 지명을 원어로 익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처님 당시 마가다 왕국의 수도였던 ‘왕사성’의 경우 원어로는 ‘라지기르’인데, 원어명을 알고 여행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김재일 회장은 “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긴 시간동안 진행되는 일이니만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부처님 말씀을 원전으로 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32-1206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전국병원불자회 태국서 의료봉사

전국병원불자연합회(회장 이원철)가 내년 1월에 태국에서 제4차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한다.

2007년 1월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태국 치앙마이에 위치한 치앙라이 사찰에서 진행될 이번 해외의료봉사에서는 내과, 안과, 한방과, 약제과, 발마사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병원불자회 의료진이 치앙라이 사찰 인근의 양로원과 지역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게 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그동안 몽골과 스리랑카 등지에서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해왔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태국 불자들에게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한국과 태국 불자들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해 양국 불자간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관세청불자회 창립 1주년 26일 구인사서 기념법회

관세청불자연합회(회장 피재기)는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전국공무원불자연합회 성윤갑 회장의 축사와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스님의 법문 등으로 진행된다. 관세청불자회는 법회가 끝난 뒤 ‘관세청불자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뒤 구인사를 돌아볼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국립의료원 법우회 17주년법회 효림스님 법문

국립의료원 법우회(회장 이현주)가 창립 17주년을 맞아 11월 24일 국립의료원간호대학 9층 강당에서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날 법회는 효림 스님(파주 보광사 회주)의 법문과 불자가수들이 참가하는 여흥시간 등으로 진행된다.

국립의료원 법우회는 간호사 위주로 구성된 불자회로, 매주 의료봉사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한명우 기자

일터가 도량입니다

오후 불식 · 염불로 ‘간절한 마음’ 지켜

위강원한의원 전병롱 원장

오후 4~5시 사이로 6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침을 놓았다. 하루 평균 40~50명 정도를 진료하는 고된 하루. 그렇게 27년을 살아왔지만 단 하루도 고단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다. 소화기 계통으로는 서울에서 꽤 유명하다는 종로 효제동에 위치한 위강원한의원 전병롱(55) 원장. 그 비결은 수행과 일을 따로 여기지 않는 ‘마음’에 있다.

전 원장의 진료나 상담은 거의 ‘법문’ 수준이다. 진료를 받으러 온 40대 후반의 한 여성에게 전 원장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몸이 편하려면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라며 처방전을 내놓는다.


진료를 하고 있는 전병롱 원장. 전 원장은 환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처방을 내놓는다.

전 원장의 상담은 단순한 ‘치료용’이 아니다. 자신의 생활이 꼭 그대로 다. 전 원장의 하루가 그것을 말해 준다. 전 원장은 매일 새벽 2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고 새벽예불을 올린 뒤 108배를 하고 염불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만도 3~4시간.

아침을 먹고 나서 한의원에 출근하는 시간은 8시. 한의원에 와서 곧장 향하는 곳은 휴식공간에 마련돼 있는 불단. 여기에서 간단히 예불을 올린 뒤 오후 6시30분까지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저녁예불을 올리고 하루를 참회한 뒤 경전을 읽고 9~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든다.

이런 일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 빠뜨리지 않는 것은 ‘오후불식’. 전 원장은 정신을 맑게 하기 위해 오후부터 일체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오후불식을 해 온지는 벌써 10년이나 된다. 게다가 오계를 철저히 지킨다.

수행자다운 삶을 사는 전 원장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손으로 시원하게 낫게 해 줄 수 없는 환자를 대할 때가 그렇다. 전 원장은 업으로부터 병이 온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업이 두터워 병을 쉽게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심성을 다스릴 것을 주문한다. 약도 따지고 보면 마음이 정화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60년대에 개원한 위강원한의원은 20평 규모로 아담하다. 이곳은 전 원장에게는 아버지의 대를 이은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불단을 모셔놓은 도량이기도 하다. 가회동 5층짜리 자택에는 법당이 들어서 있고, 이따금씩 전 원장과 인연있는 스님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며칠씩 기거하기도 한다. 전 원장은 때가 되면 자신의 법당을 개방해 수행도량으로 가꿔나갈 생각이다.

“수행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전 원장.

전 원장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보는 이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전 원장의 일터에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편안하게 해주는 도량 같은 기운이 감돈다. (02)762-7770

글 · 사진=한명우 기자

현공풍수
양택사(陽宅師)과정
모 집
“뜻 있는 곳에 성공이 있다”
◆모집인원 : 50명
◆강의일정 : 12주 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개 강 일 : 2006년 12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강의내용
※ 현공풍수의 이론에 입각한 양택
(주택, 아파트, 공장, 사무실, 관공서 등)의 부지선정, 건물의 배치, 좌향, 통로, 방문, 가구 및 집기 등의 배치방법, 현장실습5회 이상 실시
◆수 강 료 : 30만원
◆강의장소 : 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 55-6 수석빌딩 3층
◆문 의 처 : 교학처 02)766-1321-2
담당교수 곽민석 011-756-7630
박성건 011-246-1079
◆특 전
• 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평생회원
• 풍수 양택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신지식 보수교육
•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양택사와 교류
중앙대학교 위탁교육기관 코드 바
중앙 HRD 교육원
전국풍수지리통일학회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선남선녀의 따뜻한 인연을 이어주는
혜철스님의 가을같은 맑은 이야기!
‘대성사 따뜻한 만남’이라는 새로운 법회를 통해
처녀총각 인연 맺어주기를 실천하는 혜철스님이 그 동안의
법문과 기고문, 그리고 시와 단상 등을 모아 엮었다.
세간의 일상을 담담히 담아내는 따뜻한 시선, 환경오염에 대한
애절한 안타까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 등
대립과 투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절실한 사랑이 묻어난다.
인생은 나와 인因과 연緣을 맺은 수많은 사람,
수많은 환경과의 공존의 길이다.
독자 한사람 한사람이 이 책의 주인공이며, 함께해서
행복한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
대성사 주지 혜철 합장


그, 누군가와 함께라면
국판/278쪽/12,000원
운주사
※ 전국 유명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구입안내 : 현대불교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7>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장애가 생겨

세상을 살다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데도 그 때마다 사람들은 성을 낸다. 그 성내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음속에 '나'를 내세워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다'라고 내 위주로 생각의 틀을 짜서 그 틀에 맞는 것은 좋아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다 이 틀이 깨지기라도 하면 불같이 성을 낸다.

성을 냄으로써 오장육부를 바짝 태워 자신의 육신을 파괴하고 주변의 평화를 깨뜨려 모든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처럼 어리석은 삶은 '나'라는 생각의 실체가 허망한 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다. <선가귀감> 47장에서는 성을 내면 온갖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有人來害 當自攝心 勿生瞋恨. 一念瞋心起 百萬障門開

어떤 사람이 해를 입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번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장애가 생기게 되느니라.

부처님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성을 내거나 분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심한 욕설로 모욕하고 헐뜯으며 발로 차더라도 참아내야만 한다.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참아내는 마음 그 자체가 복(福)이 되고 덕(德)이 된다. 나한테 허물이 없는데도 욕질하고 비방하고 화를 내며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이니, 그 어리석음에 일부러 맞서 싸우거나 성을 내고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들어있는 <유교경(遺敎經)>에서도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은 성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그대의 사지를 마디마디 부러뜨린다 해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서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라. 또 입을 잘 단속하여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제멋대로 성을 내면 도(道)를 방해하여 공덕을 잃게 된다. 참음으로 얻는 공덕은 참으로 커서 계행(戒行)이나 고행으로 얻는 공덕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니,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꾸짖고 욕설하는 독약을 감로수 마시듯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을 낸다면 이 사람은 도(道)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을 내는 해악은 좋은 모든 법을 파괴하고 드러난 명예를 떨어뜨리니, 지금 사람이나 뒷날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내는 마음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보다 그 해악이 더 심한 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늘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여 성내는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공덕을 빼앗는 도적은 성냄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도(道)를 닦지 않아 스스로 제어할 법이 없으므로 그들의 성냄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출가하여 욕심 없이 도(道)를 닦는 비구들이 성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성내는 일을 비유하면, 차가운 먹장구름 속에서 벼락 치며 일어나는 불과 같아서 마주 상대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냄은 '나' 잘 났다고 우쭐대는 마음에서 나와

'나라는 놈' 실체가 없는 줄 알고 집착 말아야

<화엄경>에서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나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다"라고 하였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一念瞋心起]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허물이며 가장 나쁜 일이므로 여기에서 온갖 장애가 생긴다[百萬障門開]. 이 장애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장애, 바른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 나쁜 길에 떨어지는 장애, 병이 많은 장애, 지혜가 모자라는 장애, 삿된 소견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장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 불법에 전념하지 못하는 장애"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화엄경>에서 말해 놓은 성냄으로써 일어나는 장애의 일부분을 추려 본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煩惱雖無量 瞋慢爲甚. 涅槃云 塗割兩無心 瞋如冷雲中 霹靂起火來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는 마음을 못 이겨서 성을 내는 일이 그 피해가 가장 극심하다. <열반경>에서는 "날카로운 창이나 예리한 칼로 찌르거나 좋은 약이나 향수를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 일에 다 무심(無心) 하라"고 하였는데, 성을 내는 일은 차가운 먹장구름 속에서 벼락 치며 일어나는 불과 같으니라.

모든 번뇌 가운데에서도 성내는 것만큼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바로 해악을 끼치는 일은 없다. 이 성내는 마음은 '나'라는 놈이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는 놈의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나'를 내세워 생겨나는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날카로운 창이나 예리한 칼로 찔려도 '나'라는 것이 없는데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좋은 약이나 향수를 발라주더라도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겠느냐? '시비분별하는 나'라는 존재가 없으므로 원망할 것도 없고 기뻐하며 좋아할 것도 없는 것이 무심한 것이다.

무심하여 시비 분별이 없는 곳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다. 시비 분별이 사라진 부처님 세상에서 성을 내는 일은 먹장구름 같은 번뇌 속에서 벼락 치며 일어나는 불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는 허깨비와 같다. 모든 허깨비가 사라진 이 자리는 오직 부처님의 미소와 자비만이 넘쳐흐른다. 부처님의 미소와 자비를 담아서 중국 오대산 중턱의 외딴 암자 금강굴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기도하던 무착(無着 821~900) 스님에게 문수 동자가 들려준 게송이 있다. 이것은 요즈음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여 외우고 다니는 게송이다.

面上無瞋供養具 口裏無瞋吐妙香 心裏無瞋是珍寶 無染無垢是眞常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석정 스님 번역)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차수(叉手)

사찰수련회를 가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묵언'과 '차수'지요. 순식간에 말과 손이 '묶여집니다.' 그간 너무도 자유롭던 입과 손이 절제의 덕을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양 손을 단전에 붙이고 다녀야 하니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차수 자세는 합장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앉아 있거나 서있을 때 차수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경건합니다. 교육 잘 받은 귀공자 같고, 겸손과 예절 바른 양반 집 자녀 같으니까요. 두 손을 자연스럽게 마주 잡는 차수. 이것이야말로 존재에 대한 겸허와 존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수는 이렇게 합니다. 양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를 마주 끼우고 한 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가볍게 덮습니다. 이 때, '왼손이 아래냐 오른손이 아래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스님은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여자는 반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왼손은 음기를, 오른손은 양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건한 절집에서는 음기로 양기를 덮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손이 위아래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왼손 오른손을 따지게 된 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좌고우비(左高右卑)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았던 거죠. 반면 좌도(左道)는 사도(邪道)요, 우도(右道)는 정도(正道)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좌우의 개념이란 편의적이었을 뿐입니다. 하기 편한대로 손을 마주잡으면 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lust.org)

존재하는 이유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제2부 68강 혜능이 설파하는 무착(無著)과 무상(無相)의 행(行)

식(識)의 눈높이가 세상을 결정한다

"어리석은 마음에 출몰하는 생멸(生滅)을 '지혜'로, 반성과 자각으로 제거하십시오." 혜능의 권고가 이 한 마디에 집약되어 있다. 그의 노파심은 이어진다. "이 생멸 안에는 생멸의 치유와 소멸을 통해 심리적 자산과 자존을 취득한다는, 그리하여 남과는 격이 달라진다는 '소유'의식의 발생(?)도 들어있다. 일체의 법에 대해 무심한,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고, 거기 기반하지 않는 삶을 이루라, 그것도 입으로만 말고, 실천으로…"

그의 구결을 더 들어보자.

(육조 13-2)

"佛問須菩提, 如來說法心有所得不. 須菩提知如來說法心無所得, 故言無所說也. 如來意者, 欲令世人離有所得之心, 故說般若波羅蜜法, 令一切人聞之, 皆發菩提心, 悟無生理, 成無上道也."

"부처가 수보리에게 물었다. '여래가 진리를 설했고, 나는 그 진리를 획득했다는 생각이 있느냐?' 수보리는 여래가 진리를 설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에 얻은 바 진리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여래의 뜻은 세상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은 바 있다'는 마음(有所得之心)을 제발 떨쳐내게 하려고, 이 반야바라밀의 진리를 설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리심(菩提心)을 발하게 하고, 무생(無生)의 진리를 깨달아, 마침내 무상(無上)의 도리를 성취케하려는 것이다."

(부연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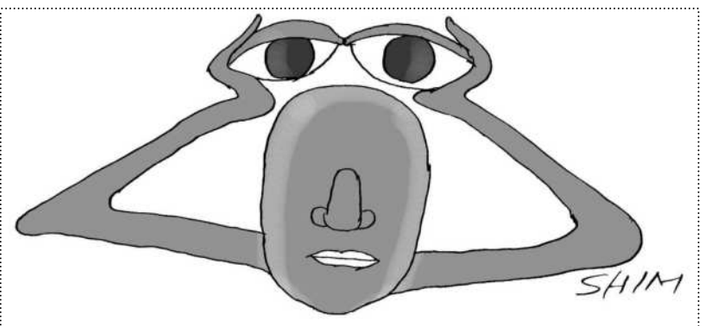
역시 <금강경>이 타겟으로 하는 것, 혜능이 강조해 마지 않는 경계도 이 '소유'와 '지배'의 의식이다. 심리적 결핍과 짝해 있는 이 오래된 허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영원의 평화는 없다!

작은 것 하나 성취했다고 우쭐하고, 조금 늘어난 재산에 약간 높은 지위에 '취득'을 자부하는 것도 느끼하고 비호감이다. 애들 말로는 '쏠린다'고 하던가. 세속 너머 더없는(無上)의 진리를 향한 자의 성취의식은 더욱 위태롭다. 내적 자부는 겸양과 동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독점자의 오만과 독선으로 빠진다면, 그 인간 차라리 이 도에 접하지 않으니만 천백배 못하다.

<금강경>은 세속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인들, 종교 종파를 불문하고 길을 간다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계하고 또 경계한 경전이다. 진정 불도를 익힌 자, 그 빛에 휘황하게 은총받은 자, 그는 불교의 냄새를 피우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해서 보통 사람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다. 거꾸로, 불도에 아예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도의 힘과 영광을 느끼는 때가 많다. 그렇기에 <금강경>이 한사코 '그분은 32상의 표징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분은 집안에서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거리에서 신문을 펴들고 있을지 모르며, 식구들을 먹여살리려고 이 팍팍하고 험한 세상에 땀에 젖은 지폐 몇 장을 벌고 계실지 모른다.

若波羅蜜, 無著無相行, 了妄念塵勞卽淸淨法性. 妄念旣無卽非微塵, 是名微塵. 了眞卽妄, 了妄卽眞. 眞妄俱泯, 無別有法. 故云, 是名微塵. 性中無塵勞卽是 佛世界. 心中有塵勞卽是衆生世界. 了諸妄念空寂, 故云非世界. 證得如來法身, 普現塵刹, 應用無方, 是名世界."

"여래가 말씀하시길, 중생들의 몸(性) 안에 있는 망념들은 삼천대천세계 안에 들어찬 먼지들같다고 했다. 중생들은 예외없이 망념의 먼지들을 덮어쓰고 있는데, 그것들은 쉴 새 없이 일어났다 스러지며 불성을 가로막고 해탈을 방해한다. 만일 념념이 반야바라밀을 올바로 수행하고, 무착(無著) 무상(無相)의 행(行)을 닦아 나갈 수 있다면 먼지처럼 뿌옇던 망념들이 어느덧 청정한 법성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 의미에서) 망념이란 없기에, '먼지가 아니다. 그래서 먼지라 부른다'라고 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진짜라고 붙든 것이 망녕된 것이고, 망녕된 것이 기실 진짜라는 것을 알아, 진짜와 망녕이 함께 스러져 다시 다른 구분(法)이 없다! 그래서 '이를 먼지라 이름한다'고 말했다. 내 몸(性)에 아무런 진로(塵勞)가 없는 것이 곧 부처의 세계이다. 마음 속에 진로가 있는 것이 곧 중생의 세계이다. 여러 망념이 공적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세계가 아니라 한다'고 했다. 여래법신을 증득하여 널리 수많은 세계에 자유롭게 나투길래, '이를 세계라고 한다'고 했다.



(부연 13-3)

여기 '먼지'들은 앞에서 적은 대로, '어리석은 마음의 생멸', 그 출몰을 가리키고, 그 흔적들로 하여 혼란해진 마음들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연기하는 세상이 스스로 여여(如如)하게 평온한 것을 모르고, 즉 무생(無生)의 이치를 모르고서, 세상이 일어났다 스러지고, 태어났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오래된 습관을 가리킨다. 반야바라밀은 이 습관 하나를 치유하려는 원포인트 공략이다.

그러므로 늘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 세상은 평온한데, 내가 스스로 상(相)을 짓고, 스스로 찧고 까불며 깨춤을 추지 않는지를… 인간은 다들 이 오래된 습관이 만든 자기감옥 속에 갇혀 산다. 그래서 중생이다. 그렇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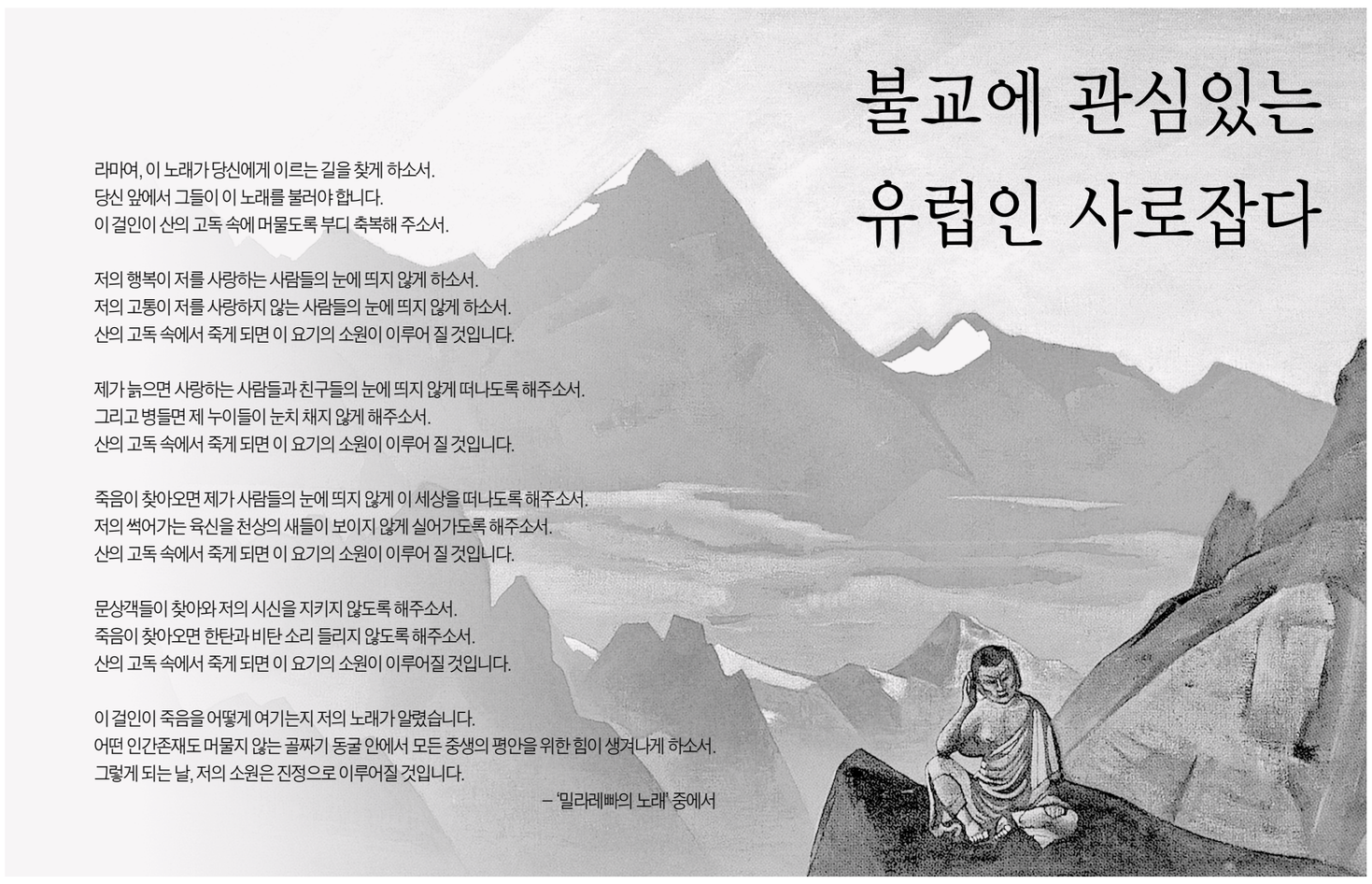
그 감옥의 크기와 성격이 세상을 보는 눈을 결정한다. 결코 세상은 자기눈높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불교는 각자의 식(識)에 따른 세상의 층위를 33천(天)으로 설정해놓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자기 세계(世界)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같은 줄만 안다. 그러나 각자 욕망과 습관의 지도는 서로 매우 다르고 또 홀쩍 격이 다른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욕심에 따라 물불 아니 가린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에 따라 가치의 무게중심이 다르기에 관용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다 큰 규모에서 생각하고, 보다 원대한 이상을 갖고 있기에 그들을 존경하고 받들어야 한다.

혜능의 권고대로 살아보자. "념념(念念)이 반야바라밀을 올바로 수행하고, 무착(無著) 무상(無相)의 행(行)을 닦아 나가자. 그때 먼지처럼 뿌옇던 망념들이 청정한 법성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구원되지 않는다. 입만 열만 남의 탓을 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그들을 책임있는 자리에 앉혀서도 안된다. 불평을 말하기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무슨 작은 일이라도 성취하여 세상에 보탬이 될까를 생각하라. 그 '작은' 태도 하나가 보통사람과 영웅을 가른다. 말많은 세상, 남의 탓하고, 세상을 적대시하느라 원망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세상, 희망의 불씨를 위태롭게 만드는 혼돈과 광풍의 세상에 이 덕목이 목메게 그립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라마여, 이 노래가 당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걸인이 산의 고독 속에 머물도록 부디 축복해 주소서.

저의 행복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저의 고통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소서.
산의 고독 속에서 죽게 되면 이 요기의 소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제가 늙으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의 눈에 띄지 않게 떠나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병들면 제 누이들이 눈치 채지 않게 해주소서.
산의 고독 속에서 죽게 되면 이 요기의 소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제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나도록 해주소서.
저의 썩어가는 육신을 천상의 새들이 보이지 않게 실어가도록 해주소서.
산의 고독 속에서 죽게 되면 이 요기의 소원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문상객들이 찾아와 저의 시신을 지키지 않도록 해주소서.
죽음이 찾아오면 한탄과 비탄 소리 들리지 않도록 해주소서.
산의 고독 속에서 죽게 되면 이 요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걸인이 죽음을 어떻게 여기는지 저의 노래가 알렸습니다.
어떤 인간존재도 머물지 않는 골짜기 동굴 안에서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한 힘이 생겨나게 하소서.
그렇게 되는 날, 저의 소원은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 '밀라레빠의 노래' 중에서

30년간 티베트불교 체험한 독일 여성작가가 쓴 명상 구도 소설…유럽서 호평



수레바퀴 길
울리 올베디 | 김인순 역
조화로운 삶 | 1만5800원

'사람은 왜 고통 받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는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무엇인가'

공상을 즐기고 입심 센 열여섯의 소녀 마일리. 마일리는 부모님의 비명횡사를 겪은 후 인간 삶의 본질적인 주제에 관심을 갖는다.

부처님이 해답을 알고 있다고 확신한 마일리는 삶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깨달음의 길을 찾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네팔의 산골짜기 고향마을을 떠나 카트만두 첩첩산중의 비구니 사원으로 향한다. 마일리는 그곳에서 두 친구 쉬미와 페마, 그리고 아름다운 꿈을 선사하는 비구 쇠남을 만난다. 또 티베트 불교의 신비로운 세계와 심오한 지혜, 환생과 업보, 중유의 세계, 탄트라, 명상 수행, 티베트 민간신앙을 이해하기도 한다.

마일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며, 영적 성숙을 알아보는 지혜로운 요가 수행자 니마를 만남으로써 목표에 더욱 접근한다. 마일리는 지혜로운 스승의 도움을 받아 탄트라와 기요가의 비밀스러운 세계에도 입문하며, 마침내 무한히 넓은 허공 속에서 모든 경계에서 벗어나 세상 만물과 하나되는 것을 체험하는 경지에 이른다. 비구니가 되어 탄트라와 요가의 신비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고 외셀 왕모로 거듭나는 마일리는 이후 혼자만의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개달음을 나누기 위해서 넓은 세상을 향해 길을 나선다.

<수레바퀴 길>은 소설 형식으로 실제 이론과 사상을 허구의 현실에 정교하게 엮어 넣어 명상과 구도라는 낯선 세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흥미 있고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그래서 불교수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다.

주무대가 '불교와 달라이 라마의 나라', '스투파와 만년설의 나라'라는 닉네임답게 강렬한 향내음과 몬순의 빗줄기가 교차하는 티베트 지역인 것도 관심 끌기에 한몫 한다.

한 움큼의 빛이 스며드는 히말라야의 작은 사원을 배경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 펼쳐지는 구도 이야기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주인공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깨달음의 여행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경험하는 구도의 길은, 가르침을 좇는 절제된 자기 수행과 사랑을 찾는 젊은 여인의 꿈과 욕망이 대비되는 신비로운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엄밀하게 규정한다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명상 구도 소설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수행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우정, 규율에 대한 순종과 반항, 전통의 보존과 현대사회의 요구가 빚어내는 갈등이 씨실과 날실처럼 엮이면서 순박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소설은 티베트 불교대학에서 공부했고, 최키 니마 린포체에게 영적 가르침을 받은 독일 작가 울리 올베디가 30여 년간의 티베트 불교 체험을 한 뒤 쓴 작품이다. 그녀는 안거 명상 도중 순간적으로 영감이 떠올라 글을 써내려갔다고 한다.

이 소설은 다난하게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삶의 좌표를 찾아 스스로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자극을 주고 긍정적인 힘을 일깨워 주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런 만큼 '불교의 정신세계를 알고 싶은 사람은 어떤 이론 서적보다 <수레바퀴 길>을 손에 드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이 책을 읽은 유럽인들의 평가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 com

네티즌 강추

늦가을에 어울리는 시화집…마음에 끌리는 그림 하나



나비부인 신석주 지음, 토우

우연히 마주친 시집 한권…,

예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시간에 짬짬이 책을 읽었다.

최근에 학교생활 때문에 책과 거리가 멀어졌기에…,

가을이 되면서 책과 다시 한번 친해지고 싶어 서점을 찾았다.

이래저래 책을 찾다가 계절이 계절인 만큼 시집을 한번 읽어 보기로 하고 책을 찾는데 마음에 드는 서양화가 담겨있는 시화집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서양화가 신석주의 시화집이다. 예술가 특유의 창의적 시각으로 세상과 인생의 갈등요소를 올 컬러의 그림과 글로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을 구입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천천히 시집을 들쳐보기 시작하였다.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53페이지에 <가을수레>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 한 폭이었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그림이다. 그 그림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곤 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중이라면 꼭 추천해주고 싶은 시집이다.

(srphan, lifelog.blog.naver.com/srphan/r02_srphan_1)

책속의 밑줄긋기

인간은 습관의 창조물…과거에 선택한 것이 나를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길거리를 걷는 어린아이가 쉽게 장난감 가게들을 발견하듯이, 각 개인의 관심에 따라서 인식은 선택적인 것이다.

인간관계, 도덕성, 직업, 건강, 질병, 고통, 죽음 그리고 초월과 같은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태도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나, 가장 큰 요인은 업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자신이 과거에 선택한 것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즉 우리는 습관의 창조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생각이나 행위는 저항이 가장 적은 길 즉 하기 쉬운 일을 따른다. 이러한 일들은 미묘한 몸에 정확하게 새겨진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는 자신의 구습들이 잘못된 것이고 무익하고 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조차도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의식과 함께 생명력이 흐르는 길을 직접 변화시켜야 한다.

–<탄트라> 본문 157쪽, 게오르그 호이에른슈타인 지음, 여래

모든 사람안에 내재한 신성한 사랑 '자비'



○…자비와 자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비는 우리들 스스로에게서 우러 나오는 사랑으로서 그 실천에 있어서 행위자 자신, 가정, 계급, 국가를 뛰어넘는다. 반면에 자애는 행위자 자신, 가정, 계급,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란 스스로 우러나와 인간을 신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으로 닦아져야 하는 성질의 것이다.

라마크리슈나에게 있어 자비는 모든 사람안에 내재하는 신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 속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 안에 있는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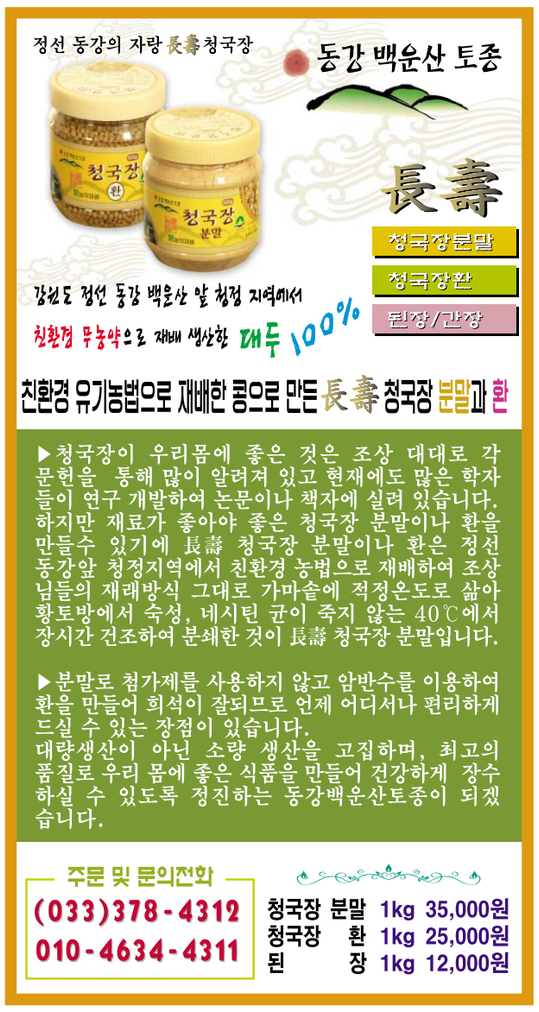
라마크리슈나는 참정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타고난 신성을 실현하는 일과 타인을 돕는 봉사의 동기에 관한 자기성찰에는 차이가 없으며 다르지도 않습니다. 단지 동일한 정신상태에 대한 두가지 양상으로 보일 뿐입니다"

–<라마크리슈나> 본문 252쪽에서, 로맹 롤랑 지음, 정신세계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깊은 법문 · 친절한 '해설' … 수행의 지름길



저 건너 산을 보라
성수 스님 지음 | 김성우 해설
휴먼앤북스 | 1만5000원

'한국적 선문답'으로 유명한 성수 스님 법문에 해설 달아

문(납자): 불법(佛法: 불교의 진리)의 대의가 궁금합니다.

답(성수 스님): 가지고 있는 법은 어찌하고 따로이 법을 묻느냐? 법을 알기 전에 자기 부족을 살필 줄 아는 이가 참다운 수행인이거니와 자기 병을 진단하지 못하면 천불(千佛: 천 분의 부처님)이 출세해도 불법을 알기는 어렵다. 화두나 들고 좌복(坐服: 방석)에 앉아 세월만 보내면 뒤에 밥을 몸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불법은 저 건너 산을 보라. 봄이 오면 잎이 나고 가을 오면 낙엽지네. 이 밖에 따로 구하지 말라. 구한 즉 고(苦)가 되나니라.

문: 조사(달마)가 서역(西域: 인도)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

답: 그 뜻을 알고자 하거든 나무나 돌이 말할 때를 기다려라. 진실로 알고자 하는 놈이면 보고 들을 줄 알 것이며, 허튼 생각으로 묻는다면 부처의 뱃속으로 들어가도 알기 어렵고, 불조(佛祖)가 진대지(盡大地: 대지가 다하도록)에 가득해도 모를 것이니, 죽이나 먹어라.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보살 눈에는 만물이 모두 보살로만 보인다'는 성수 스님(함양 황대선원 조실 · 사진). "우주만물이 선(禪)아님이 없다"는 스님은 "자신이 자기 밖으로는 못 보나, 본성을 깨달은 이는 보이는 물물이 다 관음이 되느니라. 이 사람아, 배가 고프면 밥이나 먹고 졸음이 오면 잠이나 자게"라고 말한다.

스님은 "부처에게 속았다고 욕을 바가지로 해야 화두가 제대로 된다"며 "천하제일의 선지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 새끼가 돼야 조금이라도 맛을 볼 수 있지, 착한 것만 갖고는 안된다"고 가르친다.

우리 시대의 큰스님 성수 대선사. '한국적 선문답'의 전형으로 칭송받는 성수 스님의 선법문집 <저 건너 산을 보라>가 출간됐다.

현대불교신문 기자 출신이며 현재 참선과 저술에 몰두하고 있는 김성우(본명 김재경) 씨가, 1978년, 발간된 성수 스님의 <불문보감> 선문답집에 해설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1부 선문답, 2부 선법문, 3부 언론과의 1문1답, 우리시대의 진정한 대인 성수 대선사 구도기로 짜여져 있다.

성수 스님의 법문은 일반인들이 선에 친근하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금기시해온 난해한 선문답의 해설을 통해 선문답이 수행과 동떨어진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스님의 선문답과 선화(禪話)는 중국 선종의 언어를 답습하지 않은 한국적인 선문답의 전형을 제시하고 있어,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선(禪)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님의 책에는 선에 대한 이야기 뿐 아니라 살아가는 지혜도 듬뿍 담겨있다.

스님은 이 책에서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나 좋고 남도 좋고 다 좋다"며 "있는 복이라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서 잘 가지고 써보십시오. 정말 사는 재미가 '오도독 오도독' 난다"고 당부한다.

김성우씨는 "이 책의 선문답에 대한 해설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선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며 "물론 공안에 대한 파설을 통해 간화선 수행에 신심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유의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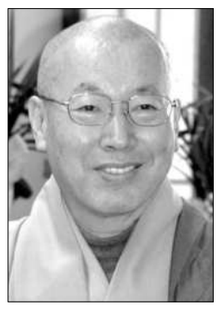


김 씨는 또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선의 요체는 간화선보다는 정통 조사선(祖師禪: 송대 간화선이 형성되기 이전 조사들의 활달한 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단박 깨닫는 기연을 이끌어주는 것이 조사선의 전통을 이은 성수 스님의 한국형 선문답의 특징이자 장점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금강경을 사랑한 지안 스님

구마라습 원문풀이 · 관련 설화 가려뽑아



또 금강경이야? 서점에 쏟아져 나와 있는 수많은 금강경 역해서들을 접한 독자라면 먼저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많고 많은 금강경 역해서 중의 하나가 또 나왔겠지' 하고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를 펼쳐들었다면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생각이 달라지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는 금강경을 그 어떤 경전보다 아끼며 사랑한 지안 스님(사진)이 한사람이라도 더 금강경을 가까이 두고 독송함으로써 '아상'에 묶여 고통 받는 이들의 지견이 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여 쓴 책이기 때문이다.

통도사 강원 강주,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을 역임하고 조계종 승가대학원장으로 활동 중인 지안 스님이 풀어 쓴 이 책은 구마라습의 원문과 풀이, 지안 스님의 강의, 금강경과 관련된 설화들을 가려 뽑은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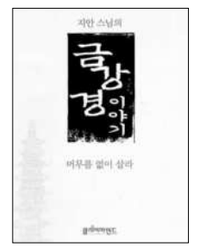
30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바쳐온 지안 스님의 삶과 연륜이 통째로 녹아 있는데다 금강경이 너무 좋아 10만 번 독송을 발원했을 정도로 금강경에 매료됐던 지안 스님이 후학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틈틈이 정리한 원고들이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강경의 요의를 밝혀주고 있다. 이 책은 앞으로 스님들은 물론 재가자들을 위한 강의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금강경과 관계되는 설화를 중심으로 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강경 간정기'나 선화(禪話)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들은 금강경의 이해를 돕고 금강경이 독자의 삶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여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또 한 가지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에서 돋보이는 것은 부록이다. '법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으로 보시를 행하라'는 말씀을 들은 수보리가 일으키는 의심, 27가지인 천친(天親)의 27단의(斷疑)를 정리해 놓고 있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그 의문에 대면하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금강경의 경문 뒤에 숨은 뜻을 찾아가며 독송하도록 하기 위한 지안 스님의 배려다.

또한 무착(無着)의 18주(住)와 미륵(彌勒) 80행 게(八十行 偈)는 금강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을 어디에 주(住)하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특히 미륵 80행 송은 지안 스님이 처음으로 신수대장경에서 뽑아 해석한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안 스님의 금강경 이야기
지안 스님 지음
클리어마인드 | 1만2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무엇이 보이는고(산중방담1)	강병호, 8000원, 온누리
· 보리도차제약론	쫑카빠, 3만5000원, 시륜
·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전재성, 3만원, 한국빠알리성전협회
· 사진으로보는 중국차	박홍관, 2만5000원, 형설출판사
· 옥추경 연구	구중회, 1만9000원, 동문선

도서주문 (02)2004-8219

<인도불교사> 등 10권 '올해의 불서'에

불출협, 출판사 추천 50종중 10권 뽑아…12월 8일 시상식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가 11월 15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 해 동안 출간된 불교서적 중 양서를 가려 뽑는 '올해의 불서 10'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10권의 불서는 <길위의 삼국유사>(미래M&B) <인도불교사>(시공사) <생명과학과 선>(미토스) <인간학불교>(정우서적) <절수행입문>(조계종출판사) <소 찾는 아이>(사계절)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운주사) <붓다, 나를 흔들다>(샨티) <불교, 이웃종교를 읽다>(현암사) <범종, 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엄>(한길아트)등이다.

'올해의 불서 10' 선정은 불출협이 좋은 불서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저자 · 출판사에 활력을 줌으로써 불교출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

불출협은 출판사가 추천한 50종을 선정한 뒤 출판기자 · 독자 · 출판사 편집장 · 불교학자 · 법사 등 12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들에게 추천서를 발송해 회수한 뒤 2차 후보도서 20종을 가려냈다.

최종 심사는 김호성(동국대 인도철학과) 고영섭(동국대 불교학과) 김재성(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가 20종의 도서를 10일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10권을 가린 것이다.

심사기준은 창작성, 기획력 및 편집, 불교 대중화에 대한 공헌도, 문장 서술 및 구성력을 봤다.



한편, 불출협은 12월 8일 오후 3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시상식 및 불출협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김원우 기자

올해 추천도서 선정 이유

<인도불교사>=학술적인 가치야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한국의 번역 풍토에서 양이나 질적으로 돋보인다.

<소 찾는 아이>=십우도를 텍스트로 하고 있으며, 그림이 부드럽고 유려할 뿐만 아니라 잔잔하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길위의 삼국유사>=이러한 흐름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사진과 아름다운 문장이 돋보이며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진다.

<범종, 생명의 소리를 담은 장엄>=우리 범종의 우수성에 대한 체계적 설명과 풍부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불교, 이웃 종교로 읽다>=불교에 대한 대중 강의서이지만 철저히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져 있으면서, 또한 외부의 시각에 비친 불교사상이나 교리 등을 객관화시켰다.

<붓다, 나를 흔들다>=각종 경전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삶과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제자)의 이야기를 자신의 포교현장에서의 사례를 결합하여 재미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현재 초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교육현장에서의 경험과 불교의 가르침을 결합하여,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올바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생명과학과 선>=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불교의 기본 사상과 교리에 입각한 관점을 제시했다.

<인간학 불교>=불교입문서들이 흔히 가지는,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사건 등의 단순 나열이나 백화점식 서술이 아닌 기획부터 철저히 인간학의 관점에서 불교에 접근하고 있다.

<절 수행 입문>=간화선, 화두 일변도의 수행 풍토에서,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절'도 하나의 수행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신수 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 지도
◆ 모집인원 : 3명 ◆ 자 격 : 제한없음
◆ 기 간 : 12월 1일 (3개월 예정)
◆ 역학 및 작명 (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실·바늘로 펼치는 진리의 세계

한상수 자수匠
日 '천수국수장' 복원

곱디고운 천은 캔버스가 되고 오색 실은 물감이, 바늘은 붓이 된다. 한 땀 한 땀 놓은 수는 꽃으로, 사람으로, 부처로 화려하고 장엄한 변신을 시작한다. 한상수 자수장(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이 일본의 국보급 자수 '천수국수장(天壽國繡帳)' 복원을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교자수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남아있고 무슨 용도로 제작됐는지 살펴본다.



승무 추는 모습이 담긴 현대 자수작품. 사진제공=오리엔탈이미지



일본 주쿠지(中宮寺)에서 발견된 '천수국수장'의 수를 복원한 한상수 자수장의 작품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상수 자수박물관

불교자수, 부처님 자비찬탄 · 원력 담아
가사 · 방석 · 번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

불교자수는 불교와 관련된 불교용품에 사용된 자수를 통칭한다. 부처님의 자비를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성취를 이루려는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작품이다.

조선시대 불교자수는 신심이 돈독한 여성 불자나 자수 기량을 습득한 비구니 스님에 의해 주로 제작됐다. 자릿수 기법(돗자리의 결모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넓은 면을 메꿀 때 사용)을 이용해 시주한 사람과 연대 표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처님을 수놓은 수불, 번기, 가사, 방석, 다라니 주머니, 탁의 등에 쓰인 자수들이 불교 자수로 분류된다.

불교자수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대부분 길고 짧은 땀으로 밑그림의 빈 자리를 메우는 자련 수법으로 놓는다. 제작 연대가 오래 된 것일수록 가는 실을 사용했으며 근세에 가까와 올수록 굵은 실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에 제작된 자수작품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고려 말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기호산신도(驥虎山神圖)', 월정사 8각9층탑에서 발견된 '자수향낭', 선암사에 남아있는 대각국사 가사와 용문탁의, 전주시립박물관이 소장한 불경 덮개 등이 고려 시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용문탁의는 중국 송 황제가 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쌍용문가사', 1880년에 만들어진 <묘법연화경>을 비롯해 보살 · 경전이 수놓아진 '25조 자수가사'와 '불화복장낭(佛畵腹藏囊)'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현우경(賢愚經)> 등이 조선시대 전통 불교자수의 명맥을 이으며 전해오고 있다.

최근 한상수 자수장이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국보급 자수 '천수국수장(天壽國繡帳)'은 일본 성덕태자가 죽은 뒤 태자비가 태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쿠지(中宮寺)에 있는 '천수국수장'은 성덕태자가 천수국이라는 극락에 왕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천수국수장'에는 "세상은 모두 헛되고 거짓된 것이며 오로지 부처만이 진리"라는 성덕태자의 말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

일본의 국보급 자수라고는 하나 수 놓은 명문에 의하면 밑그림을 그린 야마토 아야노마켄(東韓未賢), 코마노 카세이치(高麗加西盜), 아야노누 카코리(漢奴加己利)의 세 화가들은 한국계로 추정되고 있다.

'천수국수장'은 사방 5m 크기로 두 장을 만들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한 장의 일부분만이 남아있다. 세로 88.5㎝, 가로 82.7㎝ 액자에 넣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 비단 바탕의 무늬가 있는 천에 승속인물, 신장상, 연화 뒤의 부처, 비운, 봉황, 토끼, 사원 등이 붉은색 노란색 청색의 색색수실로 남아있다.

인물의 복장은 고구려 고분벽화, 삼국시대 복장 등과 연관성이 많이 드러나 아스카 시대의 풍속과 한 · 일간의 교류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경주, 앙코르와트에 가다

캄보디아 시엠립서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캄보디아 전통춤은 엑스포 기간 동안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11월 21일~2007년 1월 9일까지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 주제로
합동공연 · 퍼포먼스 · 영화제 등 열려

밀림 속 신들의 도시가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를 만나 변화의 용틀임을 시작한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캄보디아 정부가 11월 21~2007년 1월 9일 캄보디아의 시엠립 일대에서 '앙코르-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2006'행사를 개최한다. 신라와 크메르 문명 등이 빚어낸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맛볼 수 있는 50일간의 문화축전이다.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문화 엑스포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수교 10주년 기념을 겸한 행사이기도 하다. 앙코르와트 유적군 일원 3만여평의 행사장에서 열리는 앙코르 엑스포는 각종 전통문화 공연, 3D 영상,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줄지어 관람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경주에서 열린 문화 엑스포를 이어받는 자리. 남 · 북방 불교 문화 유산을 총괄, 경주와 앙코르간 문화벨트 형성이 가능할 지 가늠해보는 시금석이다.

11월 21일 개막식에는 캄보디아 승려 80여명과 한국-캄보디아 공연단 120명으로 구성된 합동 공연단이 앙코르와트 내 특설무대에서 동양의 신비와 인류 상생을 주제로 개막식을 꾸몄다. 2007년 1월 9일 폐막식에서 선보일 '만다라의 노래'는 앙코르와트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퍼포먼스이다.

연출가 김아라씨가 연출을 맡은 '만다라의 노래'는 전쟁과 이념 분쟁이라는 역사적 공통분모를 지닌 두 나라의 원혼을 불러내 그 상처를 치유하면서 인류 번영을 기원하는 천도재 형식으로 진행된다.

엑스포 기간에는 앙드레김 패션쇼, 양국 전통의상쇼, 코끼리 퍼레이드, 크메르 고전 무용 콘테스트, 국제연날리기, 영화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연출된다. 야외 특별공연무대에서는 한국,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태국, 중국 등 세계 20개국이 참가하는 세계공연예술축제와 한국 · 캄보디아 특별 공연이 마련된다. 한국측에서는 국수호 디딤 무용단, HATA, 정숙희 무용단, 고성오광대보존회 등이 출연해 한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주최측은 행사 기간 동안 20여개국 1만여명의 문화예술인과 30만명의 관광객이 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054)740-3060

강지연 기자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 음성공양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이 11월 24일 오후 7시 KBS공개홀에서 제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창단 11주년을 맞는 가릉빈가 합창단이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오페라 '아미타불 노래하는 나무꾼과 선녀'이다.

운문 스님이 작사한 '아미타불'과 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불교음악협회 반영규 회장이 작사를, 정부기 교수(중앙대)가 작곡해 무대에 올린다.

1부 '아미타불'은 '수행의 노래' 등 5곡의 노래를 선사하다. 3막 6장으로 구성된 2부는 '선녀와 나무꾼'으로 감미로운 음성공양을 시도한다. (02)705-5305

한국불교문인협회 송년 시 낭송회

한국불교문인협회가 12월 2일 오후 3시 서울 서교동 한국불교문인협회 사무실 지하 몽쏘 카페에서 송년 시 낭송 및 수필 낭독회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 시 낭송 및 수필 낭독회는 2006년 한 해를 정리하고 보내는 자리로 꾸며진다.

한국불교문인협회는 1985년 8월 '중생을 제도하려는 부처님의 뜻을 붓의 힘으로 이루자'는 목표 아래 불자 문필가들이 뜻을 모아 만든 순수 문학 단체이다. (02)336-4907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⑧

우룡 스님(경주 함월사 주석) / 정토삼부경(11월 11일)

자력·타력 따지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야 '성불'



우룡 스님은 법회 내내 '내다'를 버리라고 강조했다. 허깨비같은 '내다'에 집착하기 때문에 인과가 생기고 이로인해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범어사에서 동산 노스님이 조실스님으로 처음 법상에 올라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동산 노스님이 절을 받고 일어나서 올라가기 위해 세 걸음을 옮기는데 금봉 스님이 "뭐라고 할래" 하고 고리를 걸었습니다. 동산 노스님이 걸어오시다가 그 자리에서 걸음을 주춤하셨어요. 그 뒤 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올라가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봉 스님이 자리에 일어나서 "차라리 펄펄 끓는 구리쇠를 마시고 벌겋게 단 쇠뭉치를 씹을지언정 그 따위 짓거리는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잘 생각하세요.

(법좌에 오르신 후 주장자를 세 번 들어 보이신 뒤)

내가 대답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은 똑똑히 들으셨을 것이고 똑똑히 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 말씀 하세요. 절집의 문답은 앞뒤가 없습니다. 선후배가 없습니다. 내 칼로 저 사람을 죽이느냐 저 사람의 칼에 내가 죽느냐가 달려있을 뿐, 세속사람이 생각하는 예의범절이 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 세 번 할 때 제가 분명히 답을 드렸으니까 똑똑히 들었다면 여러분의 일은 끝난 것입니다. 잘 간직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이번에 서울에 버스를 타고 오면서 우리나라 산천이 그렇게 심하게 멍든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을 뚫어 터널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이 참 편해졌다고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산이 울고, 산이 피 흘리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산중에 살다 보면 큰 장마가 들어서 산이 무너지기 전에 일주일가량 산이 울어요. 산이 울고 터져나갈 때 산은 '피'를 흘립니다. 처음에 시커먼 피와 같은 물이 먼저 쏟아지고 흙이 터져나갑니다. 산은 죽은 게 아닙니다. 땅은 죽은 게 아닙니다.

산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산의 수목은 우리의 털이고, 흐르는 냇물은 내 눈물 콧물 대소변과 같고, 산줄기는 우리의 뼈나 힘줄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몸에 칼을 대면 언젠가 후유증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디가 다치거나 고장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될 수 있으면 몸에 칼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이 어른들의 말씀이고 상식적으로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산천을 이렇게 멍들고 골병들도록 해 놓고 나라가 편안하고 국민들이 순탄하기를 어떻게 바라겠습니까.

계룡산에 국제선원이 있습니다. 열반한 숭산 스님께서 조계종 스님으로 만들기 위해 무상사라는 절을 만든 거지요. 거기에 오스트리아에서 온 정진 잘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이 "한국은 왜 이렇게 산을 마구잡이로 뚫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필요하면 산 표피만 조금 건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마구잡이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무너뜨리면 회복 안 되는 것이 자연입니다.

인간 몇 사람이 선이나 악을 저질렀다고 해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것만이 인과(因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천에 함부로 손댔을 때 그 과보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일에 사로잡혀 있기에 큰 테두리를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내다'를 붙들고 늘어지기에 지금 내가 저지르는 일 때문에 어떤 과보가 떨어질 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우주라는 부처님 몸을 함부로 할 때 얼마나 무서운 과보를 받을지 두고두고 겪으면서 뼈저리게 후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중략)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은 <아미타경(阿彌陀經)>과 <무량수경(無量壽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아미타경>은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어머니에게 돌아갈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입니다. 사리불 존자는 어머니 곁에서 숨을 거둡니다. 사리불 존자 어머니는 내 아들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사리불 존자의 법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다'를 붙들고 늘어지는 일입니다. 빔바사라의 부인 위제희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가둬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부모자식간이나 내외간에는 아무것도 붙들고 늘어질 것이 없는데 말이죠.

아사세가 빔바사라를 가둬 죽인 다음 왕비 위제희는 세상살이가 싫어져 부처님께 울면서 기원합니다. "이런 나라가 싫습니다. 이런 나라 말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없겠습니까. 일러주십시요"라고 기원하자 부처님께서 <관무량수경>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의 뿌리가 형제도 없고 헛된 이름인 '내다'에 있습니다.

빔바사라와 위제희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위제희가 아들 아사세를 얻기 위해 나라 곳곳에서 점을 쳤어요. 그러던 중 어떤 숲에서 오랜 수행을 한 신선에게 "저에게는 자식이 없겠습니까. 자식을 얻을 수 있다면 언제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신선이 "오랜 수행을 통해 닦은 복과 지혜가 쌓여서 당신에게는 좋은 아들이 오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숲에서 도(道) 닦고 있는 신선이 돌아가시면 당신 아들이 된다"고 덧붙여서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포은 정몽주 선생이 일주일 정도 송악산을 휘휘 돌고 온 다음 공민왕 앞에서 "이 나라 앞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공민왕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왜 그런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포은 선생이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공민왕이 "산중에서 도 닦는 것하고 나라일하고 무슨 상관인가"하고 물었습니다. 포은 선생은 "복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마음을 닦는 복인데, 산에서 도 닦는 스님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에 복 있는 임금과 신하들이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산중에 앉아 마음 닦는 복이 물질로 얻는 복보다 천만 배 뛰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염불이든 주력이든 화두든 늘 정진하세요. 거기에서 오는 복이 물질에서 오는 복보다 몇 백배 승합니다.

한편 빔바사라는 궁금증이 일어 직접 그 신선을 만나보니 한 여든 살 정도 됐습니다. 빔바사라는 "어차피 당신은 내 아들로 환생할 것이다. 당신은 고통 덜 받고 나는 자식을 일찍 얻을 수 있으니 빨리 죽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신선은 "3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3년을 못 기다리고 빔바사라가 신하를 시켜 신선을 죽입니다. 내 욕심만 생각하고 거기에 얽히는 인과를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 신선이 죽어 결국 빔바사라의 아들로 태어나 아사세가 됐지만 원한이 먼저 맺히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세가 사춘기가 되자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때 부처님 사촌동생으로 제바달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죽이고 불교교단의 장(長)이 돼야겠다는 욕심을 품고 권모술수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바달다가 아사세에게 "당신은 아버지를 죽여 임금이 되고 나는 부처님을 죽여 교단의 장이 된 뒤 둘이서 잘해 보자"하고 꾑니다. 이유 없는 반항심을 보이던 아사세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흉허물을 찾

사회 모든 악은 '내다' 하는 집착서 오는 것
마음닦는 복은 물질 복보다 천만배 뛰어나
열 가지 나쁜 습관 극복될때 '무량광불'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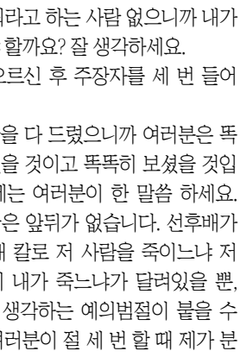
니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내다'라고 하죠? 내 몸을 해부하면 내가 나올까요? 해부를 해봐도 '내다'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안 나옵니다. 피부가 있고, 살결이 있고, 힘줄이 있고, 혈맥이 있고, 골수가 있다고 해도 '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데 우리는 '내다' 때문에 못 살죠. '내다'를 놓치면 못 살 것처럼 붙들고 있죠. 헛된 이름에 속아서 '내다'라는 이 물건 때문에 부모님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내외간에 불륜을 저지르고, 부모 자식사이에 피바람을 일으키고, 사회에 갖은 악을 저지릅니다.

<관무량수경>도 빔바사라 라는 임금과 그 아들 아사세라는 임금이 '내다'라는 집착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 그 과보 때문에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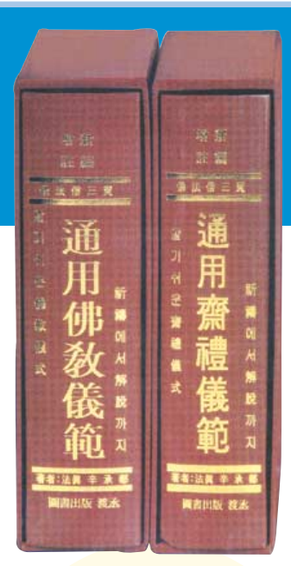
강설대법회 동영상
buddhanews.com과
bongsunsa.net에서.
셔틀버스 매주 토요일 낮12시
조계사앞 출발

알기쉬운 佛教 儀式
新刊 通用佛教儀範 案內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과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봉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왕좌왕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집하여습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겠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딴 페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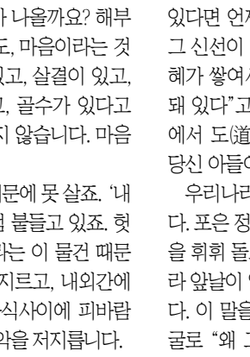
編·著者
法眞 辛承都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승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승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용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집되었으며 제목만 찾으면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1장 송 주 편 | 제2장 예 경 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 공 편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 생 | 제7장 제불보살복장단의식 | 제불보살 파불의식
제8장 점 안 편 | 제9장 이 운 편 | 제10장 수 계 편 | 제11장 고 사 편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內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하고 유 만물지 중에 유인이 最上最貴하니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祖師님께 집필하신 의식집이야 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완벽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빠르게 변해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제1장 시 식 편 | 제2장 장 의 편 | 제3장 다 비 편 | 매 장 埋 葬
제4장 四十九齋 입재(入齋) 삼우재(三虞齋) 초재(初齋) 이재(二齋) 삼재(三齋) 사재(四齋) 오재(五齋) 육재(六齋) 칠재(七齋)
제5장 재 공 편 상주권공 삼정례 천수다라니 지장청 영산대재 괘불이운 건회소 영산작법 영산각배 운수상단 운수중단 배송(拜送) 예수십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
제6장 기 제 사 | 제7장 靈魂結婚埴

■ 주문처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 도서출판 도 승 ■ 편·저자 : 법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P: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 027701 - 04 - 060958 ■ 우체국 : 013409-01-001220 예금주 :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

봉선사·현대불교 공동 주최 / 지상 중계 8

우룡 스님(경주 함월사 주석) / 정토삼부경(11월 11일)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으려고 성을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지하 감옥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빔바사라 대왕께서 숲에 가서 어떤 신선을 죽이라고 명령해 그대로 시행한 뒤 돌아오다가 붙들려 20년동안 갇혀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사세는 '존경하던 아버지에게도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가두게 됐습니다. (중략)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연등을 다는 풍습이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의미로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사세의 통곡의 참회가 깃들어 있어요.

아사세가 아버지를 죽이고 난 뒤, 왕이 된 후의 일이에요. 한번은 아사세의 어린 아들이 맨발로 다니다 가시에 찔렸습니다. 아들의 상처가 깊어져 발이 곪아 들어가자 아사세는 입으로 고름을 빨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어머니 위제희가 "대왕이시여, 당신 아버지도 당신을 그렇게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마디가 아사세에게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매일 참회의 통곡을 하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다 얻은 신경성 피부염 때문에 아사세의 온몸은 문둥병 환자처럼 진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아사세의 배다른 형 기바의 권유로 부처님께 가게 됩니다. 아사세가 부처님 앞에서 참회의 통곡을 하자 부처님께서 자애삼매(慈愛三昧)라는 정(定)에 듭니다. 그러자 부처님 몸에서 푸른 광명이 나왔고, 그 빛이 아사세를 감싸 피부병이 낫게 되죠. 그때부터 아사세왕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이듬해 4월 8일 왕사성에서 죽림정사까지 등불을 켜게 되는데 이것이 부처님 오신날 연등 다는 풍습의 출발입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불자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법당에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이야기가 곁들여지게 되죠. (중략)

불교는 보통 자력(自力)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토삼부경>에서는 타력왕생(他力往生)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정토삼부경> 이야기입니다.

나는 늘 불교 수행법은 설악산 등산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꼭 어느 코스라야만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불교 수행도 그렇습니다. 염불이건 주력이건 화두건 독경이건 모두 성불로 갈 수 있습니다. 단, 어느 하나를 붙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불교가 이상하게 돌아가 화두선이라야 성불할 수 있지 염불은 잘못된 수행방법이라고 하면서, 한평생 염불수행해온 분들을 흔들어요. 그리고는 책임을 안 집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스님을 의지하든 하나만 붙들고 그 스님에게 자주 질문을 드리세요.

원효 스님을 참선 안한 사람이라고 해서 도를 못 깨쳤다고 해야 됩니까? 원효스님 시절에는 좌선법이 없었습니다. 근래 한국불교에서 화두선만 선(禪)이라고 하는데, 넓은 뜻에선 염불도 주력도 절도 선입니다. 선은 넓은 의미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해 가다듬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이 화두선입니다. 선조사 어른들이 화두를 목숨처럼 생각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을 선반위에 올려놓고 이러이러한 사람만이 선반의 물건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릴 수 없다고 섣불리 규정짓지 마세요.

집착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몸에서 나쁜 습관이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십악(十惡)을 극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극락정토가 '십만억이라는 나라를 건너는 곳에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탐진치를 극복하기 힘드니 삼대 아승지겁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늘 습관을 제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열 가지 나쁜 습관이 극복되면 마주치는 것이 무량수불(無量壽佛)이고 무량광불(無量光佛)입니다. 무량수는 한없는 시간이고, 무량광은 한없는 공간입니다.

한없는 시간과 공간이 변하더라고 변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아미타입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우룡 스님의 법문은 쉽고 재미있게 진행돼 간간히 참석자들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다.

질의

'나' 놓고 무아에 들면 '그곳'이 바로 극락세계



화랑 스님(동국대 선학과 강사)

[질문] 불교는 무아(無我)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我)가 없는데 서방정토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명나라 때 운서주굉 스님은 "선의 세계나 정토의 세계나 다른 것이 없다. 정토의 세계도 결국 우리의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설법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룡 스님] 실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내다' '내다' 그러는데 내가 뭡니까. 나를 토대로 질문하고 나를 토대로 대답하는데 나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단 지금 이 시간 질문하는 사람과 나 사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말이 필요한 거지 말조차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집착이 없으면 무아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늘어지면 '내다'가 있습니다. 저는 농담 삼아 "살고 싶은 사람은 절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 "죽고 싶은 사람만 절에 오라"고 그럽니다.

불교는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내다'를 죽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금강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다' 때문에 벌어지는 모순을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집착 때문에 아(我)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절에서 천도재를 지낼 때 "당신(영가)에게는 원래 깨끗하고 좋은 '자리'가 있다. 여기에 복귀하는 자정 능력이 당신에게 있으니 생각을 바꾸십시오"라고 합니다. 천도재는 스님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가의 자정능력을 되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이 <금강경> <아미타경> 등을 몇 천 독, 몇 만 독 하면 일부러 스님에게 부탁 안 드려도, 음식을 안 차려도 됩니다.

서방정토는 대우주에 원래 구성돼 있는 극락입니다. 염불이든 주력이든 화두든 하다보면, 어떤 시간 어떤 공간에서 제3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서방정토나 극락이라고 합니다. 서쪽은 백색의 세계, 청정의 세계, 모순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꼭 서쪽이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쪽이건 남쪽이건 북쪽이건 수행하는 사람이 체험하는 세계, 거기에서 만나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고 그곳이 극락입니다. 극락은 실제로 있습니다. 염불을 하든 주력을 하든 화두를 하든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 극락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토왕생 하려면 願 세우고 부단히 정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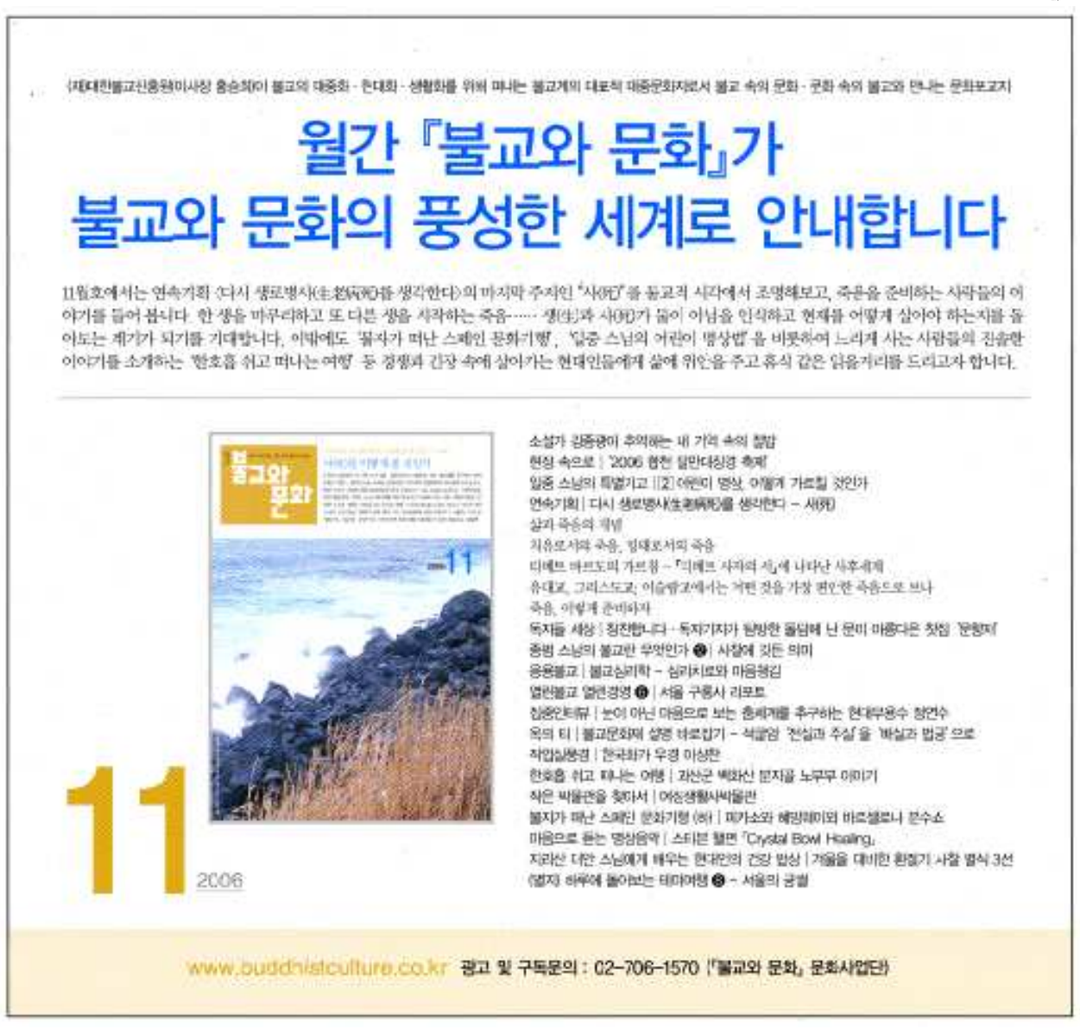


송재근(창원대 철학과 강사)

[질문] 우리가 아는 불교는 자력불교입니다. 또 인과를 자업자득의 대원칙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토사상에서 이야기하는 타력신앙은 자업자득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타력사상을 말하는 정토사상이 선불교를 표방하는 우리불교에서 대중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룡 스님] 열반하신 관응 스님은 "부자라고 해서 모두 미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미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무엇을 이루려면 먼저 원(願)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 불교를 의지한다, 정토왕생한다고 하는 것도 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토왕생하는 첫째 조건이 원이고 발심입니다. 정토발원을 하신 이는 먼저 계(戒)·정(定)·혜(慧)를 닦아서 신(身)·구(口)·의(意) 삼업(三業)을 맑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계의 그릇이 깨끗해야 정의 물이 맑고 정의 물이 맑아야 지혜의 달이 비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속에 안정 침착이 이루어지고 안정 침착 속에서 슬기로운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갈 때 우리의 일상생활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관응 노스님의 "돈이 있다고 다 미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미국을 가고 싶다, 가야겠다는 생각에 미국 갈 준비를 하듯 우리가 정토왕생의 원을 일으켜도 실천하는 노력 곧 나의 마음가짐, 몸가짐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염불을 곁들여 지혜가 날로 깊어지고 그 지혜 속에서 선정(禪定)을 겪으면서 차츰 부처님 나라에 가까워지면서 정(定)속에서 직접 부처님을 뵙고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내면서 차츰차츰 향상해야 정토왕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토왕생을 원하고 가르쳐주신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옛 어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정토 왕생을 일러주셨고 실천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른의 말씀을 거울삼아 부지런히 수행을 하면 모두 쉽게 정토왕생, 즉 성불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힘써 정진하십시오.

정리=남동우 기자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달마 관음 지장

뒷면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 달마 3호-그림: 30×40cm
- 달마 4호-그림: 40×50cm



-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아茶茶! 옥에 티…

드라마 속 차 장면 '오류 투성이'

'사극 전성시대'다. 현재 MBC의 '주몽'과 SBS의 '연개소문', KBS 2TV의 '대조영' 등 방송사마다 경쟁적으로 대형 사극을 제작·방영하고 있다. 고구려와 발해를 시대배경으로 하는 이들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찻자리' 장면이다. 하지만 명나라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자사호가 신라시대에 등장하는가 하면, 잎차를 마시지 않았던 수나라 황제의 찻자리에 개완배가 놓여있는 등 오류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드라마 속 '옥에 티'를 찾아보고, 드라마에서 당시의 차문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난해 방영된 KBS 드라마 '해신'(위)과 SBS 연개소문의 한 장면. 사진제공=KBS · SBS



지난해 5월 방영된 KBS 2TV 드라마 '해신'. 신라시대 청해진을 건설한 장보고가 주인공인 이 드라마에서, 상단을 이끌며 무진주 상권을 휘두르는 귀족 여장부 자미부인은 혼자 있을 때면 늘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흔히 '자사호'라 불리는 찻잔이다.

'해신'서 명대 자사호가 신라시대때 등장
'연개소문'은 수의 병차에 잎차 다구 사용
차문화에 대한 체계적 고증 · 연구 없기 때문

우리나라의 고구려 말기, 중국의 수나라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SBS의 '연개소문'. 드라마 속 수(隋)나라 황제 문제(文帝)가 부인 독고황후에게 차를 건넨다. 이때 수문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숙우, 황후와 수문제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개완배(蓋碗杯)다. 중국 수나라 상단의 후계자로 성장하고 있는 주인공 연개소문 역시 잎차를 우려마시는 다관과 찻잔을 곁에 두고 책을 읽고 있다.

단적인 예지만, 두 드라마 모두 신라시대와 수나라라는 당대 차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마시던 차의 종류가 잎차인지 덩어리차인지, 사용하던 다구가 다완인지 찻잔인지 따져보지 않은 탓이다.

우선 '해신'의 경우 자미부인이 신라시대의 귀족이라면 잎차가 아닌 '단차'를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 하대의 학자 최치원은 그의 시문집 <계원필경(桂苑筆耕)>에서 당시 귀족들의 차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글을 남기고 있다. 중국으로 유학 간 최치원은 중국차를 구해 고향의 부모님께 보냈는데, 그가 보낸 중국의 차는 병차(餠茶,떡차)였기 때문이다. 당나라 760년 경 육우가 쓴 <다경(茶經)>에 따르면 당나라 시대의 병차는 맷돌에 차를 갈아 가루로 만든 후 찻물에 넣어 끓여 마셔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토기잔이나 다완(茶碗)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명나라 시대에 제작되기 시작한 자사호가 신라시대에 등장하는 것 역시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드라마 '연개소문'에 등장하는 수 문제는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 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전할 정도로 차를 즐겨 마신 인물이다. 그는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남쪽지방의 차가 북쪽으로 쉽게 운반될 수 있도록 해 차문화 확산에도 일조를 했다.

수나라의 차문화는 이후 당나라의 차문화의 모태(母胎)가 되므로, 이때 역시 병차 위주의 차생활을 즐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된 잎차 다도구와 개완배가 시대와 맞지 않는 이유다. 차의 온도와 향을 유지하기 위해 다완에 뚜껑을 덮은 개배(蓋杯)나 개완(蓋碗)이 등장한 것을 명대 후기이고, 잎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마시는 포다(泡茶) 다구 역시 명대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왜 드라마 속 차문화는 당대의 차문화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일까? 동양차도구연구소 박홍관 소장은 "조선시대 이전의 차생활과 차도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그보다 작가나 드라마 제작진들이 해당 시대 차문화에 대한 철저한 고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 궁전 · 주거 형태 등에 대한 고증과 연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 것과 달리, 차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년 '고려 다례' '백제 다례' 등을 고증해 발표하고 있는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드라마라 하더라도 우리 전통 차문화를 올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방송 모니터링이나 전문가 자문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명원문화재단은 매년 명원차문화상 시상식 때 시대별 헌다의식을 재현해 발표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日, 센 겐시츠 대종장의 <일본 다도의 마음> 국내 소개



일본 다도계의 최대 유파 우라센케(裏千家)의 수장인 센 겐시츠(千玄室, 83) 제15대 대종장(大宗匠)이 쓴 <일본 다도의 마음>이 국내에 소개됐다.

이 책은 2002년 일본에서 발간된 것으로, 중앙대 박전열 교수(한일문화연구원장)가 우리말로 옮겼다. 책은 차를 내는 마음과 다도구 · 찻자리 꽃 · 다실 · 다과 등 차문화 전반에 대한 센 겐시츠 대종장의 단상과 그의 동생이 쓴 간단한 해설, 찻자리 사진을 곁들인 화보집이다.

'다도의 마음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려는 마음'이라는 센 겐시츠 대종장은 "다도는 어마어마한 작법이 아니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인생의 좋은 길잡이이자 종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다"고 설명한다.

센 겐시츠 대종장은 16세기에 일본의 다도를 완성한 센 리큐(千利休) 거사의 15대 직계손으로, 지난 50여년 간 '다도'를 통한 평화활동에 앞장 서 왔다. 일본 문화훈장을 비롯해 이탈리아 코멘다토레 문화훈장, 브라질남십자성 훈장, 프랑스 레종 도뇌르 훈장을 수여했고 지난해에는 중앙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월간 다도, 2만3천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흥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인류 문화속의 茶

16. 정신의 음료

④ 다선(茶仙) 육우

당대(唐代)는 중국 역사상 가장 휘황찬란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시기로 정치 · 경제 뿐 아니라 문화교류 역시 활발했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특히 차는 이런 경제 · 문화의 번성이라는 큰 기류 아래서 음다(飮茶) 풍습이 남방에서 북방으로, 변방의 각지까지 전해져 생산량이 확대되고 차를 안 팔고 안 마시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사대부들은 벼슬에 나가기위해서 과거에 응시했는데 응시자들의 답답함과 감독관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조정에서 특별히 다과(茶果)를 시험장에 보내 사대부들 사이에 음다의 풍속이 자연스럽게 전달됐다. 술을 마실 줄 모르는 많은 시인들이 차를 즐겨 마셨으며, 좋은 물과 좋은 산을 찾아다니며 산수를 즐기고 차를 마시며 시를 짓는 것이 하나의 풍속이 됐다.

또한 왕실의 무절제한 생활로 인하여 귀족들은 항상 정신이 혼미하고 피로가 누적되고, 과식으로 체증이 있었다. 그들은 정신을 맑게 하고 소화를 시키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차를 마셨다.

이러한 차를 공급하기 위해 조정은 각 지역에서 질 좋은 차를 공납케 하여 공차(貢茶)제도가 생기게 된다. 왕실에서는 일반 승려나 사대부와는 달리 명차(名茶)와 명수(名水)에 사치스런 다구인 금 · 옥으로 된 다기를 사용하였다.

조정에서는 안사의 난(755~763)으로 곡식의 생산량이 줄어 술을 대량으로 만들 수가 없게 되자 금주령을 내렸다. 술의 가격은 너무 비싸 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차를 마시게 되었고, 문인들은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에 이로운 차를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당초(唐初) 이래로 차 생산의 확대와 음다 풍속이 성황을 이루었지만 차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차의 깊은 뜻과 묘한 절경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육우는 차의 전문서적을 쓰기 위해 다년간의 유랑생활을 끝내고 호주에서 차에 대한 최초의 전문 서적을 저술하게 된다. 차의 고장인 강남의 맑고 아름다운 산수 속에서 생활하면서 유명한 시인과 명사들과의 교우는 그의 저술에 영향을 주었다. 육우는 어려서부터 지적법사에게 불교의 교리와 차 따고 끓이는 법을 배웠고 차에 대해 깊은 흥취를 갖고 있어 차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지적법사는 육우가 떠난 뒤에도 그의 차 달이는 맛을 잊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이다.

이 당시 경전에 대한 공부는 사대부들의 정도였지만 다예(茶藝)는 정통적인 학문은 아니다. 육우도 다른 사대부들처럼 유가학설에 아주 익숙하였으나 일반 문인들과 다르게 유가적 학설에 구속받지 않고 심오한 원리를 차에 용해시켰다. 차에 대한 초고(初稿)는 안사의 난이 평정된 해인 763년, 그의 나이 28세에 저술되었다. 그 후 역대의 차사(茶事)를 수집하여<다경>을 보충하고 결국 10여년에 걸쳐 완성하였다.

역대 차사(茶事) 수집 10여년 걸쳐 <다경> 저술
음다 뿐 아니라 철학까지 다뤄 예술로 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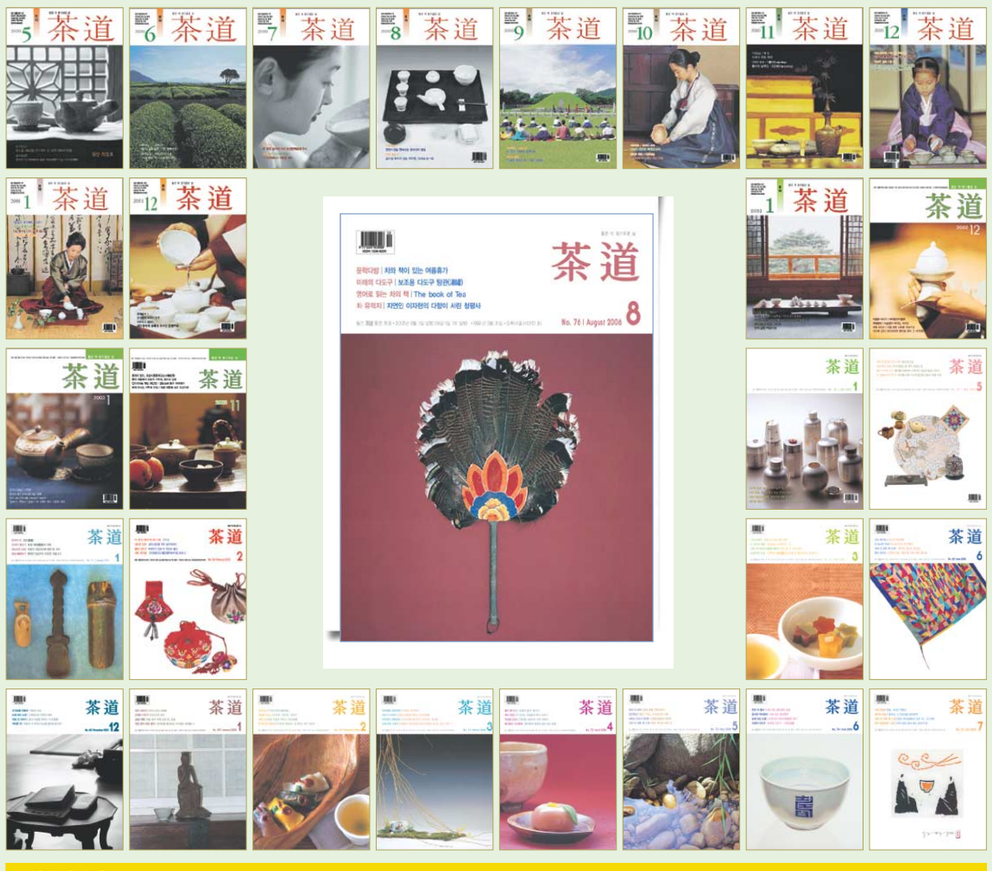


당대(唐代) 작자 미상의 <궁악도(宮樂圖)>.

육우는 <다경>을 저술해 차 문화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였고 차의 생육과 음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차에 배어있는 사상과 철학을 말하여 차 문화를 총체적인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는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융화하여 중국 전통문화의 특징을 살려 격식을 이루고 맑고 새로운 차 문화라는 형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다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차를 더욱 잘 알게 되자 조정에서 그를 태자문학으로 임명하였으나 관직에는 관심이 없어 산수를 즐기며 일생을 보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진흙으로 그의 형상을 만들어 집안에 두고 다신(茶神)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특히 차를 파는 집에서는 장사의 수호신으로 육우 도상을 장식해 내는 풍습이 있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茶道
茶道
茶道

면생리대로 건강 챙기고 자연 살리자

유명회사 제품서 환경호르몬 검출 충격
만들어 쓸땐 1인당 나무 2만그루 절약
'맑고향기롭게'서 '달거리대 만들기 강좌'

플라스틱 용기의 유해성 논란에 이어 여성생리대에서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생리대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기업들 간에 '인체에 유해하다' '아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품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6년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 부적합 판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의 생리대 6개 제품이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을 어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두통과 피로·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환경호르몬 검출 파동 이후 여성들이 '천 생리대'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천 생리대는 면이나 융 등의 천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여러번 빨아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환경호르몬 등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평균적으로 여성 한 명이 평생 약 1만2천여 개의 생리대를 사용하는데 천 생리대를 쓸 경우 나무 2만 그루를 아끼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녹색연합과 피자매연대 등 환경·여성단체에서는 2년 전부터 천 생리대를 제작해 홍보해 왔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는 지난달부터 한 달에 한 번 '순면 달거리대(생리대)' 만들기 강좌를 여는 것은 물론, 집에서 간단한 바느질만 하면 완성할 수 있는 재료도 판매하고 있다.

이수진 간사는 "탐폰이나 생리대는 제품을 표백하는 과정에서 암과 자궁내막증을 일으키는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된다"며 "시판 생리대는 생리통과 피부 짓무름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기 시 다이옥신이 땅으로 녹아드는 등 환경에도 치명적"이라고 설명한다. 삶고 소독하는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천 생리대를 이용할 경우 피부 보호와 생리통 예방에도 좋고 자연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융으로 만든 생리대는 사용 후 물에 담가두면 쉽게 세척할 수 있으며, 1인당 10개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맑고향기롭게에서 '순면 달거리대 만들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희(36)씨의 도움말로 천 생리대 만드는 법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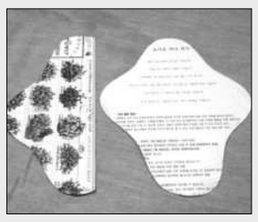
글·사진=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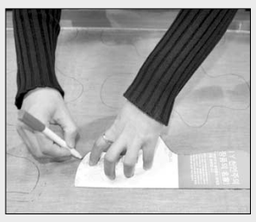
구입은 여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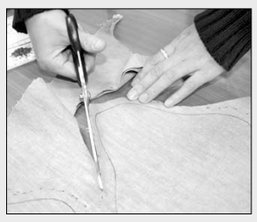
● **맑고향기롭게 (02-741-4696)**
매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7시 강좌 진행.
참가비 3천원(생리대 1개 재료비 포함)
완성품 소형 3천원, 대형 3천원, 2개 5천원
재료(커버재료+패드+버튼) 1개 3천원, 2개 5천원

● **에코붓다(02-587-8997)**
대형(135cm 3개) 5천원, 중형(90cm 4개) 5천원
소형(60cm 6개) 5천원, 생리대커버 2천원

이렇게 만들어요


1. 책받침이나 단단한 종이에 본을 그려둔다. 소형은 길이 약 23cm, 대형은 약 28cm 정도가 적당하다. 본의 가운데에 중앙선을 그려두면 천의 결을 맞추기가 쉽다.


2. 부드러운 플란넬천이나 아기 배냇저고리에 많이 쓰이는 융 등의 천을 준비해 본을 대고 그린다.


3. 본 테두리의 1cm 정도 바깥에 시접선을 표시해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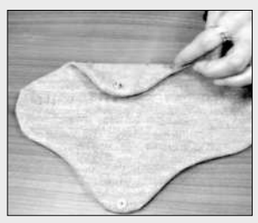

4. 시접선을 따라 천을 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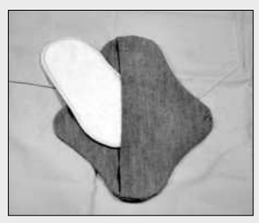

5. 천의 올이 풀리지 않게 시접 처리한다. 천의 끝선을 접어 올려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 홈질로 박아준다.


6. 세 장의 본을 겹쳐두고 본의 테두리를 반박음질로 꿰맨다.


7. 다 꿰매진 본은 시접선 바깥이 0.5cm 정도만 남도록 잘라준다.


8. 천을 뒤집어 모양을 잡는다.


9. 천의 날개 앞과 뒤에 각각 암·수 버튼을 단다.


10. 완성된 생리대의 안에는 흔히 '타올지'라고 부르는 천으로 만든 패드를 넣어 사용한다. 타올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2장 겹쳐 바느질하면 된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39〉

다시마 샐러드와 파래 감자전





길을 걷다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찐빵과 만두를 파는 곳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찐빵과 만두를 보니 어느덧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퇴근길이면 따끈한 찐빵 하나 입안 가득 베어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겨울이 되면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몇 해 전 겨울, 한 방송사에서 의뢰가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찰에서 해조류로 만들어 먹는 사찰음식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인연이 있던 스님이 머무시던 망해사를 추천했고, 스님께 전화를 드려 촬영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있는 절이라고 해서 특별한 해조류 반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역국이나 다시마쌈, 파래무침 등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을 바닷가 사찰에서도 즐겨 먹는 정도이지요. 담당 PD 역시 '특별한 바닷가 사찰음식'을 기대했다가 약간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음식을 고민하던 스님과 저는 미역귀와 감자를 함께 이용해 조림을 하고 파래로 전을 하는 것으로 방송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때 느꼈던 망해사의 겨울은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파란 바닷물이 큰 파도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모습과 스님의 단아한 웃음, 때 묻지 않은 사하촌 주민들의 인심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 다시 한 번 망해사를 찾아 을씨년스러운 제 마음도 정리하고 모처럼 스님도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의 반가운 미소와 바닷가의 짭쪼름한 향기가 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만드는 법**



〈다시마 샐러드〉 재료: 쌈 다시마 1줄기, 양파 1개, 양배추 약간, 오이 1/2개, 소스(사과식초 3큰술, 포도씨유 3큰술, 다진 청·홍고추 1개분씩, 설탕 약간, 표고버섯물 1큰술, 물엿 1큰술, 통깨 갈아서 2큰술)

① 쌈 다시마는 물에 여러 번 헹군 다음 5cm 길이로 자른다. ② 쌈 다시마는 돌돌 말아서 곱게 채 썬다. ③ 채 썬 쌈 다시마는 뜨거운 물에 데쳐내 물기를 빼준다. ④ 양파와 양배추, 오이는 곱게 채 썬다. ⑤ 간 통깨와 분량의 재료를 섞어서 소스를 만든다. ⑥ 채 썬 다시마와 양배추, 양파, 오이를 순서대로 담은 뒤 소스를 뿌려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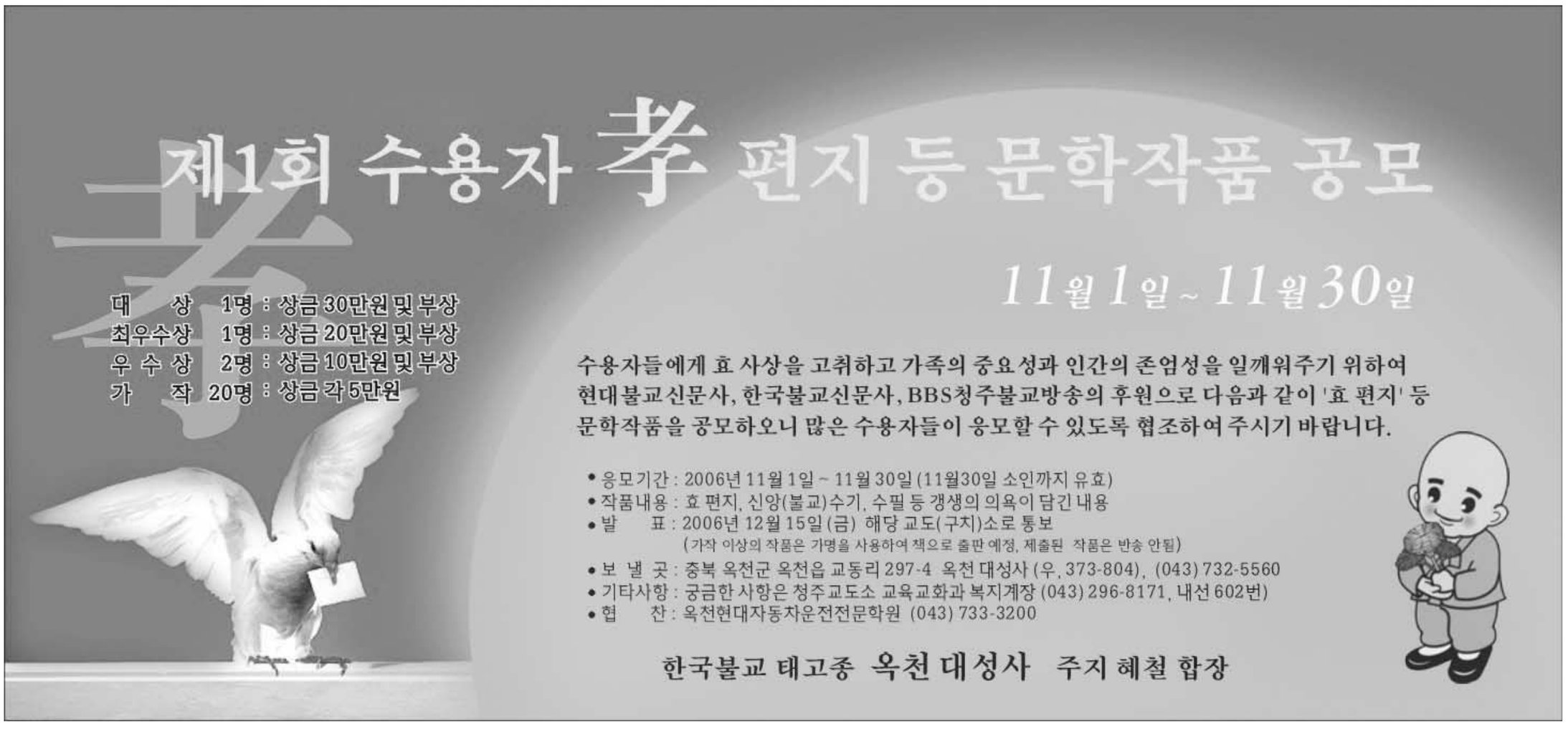


〈파래 감자전〉 재료: 감자 1개, 파래 1줌, 통밀가루 2큰술, 포도씨유 약간, 소금 약간, 양념장(간장 2큰술, 식초 1작은술, 통깨 조금)

① 감자는 껍질을 벗겨 믹서에 간다. ② 파래는 흐르는 물에 씻어 물기를 빼 건져준 후 잘게 자른다. ③ 갈아놓은 감자에 파래를 섞어주고 통밀가루와 섞어 반죽을 만든다. ④ 프라이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한입 크기로 부친다. ⑤ 분량의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함께 낸다.

▶다음 주에는 우엉단호박 샐러드와 단호박 두부죽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한국 인문학 중흥 · 세계화 코드 불교에 있다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

이어령 박사 초청 특강

동국대 정각원(원장 종호)과 불교TV(회장 성우)는 동국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11월 15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이어령 박사(前 문화부장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한국 인문학의 뿌리는 불교'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어령 박사는 "한국문화와 인문학의 원형은 불교에서 출발하며, 한국 인문학 중흥과 세계화의 핵심코드를 불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의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오늘 강의가 추상적이거나 담론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망매가' 한편을 자세히 분석해 가며 왜 불교가 한국의 모든 학문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나 서양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왜 불교를 알아야 하며, 더욱이 한국의 인문학을 알아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문학은 무엇일까요? 인문학은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등과 같이 무슨 직업을 갖고 무엇을 연구하든 간에 이런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하고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주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문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문학을 하다보면 불교를 믿든 안믿든 한국 역사의 근원지가 바로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학문은 자연과학입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는 학문이 아닙니다. 종교의 세계는 인간의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명해서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 하는 것, 그것은 원래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도를 알고 싶으면 간접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출가해서 성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자연과학과 불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지혜입니다. 이를 공부함으로써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을 그리워 하고 부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불심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이며, 또 그중에서 불교는 특히 뿌리중의 뿌리입니다.

제가 이 설명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왜 물이 나올까요? 저 멀리 수원지가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것이지, 수도꼭지 자체만 있다면 과연 물이 나오겠습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틀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어떤 학문이든 그 뒤에 수도관과 수원지가 있어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문학이라는 수원지가 있음으로써 다른 학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력, 총체적 인간의 생각들이 담긴 큰 수원지를 바로 인문학에서 다루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은 수도꼭지의 존재만 알고 수원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스스로 인문학의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수원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운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불교가 인문학의 텃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를 안 믿는 사람도 바로 여러분들 옆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든 천주교를 믿는 한국인의 삶은 항상 불교속에서 존재합니다. 그 예로 일상속에서 하는 말을 보면 불교에서 나온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지를 따라 계속 추적해보면 전세계가 바로 근원지입니다. 예를들면 '아수라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나쁜 아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불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아수라란 말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고전인 베다경전에 보면 '아수라'는 강하고 힘찬 신을 뜻했고, '아후라'는 아주 온순하고 온화한 신을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듯 인문학의 뿌리인 불교도 결국은 더 깊이 박혀 있는 뿌리를 좇아올라가면 세계 여러나라의 종교나 역사와도 결부가 돼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한국 인문학의 뿌리 중 뿌리"라고 강조하는 이어령 박사. 이 박사는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특강에 초청돼 '한국인문학의 뿌리는 불교'를 주제로 2시간 30분동안 열강을 했다.

인문학은 '설명할 수 없는 것' 설명하는 지혜
일상용어를 봐도 한국인의 삶 불교속에 존재
제망매가의 '生死路'는 '삼사라(윤회)'로 읽어야
불교공부 함께 해야 진정한 인문학 공부

베다경전이나 불교 경전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던 '아후라'는 신라 향가인 처용가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역사나 문학은 불교를 모르고는 사실상 깊이있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지껏 불교도 모르면서 신라향가를 공부한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불교를 함께 공부하면서 신라의 향가 즉 인문학을 공부한다면 남들이 못하는 획기적인 인문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인문학의 뿌리이니까 말입니다.

특히 불교를 공부하면서 '제망매가'를 읽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망매가'는 월명 스님이 자신의 여동생이 죽으니까 재를 올리면서 그 슬픔을 노래했더니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지전을 서방정토로 가져갔다는 내용입니다.

<삼국유사>에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시이지요. 그런데 이두를 모르면 '제망매가'는 읽을 수 없습니다. 이두는 한글이 나오기 이전이니까 말은 우리말인데 글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쓴 것입니다. 주로 스님들이 이두를 만들고 시를 지었습니다. '제망매가'를 대표적으로 해석해 놓은 사람이 양주동과 김완진 박사입니다. 이 해석들은 불교를 모르고 한 것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는 '제망매가'를 불교적인 관점에서 쓴 월명 스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제망매가 전문
生死路隱(생사로은)
此矣有阿米次 肹 伊遣
(차의유아미차힐이견)
吾隱去內如辭叱都(오은거내여사질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모여운견거내니질고)
於內秋察早隱風未(어내추찰조은풍미)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이의피의부량낙시엽여)
一等隱枝良出古(일등은지량출고)
去奴隱處毛冬乎丁(거노은처모동호정)
阿也彌陀刹良逢乎吾
(아야미타찰량봉호오)
道修良待是古如(도수량대시고여)

생사의 길은 여기에 있으매 져히고
나는 갑니다 하는 말도 다 못하고
가버렸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한가지에 낳아 가지고
가는 것 모르누나
아아 미타찰에서 만나볼 나는
도를 닦아 기다리련다.
(양주동 해독)

삶과 죽음의 길은
이(이승)에 있음에 머뭇그리고
나는(죽은 누이를 이름) 간다고 말도
못 다 이르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같은 나뭇가지(한 어버이)에 나고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으 극락세계에서 만나 볼 나는
불도(佛道)를 닦아서 기다리겠다
(김완진 해독)

'죽고사는 길은 여기에 있으매 두려워'에서 양 박사는 '져히고'라고 했고 김완진씨는 '머뭇그리고'라고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두 학자 다 똑같이 번역한 첫마디 죽고사는길 즉 '생사로난'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이두는 음을 옮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어인 '삼사라(Samsara)'를 이렇게 '생사로'로 옮긴 것입니다. '삼사라'는 바로 '윤회'란 의미입니다. 이는 여러생물체들이 평생 죽고사는 것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죽고사는 생과 사를 의미한다면 이것은 불교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마지막 줄에 '도닦고 기다린다'는 말도 니르바나(열반)로 읽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삼사라'의 반대말이 열반 아닙니까? 그래야 앞 문장과 맨 끝문장이 내용상 호응이 잘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사라'라고 했을까요? 한자로 번역해야 되는데 중국에는 윤회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한자에서 음도 베껴오고 뜻도 비슷한 것을 찾다보니까 '삼사라'란 단어를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는 윤회를 전부 '생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생사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사라'의 음을 번역한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윤회의 길이 여기 있으매 나는 두려움을 잊고 간다'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윤회와 그냥 죽고사는 길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의 시 구조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삼사라'와 직접 통하는 우리네 삶은 고통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고통중에서 가장 큰 것이 생로병사 4고 이지요. 이 고통들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 담론이며 신라향가의 주된 주제입니다. 글자 하나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전체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시를 쓰는 사람들이 불교사상의 내용만을 쓴 것이 아니라 불교사상의 논리를 시적 구성으로 삼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시속에는 사제 즉 고제, 집제, 멸제, 도제가 녹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제는 의사가 환자를 고칠때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맞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진찰을 하죠.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원인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주지요. 또한 그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의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도를 닦는 것입니다.

환자를 고치는 과정을 바로 알기 위해서 불도를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최초로 설법 하신 바로 사제입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의미를 되새겨보면 '윤회의 길이 여기 있으매 두려워 나는 가노란 말도 못하고 갔는가' 이 대목에서 고통이 제일 먼저 나왔죠? 바로 고제입니다. 자기 여동생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보다는 여동생이 죽기 이전에 윤회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어디서 오죠? 가을이 오고 낙엽이 지는 것, 바람에 휘날리는 것 등등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가지에 낳고도 떨어져서 제각각 흩어지는 것 결국 죽음이 그 원인이지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지고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없애는 것이 새로운 세계인 '미타찰' 즉 극락세계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극락세계는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를 닦아야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도제죠. 그래서 이 시는 이 네가지의 '고집멸도' 순으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문학의 뿌리가 불교에 있다는 것을 신라향가인 '제망매가'의 해석을 통해 보여드린 만큼 인문학 공부를 위해서 불교도 함께 해야 깊이있는 진정한 인문학 공부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제 명 공 고

세계불교 법 륜 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 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위 회원은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정관
제7조 8조 및 형법 제283조, 제307조,
제311조에 의거 고발조치와 본회회원으로서
서기 2006년 11월 13일자로 제명한다.

불기 2550(2006)년 11월 13일

공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석회암**
고 문 **무송 · 송산**
총 재 **운산**
부 총 재 **혜정 · 혜안**
부 회 장 **마정 · 법장 · 정림**
이 사 **법인 · 향운 · 법성 · 구화**
덕진 · 대명 · 혜공 · 지도
석정 · 법천 · 정산 · 일초 · 대광
사무총장 **법봉**

서울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건물
전화 02)3436-0797 / 팩스 02)2201-0796



正宇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확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信心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正宇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방한용 털신



털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法!

수계를 받는 마음 자세

문 해마다 수계법회를 통해서 오계도 받고 연비도 받고 법명도 받는데 그러면 어떤 복덕이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 불자들이 부처님의 수계를 받는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답 우리가 항상, 마음에서 고장난 것은 마음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돼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녹이면서 생동력 있게 또 걸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억겁을 천차만별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날까지 진화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육통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통이 돼서 말입니다, 그 안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의식들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나 하나만이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한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몸뚱이를 한마음으로서 이끌어 나가려면 내 마음 자체를 움죽거려야 이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그대로 잘하고 나간다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이 다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털구멍을 통해서 바로 나가서 조절하고, 안에서 모자라는 건 작용을 해서 채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줍니다. 즉 마음을 따라서 의식이 하기 때문에 의식은 보살로 화하고, 다스리는 중심은 바로 부처님으로 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하시면 의식들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 쓰는 대로 이 육신 속에 있는 의식들도 따르니까, 마음공부들 열심히 해서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들고 난다면 그것을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의 생명의 의식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나투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이게 전부 수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에는 오계를 설하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그냥 전체 다섯 가지가 다 '마라'로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샛문을 틔워 놓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분수를 알고 마셔라. 남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생을 하더라도, 짐승을 죽였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에 맡기고 하면 그대로 두 마음이 아니니까, 살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살아난 사람의 마음이나 죽는 고기의 마음이나 전부 한마음이 돼서 고기는 고기의 허물을 벗고, 모습을 벗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쪽에는 그 고기의 살을 약으로 먹으니 병이 나아서 좋고,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스스로 남을 위하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거고 남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남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하고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마음으로 벗어야지 만약에 말이나 이론으로 벗으려면 벗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만날 말씀해 드리는 게, 부처님 말씀하신 것에 입을 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열심히 하셔야죠.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형상도 내 형상이고 부처님의 법도 내 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둘 아니게 생각하면서 배우신다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직결되어 있는 줄이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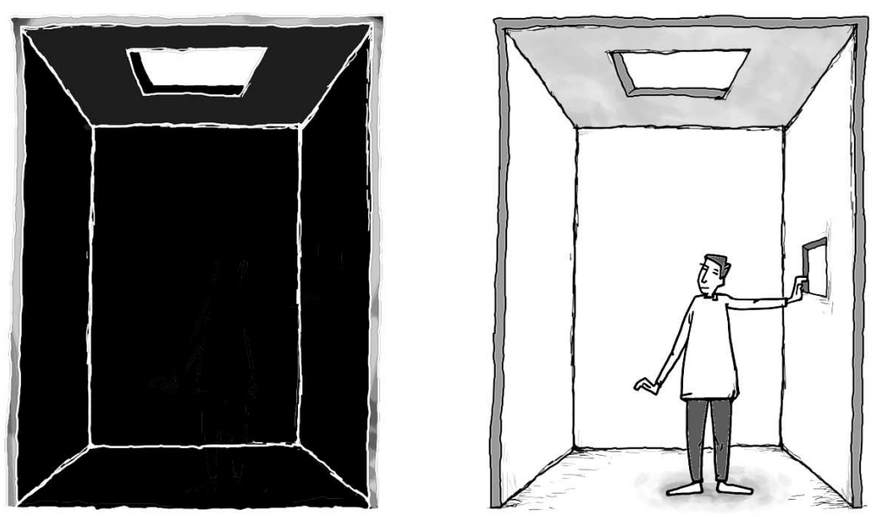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전기를 방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가발전소에서 가설이 돼야 전력이 들어오죠, 가설이 돼야. 그런데 가설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줄과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이렇게 직결이 돼 있어요. 전기 가설이 돼 있듯이 말입니다. 가설이 돼야 불이 들어오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즉 우리들의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단 얘깁니다. 전기 가설은 다 돼 있는데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으니 이게 불이 생전 가야 들어옵니까? 그걸 누를 줄을 모르고 누르는 거를 해 놓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스위치를 누를 줄을 알아야 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이익이 갈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을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조상을 이끌어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로, 오계를 받고 그대로 지키면서 공부하는 데에 따라서 요다음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주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또 우리가 한 철 살다가 갑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옷을 벗고 다시 나올 때에 차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해 가지고 나옵니다. 이 공부는 자유자재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물리가 터져서, 천체 물리가 터져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그 자유권 말입니다.

자각을 계속해야 하는지?

문 보조 스님의 수심결을 읽다가 문득 보고 듣는 이에 대해서 자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생활 중에 될 수 있으면 잊지 않으려 하지만 때론 자각되기도 하고 어느 땐 잊혀지기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행 중 이러한 경계가 바른 것인지요. 수행에 있어 이러한 자각을 염념상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몰록 놓고 가야 하는지 여쭈옵니다

답 그래서 나는 콩나무로 가끔 비유를 합니다. 어저께 콩씨를 오늘 아침에 심었더니 콩나무가 나더라. 그런데 그 콩나무는 어저께 콩씨가 자기 몸으로 화(化)해진 것을 모르고 어저께 콩씨를 찾느라고 바깥에서 애쓰더라. 오늘의 콩나무로 화한 콩나무는 그 콩나무에 바로 콩이 열렸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가 그 콩씨를 바깥에서 찾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움죽거릴 수 있고 작용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참생명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선은 움죽거리지 않지만 자기가 움죽거리는 것은 바로 바퀴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봉은 움죽거리지 않듯이 그렇게 광대무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콩씨가 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또 안으로 굴려서 자기가 나침반을, 중도를 세워서 항상, 입으로 나쁜 말이 튀어나오더라도 안으로 굴리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서 인연을 맺고 또는 그렇게 해 나간다면 우리가 아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뜻을 그대로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꼭 알아야 할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대 돌아가는 것을 세계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면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각자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 생명선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 음파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빛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광명선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컴퓨터의 조절이라든가 영사기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인과의 조절이라든가 또는 탐지기의 조절이라든가 무전기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자연적으로 자기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물질과학이니 문명이니 문화니 철학이니 하는 모든 과목도 바로 인간에게서 주어지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질과학으로서, 문명으로서 이렇게 발전된 것을 기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서 죽어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앞장서서 이끌 수 있는 그런 만능적인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다고 아주 그냥 야단들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게 뭐 있습니까?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혼자 먹지 않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서로서로 먹고 사는데. 이것은 과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의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느 과목이든 들어가지 않는 과목이 없어서 심성천체물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禪)과 학(學)은 둘이 아닙니다. 몸과 자기 불성도 둘이 아닙니다. 콩씨와 콩싹이 둘이 아니듯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거는.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으니까요. 진짜로 '아이고, 나는 바빠서 할 사이가 없어서 못합니다.' 요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럴 때 보면요, 난 저절로 웃음이 나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아니,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게 자기가 태어났으면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자기가 또 콩씨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고는 살아나가는데 아이, 글쎄 누가 백일기도를 하랬나, 누가 삼천 배 절을 하랬나?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앉아서 '주인공(主人空), 너만이 네가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어.' 하고 관(觀)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서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관하고, 앉으나 서나 변소에 가나 더럽고 깨끗한 게 불법엔 없으니까, 변소에 가나 어딜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냥 통하는데 뭐가 바빠서 못합니까, 글쎄. '난 참, 바빠서.' 하고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만 끄달리던 분들도 안으로 관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내가 있으니깐 모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콩씨와 콩싹은 떼려야 뗄 수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자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선업으로 자식이 생기는 일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면, 자손들도 원수로 태어났다면 말도 못하게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또 선업으로 태어났다면 그 가슴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주어서 흥락하게 만듭니다. 또 원수가 아니고 업장으로다가 만났다 이런다 하면, 극하게 그렇게 나가서 그냥 온통 그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녹이려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도 아니 됩니다. 말로 한다면 오히려 더 빗나가요. 아주 듣기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때렸다 하면 '아이, 요놈 때렸어!' 하곤 그냥 또 나가죠. 여러분도 참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녹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 '업장이 생기게 한 것도 너고 업장이 안 생기게 한 것도 너고,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 같이 공(空)했어. 나는 내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너만이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딱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기만 하라 이런 겁니다. 개미도 나가서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아는데 어찌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 살 궁리를 안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모두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허깨비 같은 몸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선과 더불어 거기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체, 몸을 움죽거릴 수 있는 그 자체, 삼합(三合)이 공존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여여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비교할 때 항상, 어저께 부처와 오늘 부처가 둘이 아니며, 그럼으로써 여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는 그 점을 상세히 생각한다면 그대로가 부처님 법이며 그대로가 가르침이며 그대로가 행이며 그대로가 여여한 줄을 알 겁니다.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직결되어 있는 줄이 우리들 근본의 줄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림 · 최주현

두려움 없이 시험을 보려면…

문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회에 다니면서 스님 법문 중에서 '내가 없다. 나를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듣고 지금은 내가 없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순간순간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요, 시험도 시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일과로 생각이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밖에 안 듭니다. 그런 제 마음에 대해서 스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하게 치를 수 있게 그렇게 마음내 주기를 바라

☞30면으로 계속

할 것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하고 살아야

☞29면에서 계속

고 여기 섰습니다. 마음내 주십시오.

답 마음을 제삼자에게 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다 통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돼요. 즉 말하자면 남한테 마음을 내 달라 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내면 더불어 같이 내진다는 말이에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을 내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것저것 다 버리고 편안하게 하겠습니까만,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이 몸뚱이가 고정됨이 없이 바로 화해서 나투면 잘나잘나 나투는 까닭에 공했단 말입니다.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했고 어떤 거를 할 때에 내가 안 했고 이게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까닭에 주인공 자불이 나의 모든 기능을 합해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너만이 이끌어 줄 수 있잖아. 합격되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뿐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보배를 자기가 응용 못하고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자꾸 내가 무엇이 모자라는데, 내가 무엇이 모자라기 때문에 누구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하고, 책을 찾아 봐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모두를 볼 때엔 모두 자기 할 탓이죠,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요. 모든 게 자기 할 탓이다. 자기가 하는 대로 삶도, 악도 선도 다 살고 있다. 자기가 할 탓이다 이거죠. 자기가 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자기네들이 한 탓으로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이 좀 벗어나서 살아라 하고 일러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닭이 왜 사람으로 부화를 못하느냐. 닭으로 살던 습이 머리에 쟁여져서 닭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닭의 습성이 있어서요. 돼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살던 습성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그 습성을 다 거쳐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올라와서 사람까지 이르렀는데 사람도 천차만별로 차원이 있으니 이것을 어찌하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생각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한생각을 잘하라'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한생각, 보는 순간 듣는 순간 한생각 잘하면 그게 법이 된다 이거예요. 법이 되면 한 발짝 떼 놓지 않고도 가만히 그 보살 응신들이 다 해결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발짝 떼어 놓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본래 한 발짝 떼어 놓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결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한 발짝도 떼어 놓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별나게 사는 걸로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잘나잘나 화해서 나투고 끝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를 파악한다면 우리가 할 거 다 하면서도 함이 없이 한 것이 되죠. 내가 항상 말하죠. 여기 올라올 때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지고 한 발 떼어 놓으면 한 발 없어진다고요.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거든요. 그러니 그 발자국 떼어 놓는 동안에 어떠한 발자국을 떼어 놨다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했고 어떤 발은 떼어 놓을 때 내가 안 했습니까? 떼어 놓은 대로 없어지는 것을요. 잘나에도, 지금 내가 말을 하면서도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기 이전에 미래도, 바로 미래와 과거 교차로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을 먹어도 한마음을 먹기에 달렸다 이겁니다.

내 몸속에도 생명들이 많으니까 한 개체를 더불어 한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일이고 진리를 파악해야 할 일이고 진리 속에서, 악과 선 그 가운데서 내가 악에는 어떡하고 선에는 어떡해야 하는지 그 도리를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용법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공법'이라고 해도 되고 '용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면 어떠한 거든지 손색이 없을 겁니다. 정말입니다. 실천을 항상 해 보십시오. 자기가 실천해야지 아무리 부처님이 있고 일체제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신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을 해서 감응이 되고 감응이 되면 한생각 해 보시고 '아,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하고, 또 상대를 만나 보면 내가 차원이 얼마나 됐는지도 알게 됩니다.

편안치 못하든 편안하든 다 버리는 겁니다! 놓는 겁니다!

윤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문 인간이 윤회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윤회를 하는 걸 본 사람도 없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막연히 그럴 거라는 추측이 아닐는지요? 부처님께서도 그걸 겪어 보지 못하고 한 생 동안 살면서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건지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 윤회를 벗어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요?

답 평상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만행(萬行)입니다. 그대로 만행입니다. 만행이 따로 있어서 만행이 아니라, 그대로 만행입니다. 끝없이 이어 가는 그 행이, 고정됨이 없이 행하는 그 생활이 즉 만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만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도만행(六道萬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행이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육도윤회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육도윤회에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하고 가르침을 주신 거죠. '끊어라' 그러신 게 아니라 '매이지 말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서 발 하나 하나 디뎌 놓는 것도 바로 윤회거늘, 어찌 한 발짝 떼어 놓고 또 한 발짝 떼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치우쳐서 끄달리고 매이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윤회에 매이지 말라.'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도 얘기를 하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차를 한 잔 주는데 뜨거웠어요. 여기 올라오긴 해야겠고 이거를 빨리 식으라고 젓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다." 즉 "네가, 차걸랑은 데워 먹고 뜨겁걸랑은 식혀 먹어라. 이게 진법(眞法)이다."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항상 육도만행을 하면서 육도윤회를 합니다.

그런데 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사에 의해서만이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이 윤회입니다. 화(化)해서 나투면서 찰나찰나 변화되면서 돌아가는 이 만행이 즉, 윤회입니다. 윤회인 까닭에 그 윤회에 매이지 말라고 한 겁니다. 재차 얘기하지만, '매이지 말라. 끄달리지 말라.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대로 들을 수 있다면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대로 점프해서 넘어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고정됨이 없이 공(空)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그것이니 매이지 말고 끄달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공했습니다. 너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세울 것도 없고, 나를 꼬집어서 내세워서 나라고 할 게 없습니다. 안과 밖이 다 그러합니다. 안에도 내 집안의 모든 생명체의 의식들인 내가, 그러니까 사람 속엔 사람이 들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꼬집어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하고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세울 게 없다. 없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세울 게 없다는 거죠. 세울 게 없는데 무엇에 매이고 무엇에 끄달릴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의 도리에서 보면 윤회라는 이름조차도 없는 것인데 살면서 모두 그 이름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질서가 문란하고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 놓고 부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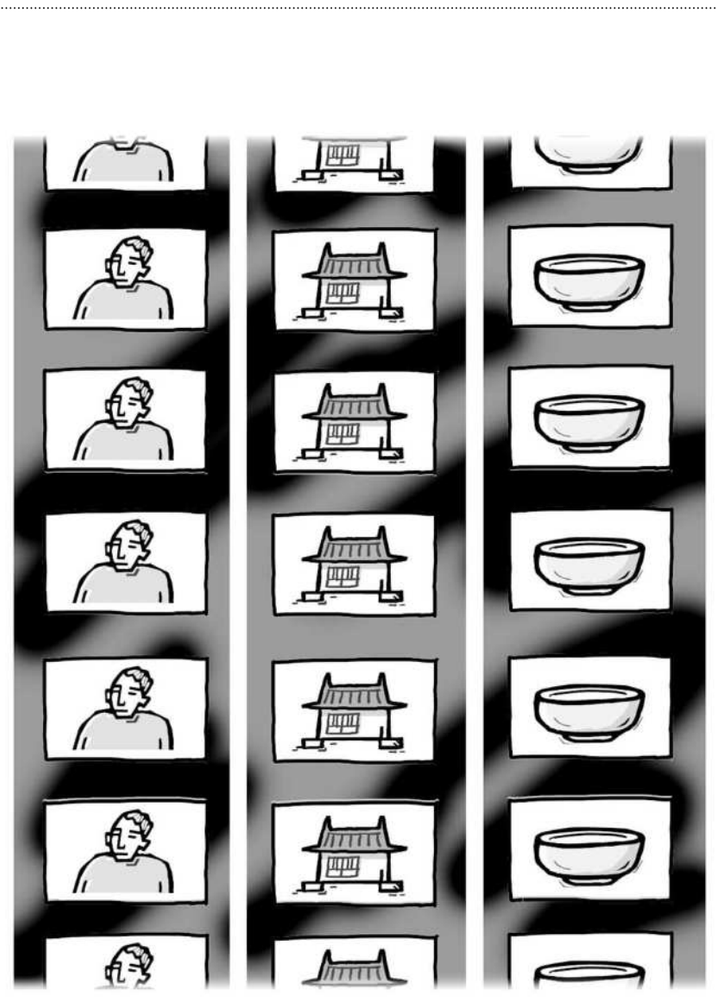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마음의 거울을 꺼내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살며 생각하며"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김사인 시인과 함께
따스함을 느껴보시죠.

나와 내 이웃들의 삶이 보이는 창
〈살며 생각하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ww.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광주 89.7 MHz /대구94.5MHz/청주 96.7 MHz/춘천 100.1 MHz/안동 97.7 MHz/ 포항 105.5 MHz

오체투지 (하)

최현숙 (서울 서초구 양재동)

16년이란 시간은 가끔은 빨리, 어떨 땐 지루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여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작은 딸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큰 딸은 중학생이 되었다.

글을 잘 쓰는 큰 딸은 인도여행 하기를 막연히 희망했다. '꿈은 실천하라고 있지 간직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꿈을 표출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 꿈을 현실화시켜주었다.

내가 다니는 절에서 가는 성지순례단에 끼워 인도여행을 보냈더니 나이든 보살님들 사이에서 중학생 꼬마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바라나시 갠지스 강가와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봉까지 다녀왔다.

딸은 그해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청소년 백일장에서 '나의 꿈'이란 제목의 시를 써서 은상을 탔다.

어느덧 큰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작은 딸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성장했다. 작은 아이는 학교공부를 잘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던 2학년 때 갑자기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난 그 말을 그냥 귓등으로 넘기지 않았다.

미술학원을 한번 다니게 한 뒤 담당 선생을 만나 물어보니 그만한 재능이라면 키워주는 게 좋을 것이라 했다. 그 말에 난 딸의 장래를 밀어주기로 결심했다.

반면 아이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마음 한편은 아팠다. 물론 나는 그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만나는 것을 금지시킨 적은 없었지만 그는 지난 10년 간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가끔 그 사람의 소식을 풍문으로 듣기도 한다. 그가 가끔 정신세계에 관한 책을 다루는 J출판사에서 명상이나 선과 요가 등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역자후기에 그는 현재의 생활에 지극히 만족하고 이렇게 달라진 자신의 인생에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고 썼다. 또 목포 등지에 수련생들을 두고 정신훈련과정이나 명상그룹을 지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에 관한 기억들은 겉으로 보면 잊혀진 것 같으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워질 순 없는 과거다. 오랜 세월, 용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가 내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으니 그 아픔이 내마음속에 단편적으로 보관된 채 가끔씩 폐부를 찔렀다.

그날 내가 두 사람과 마주 앉아 바라보던 유달산 아래의 흐릿한 회색빛 바다 풍경이 지금까지도 생생하다.

십만배 가장 큰 소득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
희망적이고 당당한 생활…남 돕는 삶 발원
"남편을 용서하고 내 과거와 악수해야 한다"

십만배 오체투지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에 난 그 사람의 소식을 또 들었다. 전라북도 소재의 한 도시에 있는 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단다. 부부야 헤어지면 남이라지만 자신의 형편이 나아져도 아버지임에도 아이들을 한 번 찾지 않는데 대해 씁쓸하기도 하고 딸 또래의 학생들을 가르치며 딸들에 대한 의무를 져버린 그가 부도덕하게 느껴졌다. 큰 딸이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어쩌다 찾아가도 그는 꼭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곤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양육비와 은행에 빚졌던 나와 동생의 채무를 갚아줄만큼은 형편이 나아진 것도 같았다. 세월이 지나도 양육비청구는 받을 수 있으니, 나는 그에게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좀 다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나는 늘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내 인생의 황금기와 내 딸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멍들게 한 사람에게 자비심을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십만배를 하면서 나는 그 대답을 찾게 됐다. 절을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득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다. 내 능력과 인격에 대한 신뢰감은 무엇으로 표현하기 힘들만큼 경이로웠다.

전에는 항상 마음이 자주 초조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기도 할 때마다 현 상황이 내 능력에 부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을 고치니 나는 내 스스로 평가해 온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마음먹고 결단을 내리면 어떤 상황이라도 결심한 바를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는 놀랄 만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게 살며 미래 또한 그럴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100% 신뢰감이 바로 올 여름, 내가 땀을 비 오듯 쏟아가며 절을 한 수행의 결과였다.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다. 남보다 좋은 환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남보다 더 좋은 꿈을 꾸면 된다. 그 희망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창밖의 풍경이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된다. 희망이 보이는 사람에겐 주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희망이 생기면 문제는 사라진다. 사람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좋은 환경보다는, 간절한 희망이었다.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었던 것도, 돌아보면 내가 비록 풍요롭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간절하게 꾸었더니 거의 다 실행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동안 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간 내가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 쓴 양육비는 이제 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의 배도 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가 갚아야할 빚이지만 끝없이 채무정리를 독촉하는 금융기관에 나는 지난 5년간 일정액을 수입에서 빼서 다 갚아냈다.

이제껏 그랬듯 앞으로도 내가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되는 것이 없으리라는 강한 확신이 내면에 느껴진다.

그가 어디선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견해를 달리하면 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까진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나에게 청산해야할 빚을 일부러 회피했지만 그도 자신의 도리를 깨우칠 때가 되면 내가 독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갚을 것이다. 그전에 요구해봐야 악연의 고리만 더 세게 묶는 것이리라.

부처님 앞에 앉아 다시 돌아본다. 지난 날 16년을 한결같이 "내 딸들이 남을 돕는 사회의 일꾼이 되도록 기를 힘을 내게 주세요"하던 내 기도도 이제는 끝이 얼마 안 남았다.

올해로써 십만배의 오체투지 기도는 끝이 나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기도는 이어질 것이다. 내 능력이 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좀 더 넓은 사회로 번져서 널리 쓰여지길 희망한다. 안으로는 내 과거인 그를 지우려 할 게 아니라 자비심으로 지난 날 그의 행위에 대해 용서하고 내 과거와 악수를 해야 한다. 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해서 악연의 고리가 윤회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끝)



그림 · 문병성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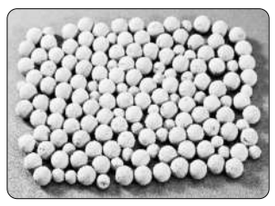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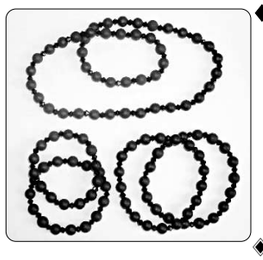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 **목걸이, 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 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락처 : 053)964-0858
휴대폰 : 011-804-1748

제 5기 학인 모집

본 회에서는 전통 영남 범음 · 범패를 수련하고자하는 **제 5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 **기초반 : 각단 예불 및 사시불공의식**
- **중급반 : 각종 재의식**(사물다루는 법)
- **고급반 : 바라 및 승무작법**

기 간 : 2006년 11월27일(월요일)부터 (6개월 과정)
일 시 : 매주 월, 목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
수강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장 소 : 경남 진주시 봉곡동 474-5 불음원(한주 아파트 옆)
연락처 : 055)745-8419

사단법인 영남 범음 · 범패 연구 보존회
이사장 한 파 합장
강 사 원 명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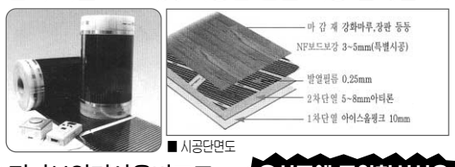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난방 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12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6.8원/kw	36.8원/kw	640원/㎥	66.8원/kw	1250원/㎥	1000원/ℓ
열효율(%)	100	95	90	100	90	85
연료소비량(월)	588kw	1650kw	124㎥	1569/kw	124㎥	182ℓ
월간난방비	39,200원	60,700원	79,360원	104,800원	155,000원	182,000원
단가지수	100	155	202	267	3950	4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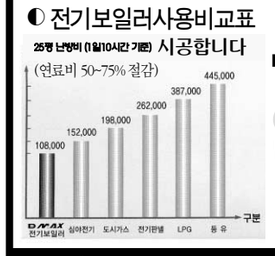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200여곳 시공한 전문 시공 업체입니다



■ 시공단면도

◐ 전기보일러사용비교표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큐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설치하면 좋은 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식당 등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척추 골반교정 초능력氣특강비법 전수

비틀어진 척추가 만병의 원인! 척추신경 바로잡아 모든 병 없앤다.

각 척추에 의한 영향



특전속성반

수료자는 본협회, 단증 수료증 부여 (선착순 약간명)

수련안내

- 기 간 : 2006년 10월 31일부터
-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5시(4주)
- 주 말 반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5시(4주)
- 장 소 : 본 협회(총본관)
- 수련비용 : 40만원(속성반)

※ 협회장 직접 전수함
(수련과정 종료후 활용가능하며, 이제는 효과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수련과정

목, 어깨, 오십견, 좌골신경통, 짝다리, 특수교정법, 운동처방법 카이로프락틱, 명상 혈문여는법, 기공술(이론과 실기 위주)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제 3의 대체요법

(종교법인) (특허등록)
대한불교기공활법협회
대불카이로프락틱협회
총본관 053)357-0204~5 FAX 053)357-0237
http://www.dsa21.com

현대불교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건강용품 특별할인판매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달마의 氣

과로로 지친 직장인과 수험생은 일과 공부로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로 나쁜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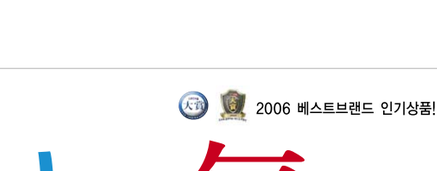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

행운 충전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보이차

해발 3,000M 이상 에서 생산된 자연산 야생교목 (Z년산)



최상의 보이햇차를 고급자사통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특별할인가 ~~600,000~~ → 500,000원

· 구성 : 보이차 14편, 자사통

보이햇차는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떫거나 쓰지 않은 최고급 보이차입니다.

보이햇차 야생지 : 운남성의 서북지방(고리공산)으로 서쪽으로는 '티벳', 동쪽으로는 '샹그리라' 가 인접한 험한 산악지형으로 매우 청정한 지역임

■ 수입원 : ㈜홍다원
홍다원의 보이차는 식약청의 검사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습니다.

자사통

보이차의 자사통은 이싱 정산에 위치한 황용산의 홍니만을 사용하여 직접 작가에게 주문 의뢰한 작품으로 순수한 자사의 원료로 만듭니다.

· 크기 : 지름 29cm, 높이 37cm
· 종류 : 담녹색, 황토색



불교 다이어리북 (2007년)

매일매일 음력, 간지, 불교명언이 소개되고 절에가는 날이 표시 되어있어 편리한 2007년 불교 다이어리북



가격 : 7,500원

· 사이즈 : 표지 14.5×19.5cm, 속지 13×19cm
· 사찰 및 단체명 (레이저 음각)
인쇄 : 100권 이상 무료,
100권 미만시 6만원 추가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산삼품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합장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방석

~~198,000~~ → 158,400원 (20%할인)

· 규격 : 425mm × 400mm
· 무게 : 950g ~ 1000g
· 색상 : 살구색, 쥐색
· 재질 : 겉커버 - 고급 샤넬천,
속커버 - 희담석 알갱이가 들어있는 고급 방수천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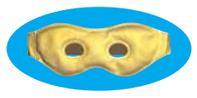
희담석 허리팩

~~44,000~~ → 35,200원 (20%할인)

· 총길이 : 120.5cm ·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 표피 :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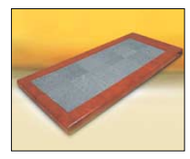
사은품 : 희담석 눈찜질팩



희담석 보료 (싱글)

~~4,000,000~~ → 3,200,000원 (20%할인)

· 희담석 사이즈 (700mm×1800mm×30mm) · 보료 사이즈 (1000mm×2200mm×10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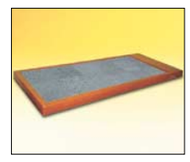
▣ 제품설명 : 희담 원석 중 원적외선의 질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여, 수면시 자연스럽게 활력을 높일 수 있게 제작한 명품입니다. 대부분 돌침대 원석의 두께가 1cm ~ 2cm 정도임에 비해, 희담석 돌침대는 영구 사용을 위하여 3cm 두께의 원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징은 에너지 방사능력으로,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고 사용하셔도 에너지 투과력이 높아 수면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 보료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방석

희담석 보료 (보급형)

~~2,800,000~~ → 2,240,000원 (20%할인)

· 희담석 사이즈 (600mm×1500mm×30mm) · 보료 사이즈 (900mm×1900mm ×100mm)



▣ 제품설명 : 수면시 자연스럽게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보급형 보료는 아담한 사이즈로 스님들의 좁은 수행처에 설치하기 적합합니다. 좌선등으로 활동 시간이 적어 신체대사가 원할치 못한 스님들의 신체 활성화에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옥(玉)등 타 제품의 경우 상온(常溫)에서의 과장은 극히 미미한데 비해, 희담석은 과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하므로 상온에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40℃ ~ 60℃의 온도로 찜질도 할 수 있습니다.
· 보료 : 천연고급가죽

사은품 : 희담석 찜질팩 + 희담석 허리팩

※ 수도권 배송비 무료, 지방 배송비 별도

주문 전화 현대불교신문사 영업팀 02)2004-8213 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2004-8215

'경전수행을 통한 깨달음'
10대 강백 초청

봉선사 강설대법회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 장소 봉선사 설법전 | 주최 봉선사 ·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031) 527-1951~3

2006.9.16~11.25



9月 16日	9月 23日	9月 30日	10月 14日	10月 21日	10月 28日	11月 4日	11月 11日	11月 18日	11月 25日
									
지관 스님 (금강경)	의룡 스님 (육조단경)	혜남 스님 (화엄경)	응각 스님 (아함경)	지안 스님 (열반경)	각성 스님 (해심밀경)	백운 스님 (법화경)	우룡 스님 (정토삼부경)	통광 스님 (원각경)	월운 스님 (능엄경)